



| 제3회 동아시아사 교원 현장 연수 |

중국에서 만나는 동아시아

: 중국 문화와 항일 유적지를 찾아서



일시 2012년 2월13일(월)~17일(금)

장소 중국(상해 및 남경)

목 차

□ 일정표	1
□ 참가자 명단	3
□ 전문가 강연	5
□ 방문 학교 소개	18
□ 학습자료	23
I. 상하이, 굴절된 중국 근대와 대한민국임시정부 ...	23
1. 상하이(上海, Shanghai) 개관	25
2. 중국내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의 발자취	28
※ 대한민국 임시정부	32
※ 중국 관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위상 변화	34
3. 상하이 윤봉길기념관(上海尹奉吉記念館)	52
4. 예원(豫園)	53
5. 상하이 박물관	55
6. 루쉰공원(魯迅公園)	57
※ 현대 중국을 이끈 지성인 '루쉰'	58
7. 쑹칭링 능원(宋庆龄 陵园)	67
※ 쑹칭링(宋慶齡), 송씨 삼자매	68
8. 상하이 와이탄	79
9. 베이징 VS 상하이	82
II. 장쑤성에서 보는 중국의 원림 문화	85

1. 장쑤성(江蘇省, Jiangsu) 개관	87
2. 소박한 물동네 통리(同里)	91
3. 줄정원(拙政園)	94
4. 세계문화유산인 중국 소주의 원림들	100
5. 중국 대운하(경항대운하)	105
※ 대륙 통치엔 강력한 수단.. 해양강국 포기 ‘족쇄’	108
6. 물길 좋은 중국운하, 720년의 운명	111
III. 난징에서 보는 중국 근현대사	119
1. 난징(南京, Nanjing) 개관	121
2. 잔위안태평천국기념관(瞻園太平天國紀念館)	126
3. 태평천국의 봉기	128
4. 난징대학살 기념관	146
5. 난징 대학살	148
<input type="checkbox"/> 동북아역사재단 소개	169
<input type="checkbox"/> 역사교육사업 소개	171
<input type="checkbox"/> 숙소 배정표	173
<input type="checkbox"/> 여행 준비	175
<input type="checkbox"/> 단체 비자	177
<input type="checkbox"/> 중국어 한마디	178
<input type="checkbox"/> 메모장	180
<input type="checkbox"/> 연락처	185

일정표

일 자	여 행 일 정
제1일 02/13 (월)	<p>07:00 인천공항 집결(3층 출국장 M18번 카운터) 09:40 인천출발(OZ361편) 10:40 상해(푸동)도착, 12:00 가이드 미팅 후 중식(현지식, 성황) ▶ 임시정부청사, 신천지 ▶ 홍구공원(매정) ▶ 푸동지구 시찰(동방명주탑 전망대) 18:00 저녁 식사(현지식, 소천아 샤브샤브) ▶ 외탄야경 답사 19:30~21:00 전문가 강연회 ▶ 한·중수교 20년 회고와 전망(남경대 황보기 교수) 21:00 호텔 체크인 및 취침</p> <hr style="border: 0.5px solid black;"/> <p>HOTEL : 상해 훙교화이호텔(Shanghai jin Daily Hotel) ☎ 86-21-64785678</p>
제2일 02/14 (화)	<p>07:00 아침 식사(호텔식) 09:00 출발 ▶ 학교방문 (복단대학교부속고등학교) 12:00 점심 식사(한정식, 이조명가) ▶ 상해박물관 ▶ 송경령공원(만국공묘) ▶ 예원 옛거리 관람 후 호텔로 이동 18:00 저녁 식사(호텔만찬) 및 한·중 교사 교류회 ▶ 한국 및 중국 참가자 소개 및 역사교육 관련 소개 21:00 휴식 및 취침</p> <hr style="border: 0.5px solid black;"/> <p>HOTEL : 상해 훙교화이호텔(Shanghai jin Daily Hotel) ☎ 86-21-64785678</p>

일 자	여 행 일 정
제3일 02/15 (수)	07:00 아침 식사(호텔식) 및 호텔 체크인 08:30 통리로 이동 ▶통리마을 - 퇴사원, 라성주, 명청사 등 12:00 점심 식사(현지식, 권미성) 13:00 소주로 이동 ▶졸정원, 원림박물관 15:00 남경으로 이동 17:00~18:00 전문가 강연회 ▶역사를 바라보는 상이한 시점과 역사화해 - 남경대학살을 중심으로(서현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18:00 저녁 식사(현지식, 동준해선) 및 휴식·취침 HOTEL : 남경 화무국제호텔(Huamao International Hotel) ☎ 86-25-58595688
제4일 02/16 (목)	07:00 아침 식사(호텔식) 09:00 출발 ▶학교방문 (남경사범대부속중학교) 12:00 점심 식사(한정식, 무궁화) ▶남경대학살기념관 관람 18:00 저녁 식사(호텔만찬) 및 한·중 교사 교류회 ▶한국 및 중국 참가자 소개 및 역사교육 관련 소개 21:00 휴식 및 취침 HOTEL : 남경 화무국제호텔(Huamao International Hotel) ☎ 86-25-58595688
제5일 02/17 (금)	07:00 아침 식사(호텔식) 09:00 출발 ▶태평천국박물관 관람 12:00 점심 식사(현지식, 북여현주가) 14:40 출발 18:00 인천 공항 도착(OZ350)

* 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참가자 명단

	이름		소속학교	이메일
1	김재숙	金在淑	시흥능곡중학교	subaru21@naver.com
2	이순아	李順阿	충주예성여자고등학교	lsa9591@naver.com
3	장현숙	張賢淑	혜화여자고등학교	athenejang@hanmail.net
4	이은영	李恩瑛	옥련여자고등학교	hasiliel@naver.com
5	한태명	韓泰明	오산고등학교	h9597@hanmail.net
6	박종관	朴鐘寬	월봉고등학교	venuslegend@naver.com
7	조영선	曹永先	신길고등학교	minha1004@hanmail.net
8	하태석	河泰錫	화홍고등학교	kino0000@hanmail.net
9	김혜정	金惠貞	정발 고등학교	vuswldla@gmail.com
10	김나영	金那始	상인천여자중학교	min157482@hanmail.net
11	김경아	金京娥	인천 영선고등학교	ruddksla22@hanmail.net
12	황상희	黃相姬	인천고등학교	hsh0709@hanmail.net
13	김완유	金完猷	충남당진서야고등학교	kya0458@hanmail.net
14	서중복	徐鍾馥	인천인명여자고등학교	sjb386@hanmail.net
15	송혜경	宋惠京	송내고등학교	hk1231@chol.com
16	편민정	片敏禎	평택여자고등학교	96min-jung@hanmail.net
17	임명희	任明姬	인현고등학교	yim-mh@hanmail.net
18	황정선	黃貞善	여주여자고등학교	hjs8870@hanmail.net

	이름		소속학교	이메일
19	김상국	金相國	경혜여자고등학교	kkoppu@hanmail.net
20	길형환	吉炯煥	상명사범대학부속여고	hhkil@hanmail.net
21	정경림	鄭慶林	하계중학교	jmoonlit@naver.com
22	장향숙	張香淑	영과여자중학교	changhyang@paran.com
23	장영숙	張英淑	보정고등학교	ysjang8245@hanmail.net
24	허현주	許賢珠	의왕고등학교	freshmoon00@naver.com
25	이윤선	李倫宣	동작고등학교	hanul1965@hanmail.net
26	장연환	張淵煥	효명고등학교	yey03@hanmail.net
27	오세운	吳世云	용산고등학교	mountoh@chol.com
28	노유경	盧有慶	교육과학기술부	ryk355@mest.go.kr
29	전병근	全炳根	조선일보사	bkjeon@chosun.com
30	이관배	李瓘培	동북아역사재단	lkb1049@nahf.or.kr
31	서현주	徐賢珠	동북아역사재단	drhyunju@nahf.or.kr
32	정은정	鄭銀定	동북아역사재단	ejchung75@nahf.or.kr

한중수교 20년의 회고와 전망

황보기(남경대학교)

이번 강의는 한중수교 20년을 회고하고, 한중관계의 미래를 전망하며, 더불어 중국 역사학 현황과 중국 학생들의 역사관을 분석한다.

한·중 관계 20년의 회고

1992년 8월 24일 베이징에서 한·중 수교 공동성명에 성명함으로써 한·중 관계의 새 장을 열었다. 이후 한국과 중국은 활발한 교류를 이어왔으며, 현재 중국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경제교류 대상이며, 한국은 중국의 세번째 경제교류 대상이다.

한중수교 20년 역사를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단계는 1992년부터 2002년(밀월기)까지, 두번째 단계는 2002년부터 현재(관계 조정기)까지이다.

중국은 타이완의 국제적 고립을 위해 한중수교에 매우 적극적, 전향적인 태도로 임했고, 이 때문에 초기 한중 관계는 비교적 순탄했다. 한중간 정치·경제·문화 등 각 분야에서 상당한 교류 확대가 진전되었고, 중국 언론매체에서도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보도가 많았다.

90년대 말에 중국에 한류붐이 일어난다. 당시 중국정부는 미국문화 혹은 일본문화보다 덜 위협적이라고 판단된 한류에 호감을 보이고 관대한 정책을 폈다. 하지만 의외로 한국 대중문화가 중국사회에 지속적이고 강한 영향력을 보이자, 중국은 한국문화 확산에 경계심을 가지고 여러 제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자국문화 양성에 들어간다.

필자는 2002년 월드컵이 한중관계의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생각한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기간 중 한국과 중국의 축구팬과 네티즌들은 한국팀의 경기 결과에 대해서 인터넷 등 다양한 무대에서 논쟁했고, 그 과정에서 두나라 국민들은 상대국의 자국인 무시와 비하를 경험했으며, 상대방 국가의 자국인 이미지를 확인하게 된다. 특히 한국인들은 당시 서울의 중국식 지명 漢城이 중화 제국주의 의식과 관련됨을 알게 된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02년도 이전에 이미 한중관계의 불안정 요소가 내재하고 있었고,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분출하게 된다. 이후 한중관계는 새로운 조정국면에 들어간다.

2002년 이후 대형 악재가 연이어 터진다. 동북공정을 통해서 한국인들은 중국의 역사인식을 확인하게 된다. 한국의 단오(중국명 단오절 端午節) 유네스코 등재는 중국인의 강한 反韓 감정의 빌미가 된다. 당시 중국내에서 단오문제를 둘러싸고 다양한 토론이 있었고, 중국 고유문화를 보호 활성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었다. 그 결과 노동절을 대폭 줄이고, 단오절, 청명절, 추석(中秋節)을 부활시켜 공휴일로 지정하게 된다. 역설적으로 중국의 전통문화 보호와 문화제국주의의 길을 한국이 안내해준 격이 되었다.

2008년 사천성 대지진 당시 한국 네티즌의 악성 댓글이 중국 전역에 소개됐고, SBS방송국의 올림픽 개막쇼 영상 사전 누출이 겹쳐 중국내 반한감정은 최고조에 달한다.

중국은 2008년 전까지는 성공적 올림픽 개최가 국가적 지상 목표였기 때문에 외교문제로서 상당히 인내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성공적으로 올림픽을 개최하고, 금융위기 여파로 미국의 국제적 영향력이 퇴조하자, 중국은 국제무대에서 강한 발언권을 행사하기 시작한다. 한국에 대해서도 점차 외교적 강경 대응이 주류를 이루게 된다.

한중관계의 미래

중국인의 한국에 대한 가장 강렬한 인상은 애국심이다. 하지만 중국인의 애국심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중국생활 경험이 있는 한국인의 중국에 대한 가장 두드러진 인상은 ‘爰系’이다. 한국의 학연, 지연이 이와 비슷하다.

같은 성질은 서로 알아보며, 그래서 빨리 친해지기도 한다. 그러나 같은 극끼리는 거부하는 현실의 자식처럼, 서로 상당한 거부감을 보이며 배척하기도 한다. 지금의 한중 관계가 바로 그렇다. 현재 한중관계의 불협화음은 많은 경우에 서로 다르기 때문이기 보다는 의외로 서로 같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다.

현재의 한중관계를 굳이 비유하자면, 오랜 이웃(혹은 친구)이 근대 격변기와 냉전시기에 헤어졌다가 92년부터 다시 교류, 교재하는 형국이다. 서로가 가까워지면 자연히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고 서로 갈등하고 싸우게 된다. 지금 우리는 이 과정을 겪

고 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 한중간의 갈등을 해결해야 할 때이다.

중국인들은 그들의 유구한 역사를 기록으로 남겨 놓았고, 그들은 자주 역사 기록 속에서 미래의 해답을 찾는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은 역사의 민족이라 칭할만하다. 필자는 어쩌면 역사가 한중간 갈등의 해답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느 서양인이 중국 TV에 출연해서 그들의 친구 개념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서양인의 친구 개념은 같은 길을 가는 사람, 혹은 동일한 가치관의 소유자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중국인은 상대방과 굳이 같은 길을 가지 않아도, 같은 가치관을 가지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면 친구가 된다. 이점은 한국과 비슷한데, 그래서 필자는 한국인이 충분히 중국인과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한다. 한·중 수교 20년, 강산이 두 번은 변했다. 이제 또 한번 새롭게 변할 때이다.

중국 역사학 현황과 중국 학생들의 역사관

◇ 중국 중·고등학교 1주일 수업 일수*

중학교	시간	고등학교	고1	고2 (문)	고3 (문)	고3 (이)
어언(중문)	7	어언(중문)	6	6	7	7
수학	7	수학	6	6	9	9
영어	7	영어	6	6	7	7
과학	7	과학	6	6	0	18+3
역사와사회	5	문과종합	6	12	18+3	0
역사	2	역사	2	4	6+1	
지리·정치	2	지리	2	4	6+1	
사상·도덕	1	정치	2	4	6+1	
음악	1	음악	1	0	0	0
체육	2	체육	2	2	2	2
미술	1	미술	0	1	0	0
컴퓨터	1					

* 절강성 溫州의 중고등학교. 각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 존재.

* 중국 전역 교재 통일. 상해(3개 교재 중 1개 선택),
광주는 약간의 독립성.

◇ 고교 대학입시 점수

	중학교 (10년전)	중학교 (현재)	고등학교	비고
어문(중문)	120	150	150	
수학	120	150	150	
영어	100	120	150	
과학	150	200	300	이과
역사·지리·정치	80	30 (역사 10점)	300 (역사 100점)	문과
체육	30	30		
총 점	600점	680점	750점	

*상해지역은 역사150점

◆ 중국 중·고등학교 교과서

◇ 중국 중학교 교과서

《역사와 사회》

1학년 : 《우리가 생활하는 세계》 - 지리 위주

1학년 : 《우리가 생활하는 세계》 - 주로 사회, 일부 간단한 역사

2학년 : 《우리가 전승하는 문명》 - 역사

(산업혁명 이후 세계문명의 발전과 중국에의 영향)

3학년 : 《현대세계와 현대 중국》

※ 한국 언급 거의 없다.

◇ 중국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목차

1학년 : 《역사(정치)》, 인민출판사

- 1 고대 중국의 정치제도
- 2 근대 중국 국가주권 수호투쟁
- 3 근대 중국의 민주혁명
- 4 현대 중국의 정치건설과 조국통일
- 5 현대 중국의 대외관계
- 6 고대 그리스·로마의 정치와 문명
- 7 근대 서양 민주정치의 확립과 발전
- 8 인류해방의 노선
- 9 현대 세계정치의 구조와 다극화 추세

※ 전반부는 중국, 후반부는 세계

※ 구체적 한국 관련 내용 없다.

※ 일본 관련 내용 많다. 주로 언급되는 부분은 명치유신·항일전쟁

2학년 : 《역사(경제)》, 인민출판사

- 1 고대 중국 경제의 기본 구조와 특색
- 2 근대 중국 자본주의의 변화 발전
- 3 중국 사회주의 건설의 길
- 4 중국 근대사회 생활의 변천
- 5 세계 자본주의 시장의 길을 가다
- 6 뉴우딜정책과 현대 사회주의
- 7 소련 사회주의 건설의 경험과 교훈
- 8 현대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추세

※ 한국 언급 없다

3학년 : 《역사(사상,문화,과학)》,인민출판사

- 1 중국 전통 주류 문화사상의 변화
- 2 고대 중국의 과학기술과 문화
- 3 근대 중국 사상해방의 조류
- 4 20세기 이후 중국 주요 사상이론 성과
- 5 현대 중국 문화와 과학
- 6 서방 인류정신의 기원과 발전
- 7 찬란한 근대 이후 과학기술
- 8 19세기 이후의 문학예술

※ 한국 언급 없다

○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역사》, 인민교육출판사

《20세기의 전쟁과 평화》, 조선전쟁 부분 : 북한의 선제남침 언급없다.
...미국의 사회주의 진영 봉쇄가 전쟁의 빌미 제공...6월25일 전

쟁 발발,조선군 신속히 서울 점령...미국은 소련의 기권을 틈타 UN안보리에서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한국에 병력을 파견하고 7함대를 타이완에 파견하여 중국 내정을 간섭...미군이 중국 동북지역을 폭격,...김일성이 모택동에 전보로 구원 요청...중국은 국가를 보호하고 사회주의 국가 조선을 원조하기 위해 중국 인민지원군을 파견...

○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역사》,인민교육출판사

《中外 역사 인물 評說》,당태중 부분

...조선반도(고려·백제)에 중국의 문물이 전래됨. 특히 신라는 대량으로 중국 문물을 받아들였다.

○ 상해지역 고등학교 3학년 역사교과서 《高中역사》,화동사
범대학출판사

- 1 유교문화와 고대 중국
- 2 西學東漸과 근대 중국
- 3 선진 사상이론과 현대 중국
- 4 상해 역사의 변천
- 5 중국 역사학의 발전
- 6 고대세계의 제국
- 7 세계 3대 종교
- 8 17-18세기의 계몽사상
- 9 현대화의 세계적 진전

※ 한국 언급 없다. 상해지역 역사 소개

○ 상해지역 고등학교 3학년 역사교과서 《역사》, 상해교육출판사

주제1 : 전쟁과 문명

알렉산더 원정

십자군 동방 원정

몽고제국의 정복 전쟁

1·2차 세계대전

주제2 : 세계 유산과 인류 문명

동굴에서 도시로

궁전에서 민간으로

인간과 신의 사이

집단생활과 인류의 생존

주제3 : 과학기술 발전 과정

동서방의 과학 전통

중국 고대의 과학 성과

근현대의 과학기술 혁명

※ 한국 언급 없고, 일본의 교토 소개

※ 중국의 역사기술은 문예부흥 이후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발달사 위주

※ 중국 교과서의 한국 기술

고구려·한4군 문제 언급 안함

직접 언급되는 부분은 한국전쟁, 임진왜란(최근에 언급 안함) ,
간접 언급되는 부분은 갑오전쟁, 전체적으로 한국에 관한 기술은
극히 적다

※ 중국 교과서의 일본 기술

주로 언급되는 부분은 왜구, 명치유신, 항일 전쟁

상당한 분량을 할애해 일본에 대해 기술

→ 중국인의 일본에 대한 혐오감을 조성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일본을 역사상 맞수로 보는 결과를 초래함

◎ 복단대학교 역사지리연구중심 : 《중국역사지도집》

○ 전국시기 : 高夷(고구려)- 가장 먼저 등장하는 한국 관련 국가,
중국 영토 범위내 연나라의 장성이 압록강을 넘어
평안북도 청천강 일대에 이름
한반도에 지명표기 없음

○ 진대 : 압록강 이북에 고구려
압록강 이남에 조선, 조선은 한반도상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국가
고구려, 조선 모두 중국 영토범위 외
진의 장성이 평안남도 일대에 이름

○ 전한대 : 한반도 북부에 한4군 설치, 한(유주)의 행정구역 일부
고구려는 한4군(현도군)의 일부

○ 후한대 : 고구려 독립, 단 중국의 지방정권
한반도 남부에 3한 존재(삼한의 영토 경계선 없다).

○ 위진남북조시대 : 후한대와 거의 동일

- 동진 16국 시대 : 위진남북조와 동일.
고구려와 중국의 영토 경계선 없다. 고구려와 삼한사이의 경계선 있다. 임나등장. 임나의 실체는 인정하지만, 임나일본부에 대한 견해는 없다.
- 위진남북조시대 : 고구려는 중국 영토 범위에서 독립, 단 한반도의 역사인지는 모호
고구려와 삼한사이의 경계선은 없다.
- 수대 : 위진남북조와 동일,고구려의 동북부 영토 인정안함
- 당전기 : 고구려와 백제가 일시 당의 영토에 편입.
지도의 편년년도는 699년, 백제의 시기는 (660년~665년)
- 당후기 : 대동강 이남이 신라 영토,
(한국 : 대동강하류—원산만 / 중국 : 대동강 상류--용흥강)
발해는 중국의 지방정권
- 원시기 : 철령, 자비령 이북 - 원의 영토
동해 명칭 없다, 북해도와 연해주 사이의 바다—鯨海
- 명시기 : 백두산 천지는 명의 영토로 표기
서울지명—漢城

○청시기 : 1820년 서울지명—京城
연해주와 북해도 앞바다—東海
연해주 남부, 북한 쪽 바다—南海
황해—東大洋
동중국해—南大洋

○ 1908년 : 서울 -漢城
동해—일본해
황해—황해
동중국해—東海
압록강 하구 삼각주—중국 영토

【강사 소개】

◆ 교육경력

1997-2000 : 국립부경대학교 일어일문학과

2000-2003 : 국립부경대학교 사학과 석사. 중국역사 전공

2002-2004 : 중국인민대학교 국제교류중심. 어학연수

2005-2009 : 복단대학교 역사지리연구중심 박사. 역사지리전공

2009-2011 : 복단대학교 문사연구원 박사후. 한중 관계사, 중국사상사 연구

2011- : 남경대학교 역사학과 박사 後

◆ 학위논문

학사논문 : 《石川啄木の诗世界—<悲しき玩具>—》

석사논문 : 《<浙江潮>와 西洋》

박사논문 : 《燕行路의 지명、취락과 지역경관 연구》

복단대학교 박사후 연구보고서 : 《華夷의 경계 : 明清시기 朝鮮人の 중국지리 이미지》

남경대학교 박사후 연구방향 : 《朝鮮과 明清시기의 山水畫 비교연구》

◆ 기타 경력

농협중앙회 근무

한국해양전략연구 회원

동북아문화학회 회원

중국국가교육부“985”工程 철학사회과학創新基地항목 (06FCZD005) 참가

<연구주제 : "清代 長江하류지역 장마전선 이동과 사회영향">

남경사대 부속중·고등학교
<동아시아평화교육과정개발>사업방안
(원제:南京師大附中<東亞和平教育課程開發>工作方案)

<동아시아평화교육> 교과과정연구의 핵심목표는 동아시아평화교육이다. 역사학과 내용을 중심으로 그 외 여러 과목을 종합적으로 구성하여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중고등학교 교과과정 시스템을 진행하도록 한다.

1. '평화교육'교과과정은 세계지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고등학생 양성을 목표로 한다. '동아시아평화'를 기본 플랫폼으로 하여 모든 교육활동은 교과과정의 목표에 부합하여야 한다. 학교의 (月단위로 설정된)연간 교과방안계획에 부합하여 교과목표, 교재, 교과과정, 평가진행시스템을 조직한다.
2. 동아시아3국역사의 문제를 중심으로 오늘날 한중일3국의 현황을 다룬 내용을 더하여 선수과목 '동아시아3국의 근현대사'(한중일 3국 공동편찬 역사교재 사용)을 개설하고, 학습자료(학습참고자료집)및 활동방안을 마련한다.
3. 근현대사 이후 인류의 전쟁으로부터 얻은 교훈 및 평화를 향한 여정에서 시작하여 오늘날 국제정세를 다룬 내용을 더하여 '근현대 국제관계, 전쟁과 평화' 선수과정을 개설한다. 중국고등학교 선수과정교재<전쟁과 평화>를

사용하여 비엔나회의 이후의 국제관계, 전쟁의 교훈 과 인류의 평화를 위한 노력을 학습함으로써 학생들이 평화 교육 참여의식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교과과정자료와 활동방안을 새롭게 구성한다.

4. 동아시아3국문화현장이해에서 출발하여 현재 학교에 개설된 '일본어'선수과목을 '일본과 일본문화'선수과목으로 바꾸고, 언어교육과목을 문화교육과목으로 재편한다. 가능하다면 외국인 교사 혹은 외국인 유학생을 통하여 '일본과 한국문화 소개'선수과정을 건설하도록 한다. 또한 학교의 국제과(國際科)를 통하여 외국 중고등학교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5. 동아시아3국의 역사문화비교를 주제로 학생 동아리활동을 조직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학교 동아리활동, '春秋史學社' 및 '모의UN' 의 행사방식을 참고하며 동아리 조직 활동방안과 활동자료를 구축한다.
6. '역사를 기억하고 미래를 기억하자'를 주제로 지속적으로 매년 본교에서 대규모 교육행사를 마련한다. 매년 12·13 (남경대학살기념일) 교육행사를 주제로, 한 발 나아가 '2차대전 3대비극'의 역사, 현장 및 교훈을 다루며 평화추구를 목표로 한다. 또한 자료전시, 학생백일장대회, 학생 지식경연대회, 시청각 자료전시 등의 자료와 교육활동 방안을 구축한다.
7. '전세계에 남경(南京)을 알리자'를 목표로, 2014년 남경하계 청소년올림픽 준비를 계기로, 본교의 '남경역사문화여행'(六朝/明朝/民國/오늘날/ 총 4개 장으로 구성, 한국어 일어 중국어 등 4개 언어로 편찬되었다.)을 외국학

생의 남경여행을 위해 보급한다.

8. 각종 평화교육 활동에 참여한다. 남경대학살 희생자 기념관 및 남경시 평화교육 연구소행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한다. 한중일 청소년 역사캠프, 일본자매결연학교와의 교류활동, 국제 NGO역사평화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평화교육에 관한 국제교류를 진행한다.
9. 楊群(중국사회과학원문헌출판사 主編助理), 朱成山(남경대학살희생자기념관 관장), 陳仲丹(남경대학교 교수), 劉成(남경대학교교수) 등의 전문가의 지도와 참여로 평화교육자료를 구축하며 남경시 중고등학교 역사교사를 위한 ‘국제평화’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교류를 진행한다.

南京師大附中“東亞和平教育課程開發”工作方案

課題研究的目標，是通過以東亞和平教育爲核心与目標、以歷史爲主其它學科輔助、以教學和活動并重的中學活動課程，實踐中學的愛國主義教育与和平教育相結合的課程体系。

1、形成學校“和平教育”課程方案，以培養面向世界、面向未來的高中生爲目標，以“東亞和平”爲平台，所有活動都按照課程建設的要求，對目標、教材、過程、評價進行設計和建設，將課程、活動整合成學校年度的課程方案（月程的形式）。

2、以東亞三國歷史的回顧爲着眼点，并結合当前中日韓三國的現狀，開設校本選修課程“東亞三國的近現代史”（中日韓三國合編的歷史教材），并積累教學資源（教學參考資料庫）和

活動方案。

3、從近現代以來人類的戰爭教訓與爭取和平的歷程出發，結合當前國際局勢，開設校本選修課程“近現代的國際關係、戰爭與和平”，借助國家高中選修課程教材《戰爭與和平》，通過維也納會議以來的國際關係、戰爭教訓和人類爭取和平的努力，培養學生參與和平教育的意識為課程目標，重新設計課程資料，設計活動方案。

4、從了解東亞三國的文化現狀出發，將學校目前的“日語”選修課程建設為“日語與日本文化”選修課程，將語言教學轉變為文化教育。如果有可能，通過外籍教師或外國留學生，爭取建設為“日本與韓國的文化介紹”選修課程，並通過學校的國際科，爭取國外中學的合作。

5、以東亞三國的歷史文化對比為主題，通過學校學生的社團活動或“春秋史學社”，參照“模擬聯合國”的活動方式，組織學生社團活動，並積累活動方案與活動資料。

6、以“牢記歷史 面向未來”為主題，繼續組織我校每年的大型教育活動，以每年1213（南京大屠殺遇難同胞紀念日）的教育活動為中心，整合進“二戰三大悲劇”歷史、現狀、反思的內容，以追求和平為目標，並積累完整的活動方案，和櫥窗展版、學生詩歌創作、學生知識競賽、影視庫等資料。

7、以“讓世界了解南京”為目標，借助2014年“青奧會”準備契

机，編撰我校的“南京歷史文化之旅”圖冊（六朝、明朝、民國、当代4部分，英文、日文、韓文、中文4种文字），作為國外學生南京之旅的普及性讀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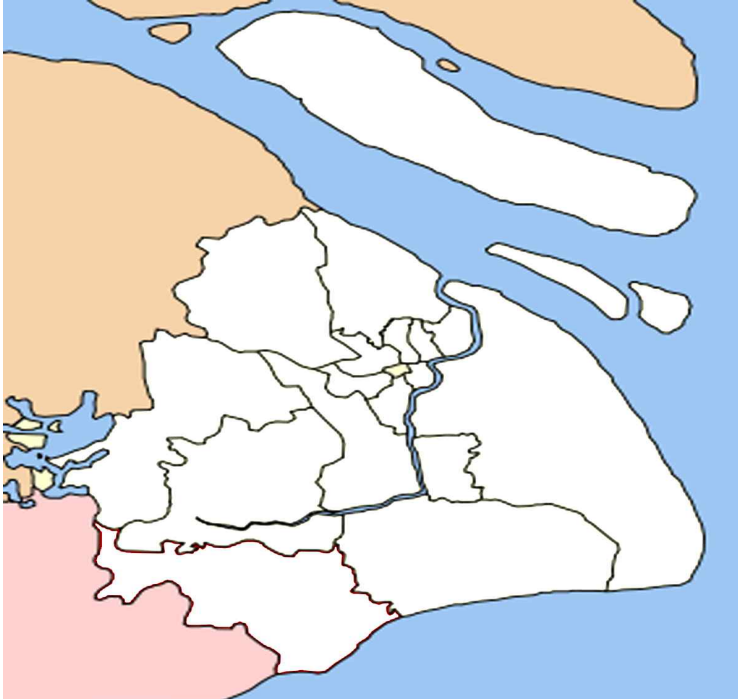
8、積極參與各項以和平教育為主題的活動，包括繼續參加南京大屠殺遇難同胞紀念館、南京市和平教育研究所的活動，積極參與中日韓青少年歷史體驗夏令營、日本友好學校的交流活動，積極參與國際非政府組織歷史與和平大會，進行和平教育的國際交流。

9、爭取楊群（中國社會科學院文獻出版社主編助理）、朱成山（南京大屠殺遇難同胞紀念館館長）、陳仲丹（南京大學教授）、劉成（南京大學教授）等專家的指導和參與，建設和平教育教學資源庫，通過南京市中學歷史教師共享的“國際和平”網站進行發布、交流和資源建設。

학습 자료

I. 상하이, 굴절된 중국 근대와 대한민국 임시정부

1. 상하이(上海, Shanghai) 개관



중국 양쯔 강[揚子江] 하구의 중국 최대도시.

면적은 6,341km², 인구는 약 1800만 명(2007)이다. 중국 제1의 대도시이며 행정적으로는 성(省)과 동격인 중앙정부 직할시(直轄市)이다. 지역은 시가지부의 10구(區), 교외부의 10현(縣)으로 나뉜다.

시가지는 양쯔 강 어귀의 남안(南岸), 황푸 강[黃浦江]이 양쯔 강에 합류하는 지점에 위치하고, 시가지 주변의 넓은 땅과 양쯔 강 어귀의 하중도(河中島)인 충밍 섬[崇明島]을 지역에 포함시키고 있다. 시가지를 흐르는 또 하나의 주요 하천인 우쑹강[吳淞江:蘇州河]이 황푸 강에 합류하는 지점을 옛날에 후독[滬濱]이라 불렀다.

상하이의 별칭 ‘후[滬]’는 옛 지명에서 유래된 것이다. 부근은 장난[江南] 삼각주 지대로 토지가 비옥하고, 위의 하천 외에 크고 작은 여러 수로가 시역에纵横으로 뻗어 있다. 기후는 온난하여 연평균기온 15~16℃를 보이고, 연평균강수량은 1,100~1,200mm이다.

상하이는 송말(宋末)의 1267년에 이미 무역항이 되어, 무역감독관청으로서의 시박사(市舶司)의 분소(分所)가 설치되었다. 1842년에 아편전쟁(阿片戰爭)의 결과 맺어진 난징조약[南京條約]에 의해 구미제국과의 무역을 위한 개항장(開港場)이 되자, 상공업도시로서 급속히 발전하여 중국 제1의 도시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상하이의 실권은 외국인의 해관세무사(海關稅務士)가 장악하고, 치외법권(治外法權)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조계(租界)가 설치되는 등 제국주의 열강의 중국 침략의 근거지가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중국의 민족해방운동이나 노동운동의 중심지이기도 하여 1949년까지 혁명과 반혁명 세력의 격렬한 대결이 되풀이되기도 하였다.

한편 상하이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이곳에서 1919년 4월 17일에 조직되어 1932년 5월에 일본의 탄압을 피해 항저우[杭州]로 옮기기까지 활약했던 곳이다. 또 1932년 4월 29일 윤봉길(尹奉吉) 의사가 이곳 홍커우공원(虹口公園)에서 폭탄을 투척하여 일본 육군대장 시라카와 요시노리[白川義則] 등을 폭사·부상케 한 곳으로, 윤봉길 의사 의거 유적지와 임시정부 청사가 보존되어 있다.

상하이는 중국 굴지의 공업도시로, 방직·기계·조선·전기기기·화학·비료·인쇄 등의 공업이 다양하게 영위되고, 또 기술적으로도 전국을 리드하고 있다. 본래 경공업, 특히 방직공업의 비중이 대단히 높았으나, 근래 중화학공업이 크게 신장하고 있다. 시가지 교외의 각 현(縣)에서는 쌀 외에 채소·목화·과일 재배 및 양돈·양금(養禽)·담수어양식 등이 활발하다.

1968년 10월 난징[南京]의 창장대교[長江大橋] 완성에 의해 베이징[北京]에 직결되는 징후[京滬] 철도가 열리고, 또 후항철도[滬杭鐵道:상하이~항저우] 외에 많은 도로가 집중되어 있다. 상하이 국제공항은 국내 각지와 국내선을 통하는 외에 국제항로가 열려 있고, 황푸강의 상하이항은 근래 내외 선박의 출입이 급증하여 수만 톤 급 외항선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중국 최대의 무역항이자 세

계적인 무역항이다.

상하이 는 중국의 주요 학술·문화 중심지의 하나이기도 하여 푸단[復旦]대학·통지[同濟]대학·화둥[華東]사범대학 등 여러 대학과 다수의 연구기관 및 50만 권의 장서가 있는 상하이도서관과 상하이박물관 등이 있다. 인민공원·중산[中山]공원·홍커우 공원·푸싱[復興] 공원 등이 있고, 명소·고적으로는 정안사[靜安寺]·룽화사[龍華寺] 및 루쉰[魯迅]의 묘(墓·홍커우 공원), 서광계(徐光啓)의 묘 등이 있다.

2. 중국내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의 발자취

가. 대한민국의 출발점 '상해 임시정부 청사'(1993년 복원)



▲ 중국 상해시 마당로 보경리 4호에 복원된 임시정부 청사

1919년 상해에서 출발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32년 윤봉길 의사의 홍구 공원 의거를 계기로 상해를 떠나 항주로 이전할 때까지 약 13년 동안 상해에서 활동하였다.

수립 직후 임시정부는 프랑스 조계지 내에 2층 양옥집을 빌려 건물에 태극기를 걸고 청사로 사용하였는데 곧 패쇄 조치를 당한다. 이후 탄압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12차래 이상 개인집과 기관을 떠돌다 1926년에야 안정적인 청사를 마련하게 되는데 이곳이 현재 상해에 남아 있는 마당로(馬當路) 보경리 4호 청사이다.

이 청사는 중국식 연립주택 형태로, 임시정부 경제후원회의의 도움으로 1932년 항주로 이전할 때까지 약 6년 동안 유지되었다. 1989년까지도 원형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중국 측의 도시개발계획으로 훼손될 위기에 처해지자 국민들의 보존 열망에 힘입어 1993년부터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복원되었다.

상해 임시정부 청사는 대한민국의 출발점으로, 임시정부가 사용하였던 청사 중 상해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청사라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담고 있다.

나. 편할 날 없던 고난의 대장정 '항주 임시정부 청사(2007년 복원)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32년 4월 29일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계기로 일제의



▲ 중국 항주시 장생로 호변촌 23호에 복원된 항주 임시정부 청사

탄압을 피해 상해 청사를 떠나 다시 항주 호변촌 23호로 이전하게 되고, 이곳에서 1935년 11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이 청사는 임시정부가 후에 중경으로 이전한 후 오랫동안 중국인의 가옥으로 쓰였는데, 2007년 항주시와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항주구지 기념관'으로 복원되었다. 전시관에는 중국에서 온갖 어려움을 견디며 임시정부를 유지해간 우리 선열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복원되어 있다.

다. 중국에서의 마지막 청사 '중경 임시정부 청사'(2001년 복원)



▲ 중경시 유증구 연화지 38호에 복원된 중경 임시정부 청사

임시정부는 1932년 상해를 떠난 이래 항주, 진강, 장사, 광주, 유주, 기강을 거쳐 1940년 중국 국민당 정부의 도움으로 중경으로 이전한다. 당시 중경은 수도 남경을 일본군에게 빼앗긴 중국국민당 정부가 임시수도로 정한 곳이었다.

중경에 거점을 둔 시기는 1940년부터 1945년 광복 때까지 5년에 불과하지만, 이 시기는 임시정부가 가장 활발하게 독립운동을 추진한 시기였다.

한국광복군을 창설하였고, 주석을 중심으로 한 단일지도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1941년 미국과 일본 간에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즉각 대일선전포고를 발표했다. 영국과 미국 등 연합국과 함께 공동작전을 추진하는 한편, 국내의 독립운동 세력들과 연계를 도모하여 국내 진입작전을 계획하고 추진하였다.

중경 청사는 임시정부가 1945년 8·15광복과 더불어 27년간의 여정을 마치고 환국한 뒤, 충칭시의 도시개발계획으로 한때 사라질 위기에 처했으나, 우리 정부와 중경시가 힘을 모아 복원작업을 시작하여 2001년 일반에 공개됐다. 이곳은 상해임시정부청사의 12배에 달하는 규모로서 김구와 장제스의 회담 자료, 독립신문이나 광복군 자료 등 많은 사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 1945년 11월 3일 환국 20일 전 중경청사 앞에서 기념 촬영하는 임시정부 요인들

※ 대한민국 임시정부

- 30년간 독립운동 "최초의 민주공화정"

이연복(서울교육대학교 교수)

1919년 3·1운동을 전후해 서울 상하이(上海) 러시아 등에서는 독립운동을 총괄하여 지도하는 조직이 절실히 필요했다. 이는 임시정부를 수립하려는 운동으로 이어졌다.

그 해 2월 블라디보스톡에서는 전로한족중앙총회를 개편하여 손병희와 박영효를 각각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하는 대한국민의회가 생겼다. 4월 13일에는 상하이의 신한청년당이 중심이 되어 국무총리 이승만, 내무총장 안창호, 군무총장 이동휘 체제로 정부를 세웠다. 서울에서도 4월 23일 이승만을 집정관총재로, 이동휘를 국무총리로 하는 한성정부가 수립되었다.

임시정부가 세 곳에서 세워지자 자연히 하나로 통합하자는 논의가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임시정부를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문제로 두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러시아의 국민의회는 "러시아·만주지역이 실제로 통치 가능한 국민, 즉 국내에서 이주해 온 수많은 교포가 있고 본국과 가깝다"는 이유로 임정을 러시아에 둘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상하이임시정부는 "상하이가 일본군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해 행동이 자유롭고, 교통이 편리하며, 많은 나라의 조차지역이기 때문에 편리하다"고 고집했다.

임시정부의 위치 문제는 단순한 것이 아니었다. 여기에는 통합될 임시정부가 역량을 독립전쟁에 모을 것인가, 아니면 외교활동에 집중할 것인가 하는 민족해방운동론과도 맞물려 있었다.

마침내 통합 뒤에 임시정부를 러시아에 둘 수도 있다고 의견이 좁혀져 그 해 9월 외교독립론을 운동노선으로 하는 통합임시정부가 세워졌다. 임시대통령에 이승만, 국무총리에 이동휘로 출범한 임시정부는 민주공화제를 채택했다. 국민대표기관인 의정원을 두고 기관지 「독립신문」을 발간했다. 또 외교활동을 위해 프랑스와 미국에 각각 파리위원부와 구미위원부를 설치했다.

1919년 5월 파리에서 「파리강화회의」가 열리자, 임시정부는 신한청년당의 대표로 파리에 가 있던 김규식을 외무총장 겸 파리강화회의의 대한민위원과 주파리위원에 임명, 독립을 청원하게 했다. 김규식은 「한민족의 해방과 독립회복을 위한 청원서」 「한민족의 요구서」 등을 제출하고 임시정부대표로 참여하려 했다. 그러나 강대국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아 회의에 참석조차 못했다.

임시정부는 파리강화회의에서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주로 미국을 상대로 한 외교활동에 힘을 모았다. 이어 1921년 11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군축회의에 다시 한번 기대를 걸고 외교역량을 집중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임시정부가 처음부터 심혈을 기울인 외교활동이 번번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이승만의 위임통치론과 임시정부의 주도권을 둘러싼 서북파와 기호파의 끊임없는 분쟁이 일어났다. 임시정부의 외교활동을 비판하며 독립전쟁을 주장해 온 신채호 등 중국의 민족주의자들과 만주·러시아 등지의 무장세력들은 『임시정부의 활동과 독립운동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 며 국민대표대회를 열고 주장했다.

1923년 1월 열린 국민대표대회에는 좌우익을 가리지 않고 나라 안팎의 70여 개의 독립운동단체, 100여 명의 대표가 참가했다. 대회에서는 임시정부를 독립운동의 실천에 맞도록 개편하자는 개조파와 현재의 임시정부를 해체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 창조파가 맞섰다. 끝내 두 입장은 좁혀지지 않았고 회의도 결렬되었다. 임시정부에 참여한 많은 세력들이 실망하여 각자의 길로 떠나갔다. 그 뒤 임시정부는 분열을 거듭하면서 제대로 활동하지 못했다.

그러나 1932년 4월 윤봉길의 의거로 활로를 찾게 된 김구·이동녕 등 임시정부 유지파는 1935년 11월 한국국민당을 조직했다. 한국국민당은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 등과 연합하여 8월에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를 만들었다. 또 1940년 5월에는 광복운동단체연합회에 참가한 한국국민당·한국독립당·조선혁명당 등 3당이 합동해 새로운 한국독립당을 만들어 임시정부(주석 김구)를 확고히 다졌다. 한국독립당이 중심이었던 임시정부는 일제가 패망할 것을 대비하여 1941년 11월 조소앙의 삼균주의에 바탕을 둔 「건국강령」을 발표했다.

임시정부는 1940년 9월에 이청천을 총사령관으로 한국광복군을 창설하였다. 30여명으로 출범한 광복군은 군대나 무기를 갖추지 못한 채 만들어져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나, 1941년 5월 조선의용대 일부 세력을 끌어들이고, 국민당의 군사원조를 받아 점차 부대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중국은 1941년 11월 원조한국광복군법에 따라 정식으로 임시정부에 군사원조를 했다. 그러나 「한국광복군 행동 9개 준승(準繩)」에 따라 광복군을 중국 군사위원회에 귀속시켜 통괄 지휘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광복군은 절반이 넘는 장교가 중국군으로 편성되었고 1944년 8월 23일 「준승」이 취소될 때까지 독자 행동권을 갖지 못했다.

임시정부는 1941년 12월 태평양전쟁이 일어나자 일체에 정식으로 선전포고를 하고, 1943년에는 인도·버마전선에 9명으로 편성된 광복군 공작대를 보냈다. 광복군이 가장 힘을 기울인 것은 미국과 합동작전을 하는 일이었다. 중국에 주둔하는 미국 전략첩보기구(OSS)와 합작하여 광복군 가운데 2지대 사람들을 뽑아 특수훈련을 시킨 뒤 국내에 투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제가 너무 빨리 항복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광복 후에는 반탁운동 등을 전개하면서 민족의 독립을 위해 투쟁을 계속하였다.

이와 같이 3·1운동의 결정체로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일정부분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나, 한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정이었다. 또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 때까지 30년간 간단없이 독립운동을 계속하였다는 점에서 과소 평가될 수 없을 것이다.

※ 중국 관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위상 변화

김희곤(안동대학교 교수)

가. 머리말

1919년에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대한제국 이래 전개된 민족운동의 결실 이요, 3·1운동으로 모아진 민족역량의 결정체였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그 명칭에서 나타내듯이 ‘대한제국’이 아닌 ‘대한민국’을, ‘정식’이 아닌 ‘임시’ 기구를, 그리고 일개 ‘단체’가 아닌 ‘정부’의 조직을 표방하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이하 임시정부)는 독립운동사에서 뿐만 아니라 근대 민족국가의 성립과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¹⁾

임시정부는 수립 초기 국내외 독립운동을 통할하는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임시정부의 그와 같은 역할은 오래 지속되지 못한 채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쇠퇴해 갔고, ‘정부’라는 이름이 걸맞지 않을 정도로 허약한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리하여 1930년대 전반에는 임시정부 조직 자체를 꾸러나가기도 힘들 정도의 시련을 겪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임시정부는 끈질긴 생명력을 발휘하며 수립 이후 광복을 맞이하기까지 27년 동안 한 번도 간판을 내린 일이 없었으며, 광복 전기에 이르러는 독립운동의 중심적 위치를 회복하면서 독립전쟁을 통할해 갔던 것이다.

때문에 임시정부의 역사적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할 필요가 제기된다. 그런 점에서 국내외 각처의 독립운동과 임시정부와의 관계를 살피는 작업도 요구되는데, 본 발표에서는 특히 임시정부가 위치하던 중국 관내의 독립운동에서 가진 위상을 살피기로 한다.

주지하듯이 한국의 독립운동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활발하게 전개되었

1) 의회를 조직하고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1917년에 申圭植·趙素昂 등에 의해 발표된 「大同團結宣言」에서 천명되었다.(趙東杰, 「臨時政府 樹立을 위한 1917년의 「大同團結宣言」, 《韓國學論叢》 9, 1987, 150쪽).

으며, 해외독립운동의 경우 불가피하게 주재 국가의 정세변화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변천되어 갈 수밖에 없었다. 임시정부도 예외가 아니었고, 그러한 사정은 중국 관내 지역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단체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리하여 중국정부의 내정 문제나 대외관계의 변화에 따라 임시정부를 비롯한 한국독립운동은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다. 일찍이 신해혁명에서 그러했고, 제1차 국공합작과 분열, 1931년 일제의 ‘만주침공’, 중일전쟁, 제2차 국공합작, 重慶 천도 등이 모두 그러했다. 따라서 임시정부가 중국관내 지역에서 가지는 한국독립운동사상의 위상은 중국 내 정세변화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필요가 있다.

나. 임시정부 수립과 난관 극복

1) 임시정부 수립과 ‘정통성’ 확보

3·1운동은 온 민족이 참여하여 식민지통치를 부정하고, 민족의 절대독립을 요구한 독립운동이었다. 이를 통해 ‘조선이 독립국임을 국내외에 선포하였으니, 다음으로 이를 대표할 기구를 설립하는 일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뿐만 아니라 3·1운동으로 표출된 민족의 독립의지를 한 곳으로 결집시키는 일과 함께, 이를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독립운동으로 발전시킬 필요성도 있었다. 3·1운동이 전개되던 3, 4월에 국내외 각지에서 7, 8개의 정부 수립이 선포된 것이 그것을 말해 준다.

상해에 임시정부가 수립된 바탕에는 그곳에서 1910년대에 펼쳐진 독립운동이 기초를 이루고 있었다. 그 교두보 위에 독립임시사무소가 만들어진 시기는 3·1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최고조에 달하던 3월말이었다. 국내에서 온 玄奘을 비롯하여 李東寧·曹成煥·金東三·趙素昂·李始榮 등 독립운동자들이 각지에서 프랑스 租界에 자리잡은 이 사무소로 집결하였고, 여기에서 정부 수립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들은 3·1운동을 마무리하면서 독립 이후 수립할 정부를 구상하고, 이에 대한 준비단계로 ‘임시’정부 수립으로 가닥을 잡아 나갔다.

1919년 4월 10일부터 다음날까지 29명이 참여한 회의는 정부 수립을 위한 중요 사항들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국호와 연호, 정부관제와 인선, 임시헌장, 선서문과 정강 등을 제정하거나 결정하였다. 따라서 이 회의는 제1회 의정

원회의요, 제헌의회가 된 셈이었다. 4월에서 5월에 걸쳐 열린 제2·3·4회 회의는 정부 부서를 정하고, 임시의정원법을 제정하여 국내외 지역별로 의원들을 선출하여 의정원을 구성하였다. 이로써 정부와 의회를 갖춘 정부조직이 완성되었다. 이어서 8, 9월에 열린 제6회 회의는 8장 58개조로 된 헌법개정안을 마련하여 제대로 된 체제를 갖추었다.

정부 수립을 선포한 경우는 여러 개였지만, 실제적인 조직과 기반을 갖춘 정부는 대한국민의회(노령, 3.17)·대한민국임시정부(상해, 4.13)·한성정부(서울, 4.23)의 세 정부조직체였다. 이들 정부조직체는 모두 민족을 대표할 수 없었다. 세 곳의 정부조직체는 수립 직후부터 통합을 추진하였다. 임시정부는 4회 회의에서 여러 곳에 성립된 정부조직체를 통합할 것을 결의하였다. 통합운동은 5월에 미국으로부터 상해에 도착한 安昌浩와 노령측의 元世勳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

각기 지역적 기반을 달리하는 세 곳의 임시정부가 통합을 이루기는 어려웠다.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마침내 국내에서 수립된 한성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하고 정부 위치를 상해에 둔다는 원칙에 합의하였다. 세 곳의 임시정부가 통합을 이룬 때는 1919년 9월이었다. 그 과정을 줄곧 이끌어 나간 인물이 미국에서 5월에 상해로 도착한 安昌浩였다. 노령 국민의회 대표인 李東輝가 상해로 와서 국무총리가 되고, 대통령 李承晚을 대신하여 임시정부를 이끌어가게 된 것이다. 이러한 통합은 안창호의 ‘삼두정치’ 구상에서 비롯하였는데,²⁾ 그는 한성정부를 대표한 미국의 이승만, 노령의 이동휘, 상해의 안창호 자신을 포함한 ‘삼두’의 통합 위에 정부를 운영하고자 했던 것이다.³⁾

임시정부는 수립과 통합 과정에서 ‘정통성’을 확보하였다. 첫째, 임시정부가 3·1운동으로 표출된 민주공화정부 수립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구현시킨 점에서 그러하다. 이것은 독립협회 이후 근대민주국가를 건립하려던 민족적 소망이 3·1운동을 거쳐 임시정부 수립에 와서 실현되었다는 의미이다. 둘째, 그렇게

2) 주요한 편, 『安島山全書』상(傳記篇), 범양사출판부, 1990, 205쪽.

3) 尹大遠, 「大韓民國臨時政府의 組織運營과 獨立方略의 分화(1919-1930)」,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9, 41쪽.

나타난 여러 정부를 하나로 통합했다는 의미에서 또한 그러하다. 실체를 갖고 조직된 세 개의 정부조직체를 하나로 묶어 통합정부를 구성했다는 사실 자체가 ‘정부로서의 정통성을 가진다는 말이다. 즉 근대민주국가 수립을 염원한 민족적 과제를 구현하고자 세워진 세 개의 정부조직체를 하나로 묶어 출범했다는 역사적 의미를 평가하여 ‘정통성’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말하는 ‘정통성’이 해방 후 분단 상황에서 남북한이 서로 배타적으로 주장해 온 정치적 높음으로서의 ‘정통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⁴⁾

임시정부는 수립기에 정통성을 확보하고 국내외 국민들로부터 각별한 기대와 시선을 한 몸에 받았다. 그렇지만 임시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과 주장도 만만하지 않았다. 특히 북경에 자리잡은 신채호 중심의 세력은 이승만이 미국에 제출했던 위임청원안에 대해 격렬하게 비판하였다.⁵⁾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있는 임시정부를 비난하는 잡지를 발행하였고, 1920년 12월부터 6개월 동안 이승만이 상해에 체류하던 시기에는 극단적인 공격을 퍼부었다. 이렇게 임시정부에 대한 반대세력이 강하게 목소리를 높이기는 했지만, 대체적으로 수립기에는 관내

4) 사실 그 동안 남북한은 정통성 높음을 지루하게 벌여 왔다. 남한에서는 정통성이 의심스러운 정권이 성립하면 앞다투어 임시정부를 내세워 자신의 정통성을 끌어내려 했고, 그와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는 단군릉을 들고 나와 맞장구치는 일이 벌어졌다. 학계 일부가 이런 분위기에 건강부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정통성 논쟁은 사실상 냉전체제가 빚어낸 산물의 하나였다. 그런데 임시정부가 수립에서 정통성을 확보했다고 해서 해방 이후 한국현대사에서 북한을 배제시킨 채 정통성을 갖는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임시정부가 확보한 그 정통성은 역사 전개과정에서 다시 분화되고, 해방 이후 남북한과 해외 동포들의 역사 속에 다시 용해되어 나갔기 때문이다. 민족의 양심과 같은 길을 걷는 경우는 어느 것이나 민족운동사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때 민족사적 총량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 통일을 내다보면서 민족사를 거시적으로 이해하는 시각이 필요한 것 같다.

5) 위임통치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략) 천오백만의 자유를 사랑하는 한국인의 이름으로 저희들은 동봉한 청원서를 각 하께서 평화회의에 제출하여 주시옵고 평화회의에 모인 연합군측이 한국의 장래의 완전한 독립을 보장하는 조건하에 한국을 국제연맹의 위임통치하에 두고(밑줄: 필자) 현 일본의 통치하에서 해방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자유원망을 평화회의의 탁상에서 지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하는 바입니다.(후략)”(방선주, 『李承晩과 委任統治論』, 『在美韓人の 獨立運動』,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89, 219쪽)

지역에서 임시정부 위상이 높았음을 인정되어야 한다.

2) 국민대표회의와 유일당운동

1920년을 지나면서 임시정부는 수립기에 가졌던 탄력성을 잃게 되었다. 국내로부터 들어오던 지원이 교통국과 연통부의 파괴로 차단되고, 주력을 기울이던 외교활동도 Versailles체제 성립으로 인해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이었다. 여기에 미주동포의 자금지원마저도 이승만에 의해 차단되었으니, 임시정부가 당면한 고통은 컸다. 더구나 이 난국 타개를 위해 상해에 도착한 이승만 대통령이 목적 달성에 실패하고 떠나버리자, 임시정부는 더욱 쇠락해졌다.

임시정부의 활동을 지켜보던 독립운동 세력들은 난국 타개를 위해 대표자 회의를 갖고자 하였다. 친임시정부 세력이든 반임시정부 세력이든 가릴 것 없이 모두가 회의 개최를 들고나섰다. 특히 이승만이 상해에 체류 중이던 1920년 12월부터 그 요구는 확대되었다. 북경의 반임시정부 세력은 북경군사통일회의를 열고 위임청원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승만을 공격하면서, 아울러 임시정부 해체를 요구하고 나서기까지 하였다.⁶⁾ 더욱이 임시정부에 지원된 레닌 자금을 이동회의의 고려공산당이 독식하는 문제가 부각되어 이동회가 상해를 떠나면서 형식면에서 좌우합작을 이루던 임시정부는 더욱 약화되어 갔다.

이 사태 해결을 위해 1923년 1월부터 5개월 동안 130명 정도의 정식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국민대표회의가 상해에서 개최되었다.⁷⁾ 레닌의 자금 일부로 운영된 이 회의가 개조파와 창조파로 나뉘어 6월 초 결렬되었다. 임시정부는 국민대표회의를 수용하고 여기에 맞추어 개헌작업까지 마쳤지만, 회의가 결렬되고 창조파가 임시정부를 부정하고 새로운 정부 수립을 표방하자 이에 해산령을 내렸다.

국민대표회의 해산 이후 맥빠진 관내지역 독립운동계는 다시 통합을 도모하기 시작하였다. 안창호가 앞장서 추진된 이 움직임은 비타협주의와 민족협동전선론이 바탕 되고 중국 국공합작의 영향으로 나타났으니, 곧 唯一黨運動이었다.

6) 金喜坤, 『中國關內 韓國獨立運動團體研究』, 지식산업사, 1995, 147쪽.

7) 김희곤, 「안창호의 중국 관내지역의 통일운동」, 《도산사상연구》 5, 1998, 161쪽.

좌우세력으로 분화되어 가는 독립운동계를 하나로 묶어 보려는 노력이었다. 1926년 10월에 북경에서 첫 수확을 거둔 이 운동은 관내지역 전체로 확산되었고, 1927년 9월에서 11월 사이에 한국독립당관내축성회연합회를 열기도 하였다. 8) 중국관내지역에서 펼쳐진 유일당운동은 국내의 신간회 결성과 맥락을 잇고, 또한 만주지역의 좌우합작운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임시정부는 여기에 발맞추어 1927년 3차 개헌을 단행하였다. 즉 “광복운동자가 대단결한 당이 완성될 때는 최고 권력은 그 당에 있는 것으로 한다”라고 천명하면서 좌우합작으로 이루어지는 ‘以黨治國 체제를 표방하고 나선 것이다.’ 9) 이러한 유일대당, 혹은 혁명정당 조직 움직임은 의열단에서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다. 주요인물들이 광주로 이동하여 黃埔軍官學校에서 군사간부로 성장하면서, 의열단의 방향을 혁명정당 체제로 가늠하였다. 그들은 1926년 겨울 광주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그들의 길이 “통일된 민족주의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결의하였다.

유일대당 조직에 대한 노력은 1928년을 들어서면서 담보상태에 빠졌다. 그리고 1929년 말에 가서는 일단 결렬되고 말았다. 여기에는 1927년 중국의 국공분열과 코민테른의 12월 테제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다. 그 결과 1929년 10월에 좌파세력이 독자적인 노선을 걷게 되면서 좌우합작 시도는 일단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국민대표회의와 유일당운동기에 임시정부는 사실상 독립운동에 매달리기에 한계를 보였다. 이승만대통령 탄핵문제, 정부조직 유지문제, 좌우합작 추진에 대한 대응 문제 등으로 스스로를 추스리는 것조차 힘든 상태였다. 그 약점을 보완한 것이 바로 외곽조직을 통한 활동으로 나타났다. 국민대표회의의 참가를 위한 각 지역과 단체 대표들이 상해에 모여들던 1922년 10월에 김구를 중심으로 韓國勞兵會가 조직되었다. 10년쯤 뒤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추정 아래 군사력과 전쟁비용을 마련하자는 것으로, 그 군사력이란 한 사람이 스스로 군사훈련을 통해 군인이 되고, 또한 스스로 노동자가 되어 생계를 유지하며 독립전쟁을 기

8) 朝鮮總督府 慶北警察部, 『高等警察要史』, 106쪽.

9) 위의 책, 93쪽.

다리는 것이었다. 즉 이것은 독립전쟁론과 준비론을 통합한 독립전쟁준비방략이라고 정리될 수 있겠다.¹⁰⁾ 그리고 이를 계승하여 1926년(병인년) 1월에 등장한 의열투쟁 조직이 丙寅義勇隊였다. 독립전쟁에 대한 준비가 목표대로 진행되지 못하자 의열투쟁을 통해 저항정신을 진작시키려는 데 목적을 둔 것인데, 마침 순종이 죽자 이 기회를 이용하여 국내로 요원을 파견하고 6·10만세운동에 관여하기도 했다.

다. 임시정부의 약화와 독립운동 세력의 분화

1) 독립운동정당의 성립

유일당운동이 1929년 10월에 일단 주저앉게 되자, 상해지역 좌파세력은 留滬韓國獨立運動者同盟(滬는 상해의 별칭)을 조직하였다. 이에 임시정부 중심의 우파세력은 1930년 1월 25일 韓國獨立黨을 결성하고 임시정부를 유지해 나갔다. 이제 정당조직에 의해 임시정부가 유지되는 새로운 형태가 나타난 것이다. 이후 관내지역 독립운동계는 다수의 정당조직이 조직되고 또 정착하게 되었으며, 독립운동의 전개와 더불어 이들의 이합집산도 진행되었다.

이 무렵 의열단도 정당조직체로 변모하고 있었다. 의열단 주력이 다시 상해로 돌아와 정당체제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남경에서 한국혁명당이 조직되었고, 1934년 李靑天의 만주 한국독립당이 옮겨와 이 당과 통합하였으니, 바로 신한독립당이다. 이처럼 독립운동세력들은 정당체제로 발전하였

10) 金喜坤, 『中國關內 韓國獨立運動團體研究』, 지식산업사, 1995, 212-213쪽. 준비론을 국내에서 개량주의자들이 말하던 실력양성론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해지는 것은 1910년대에 만주지역에 독립군기지를 건설하려고 추진하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1910년대의 독립군기지 건설도 독립전쟁을 준비하던 것이었다. 그 결과 봉오동·청산리 전투를 비롯한 전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그러나 베르사이유체제로 인하여 당분간 국제전이 일어나기 어렵다는 상황을 간파하고, 장차의 전쟁을 기다리며 군대 양성과 전쟁비용 마련을 도모하는 노력이 나타났다. 독립이 결국은 전쟁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한 전쟁은 10년 정도 지나 국제정세가 변할 때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이를 준비해 나가는 전략이 바로 독립전쟁준비방략이었다. 크게 보면 김창숙이 1925-6년에 독립군기지를 건설하려고 국내 유림들로부터 자금을 모은 '제2차 유림단의가'도 이러한 방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이들 정당 가운데 한국독립당은 임시정부 운영의 주체였고, 나머지는 그 성격에 따라 임시정부와 친소관계를 갖고 있었다.

한편 상해 중심으로 활약한 좌파세력은 코민테른의 ‘一國一黨’ 원칙에 따라 중국공산당 소속으로 활동하였다. 주로 상해시가지에서 중국공산당원들과 함께 반제반전시위를 벌였지만, 1930년대 전반기에 대다수 주역들이 체포됨에 따라 매우 미약해졌고, 임시정부와는 거의 관계를 갖지 않았다. 반면에 아나키스트들은 임시정부가 이끄는 한인애국단 활동과 성향을 같이 하면서 김구를 통해 연결되고 있었다.

한국독립당이 임시정부의 유일 정당으로 자리잡은 1930년, 임시정부 중심의 독립운동 방향은 의열투쟁이 핵심이었다. 한인애국단이 그 핵심이며, 李奉昌·尹奉吉 양대 의거가 대표적인 활약이었다. 일제의 만주침략에 대응한 이 의거는 임시정부와 관내지역 독립운동의 판도를 뒤흔들어 놓았다. 한편으로는 임시정부가 타전이던 상해를 벗어나 이동기에 접어들게 하였고, 김구의 피신과 이에 따른 한국독립당의 활동 제약으로 인해 임시정부 운영이 절대적 난관에 부딪치게 만들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만보산사건으로 빚어진 한국인들에 대한 중국인들의 악감정을 해소시키면서, 군사간부 양성을 이끌어내는 바탕이 되었다.

2) 독립운동 세력의 분화

1929년 말 이후 중단된 좌우합작은 1932년 11월 金奎植·崔東旼 등에 의해 對日戰線統一同盟 추진으로 다시 시작되었다. 1929년 10월 이후 중단되었던 합작운동이 다시 고개를 든 것이다. 이것은 국내의 광주학생운동과 ‘만주사변’ 및 한인애국단 의거라는 일련의 급변하는 정세 변화 속에서 진행되었다. 그 결실은 1935년 7월 5일에 金元鳳의 의열단, 趙素昂 중심의 한국독립당 탈퇴 세력, 李靑天의 신한독립당, 최동오의 조선혁명당, 김규식의 대한독립당 등이 합친 조선 민족혁명당(이하 민족혁명당) 결성으로 나타났다. 이 당은 중국군사위원회와 黃埔同學會 등의 지원 아래 일시적으로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였다. 여기에 집결한 인물은 ‘反臨政·非金九’ 세력의 결집을 표방하고 임시정부 해체를 요구하였으니,¹¹⁾ 임시정부가 한 순간에 사라질 형편이었다.

이처럼 좌우합작 대당체 건설이라는 명제에도 불구하고 민족혁명당은 결코 관내지역 독립운동세력을 모두 통합한 것은 아니었다. 임시정부를 고수하려는 김구 중심의 세력이 한 쪽에 단단히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임시정부 해체를 동의하면서 여기에 참여했던 조소앙 중심의 한국독립당 출신들이 창당 2개월 20일 만인 9월 25일에 민족혁명당을 탈퇴하고 나왔다.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임시정부의 생명을 붙들고 선 세력은 김구·宋秉祚·車利錫 등이 1935년 10월에 조직한 한국국민당이였다. 이들은 조소앙이 민족혁명당을 이탈하여 한국독립당을 재건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임시정부의 여당으로서 한국국민당을 조직하였던 것이다. 그러면서 한국국민당은 민족혁명당의 내부에서 벌어지는 김원봉과 이청천의 갈등을 지켜보았다. 당권경쟁과 이념 및 정책적 관점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으로 결국 1937년 4월에 이청천 세력은 민족혁명당을 탈퇴하여 조선혁명당을 조직하였다. 이 외에도 임시정부 주변에는 민족혁명당에 참여하지 않은 중간 및 좌파세력 중 金星淑·朴建雄 등이 1936년 남경에서 조직한 조선민족해방동맹, 남화한인청년연맹을 결성했던 柳子明·鄭華岩 등의 아나키스트들이 1937년에 조직한 조선혁명자연맹이 있었다. 비록 군소 조직이 있기는 했지만, 관내지역 독립운동계는 민족혁명당과 한국국민당이라는 양대 정당체제로 변모하고 있었다.¹²⁾

1937년 7월 7일에 일어난 중일전쟁은 또 다시 관내지역 독립운동계의 변화를 가져왔다. 김구는 민족혁명당에서 탈퇴한 한국독립당(재건)과 조선혁명당을 한국국민당과 하나로 묶는 연합체 구성에 착수하였다. 그것이 바로 1937년 8월에 만들어진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光復陣線]였다.¹³⁾ 이에 대해 김원봉은 민족혁명당을 중심으로 조선혁명자연맹과 조선민족해방동맹을 묶어 1938년 2월 하순 漢口에서 조선민족전선연맹[民族戰線]을 조직하였다.¹⁴⁾ 이로써 관내지역

11) 한상도, 「중국 관내지역 독립운동 단체의 활동」, 『한국독립운동사사건』(총론편) 하, 독립기념관, 1996, 461쪽.

12) 김희곤, 「임정 시련과 이동기 제 정당의 활동」,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민족독립운동사』7, 1990, 238-247쪽.

13) 선언서를 발표한 날짜가 1937년 8월 17일이였다(金正明, 『朝鮮獨立運動』 2, 東京: 原書房, 1967, 599쪽).

독립운동 세력은 양대 연합체제를 형성하였다.

양대 정당체제라든지 양대 연합체제는 이념과 강령 및 정책적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중국국민당정부의 지원 노선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 중국은 중국국민당 조직부장 陳果夫와 蕭鐸을 통해 김구를, 중국군사위원회 藤傑을 통해 김원봉을 각각 지원하였다.

蔣介石은 직접 나서서 이들 양대 세력을 하나로 묶어 보려 했다. 그는 1938년 11월에 김구를, 다음해 1월에 김원봉을 초대하여 양 세력의 결합을 중용하고 나섰다. 그 결과 두 사람은 1939년 5월 10일에 「동지·동포 제군에게 보내는 공개통신」을 발표하여 “진 민족적 역량을 집중한 통일조직의 건설이 요구되며, 통일조직은 진 민족의 의견과 요구에 의한 혁명적 강령에 기초하여야 한다”라고 천명하였다.¹⁵⁾

두 사람의 공동선언은 한인세력의 단결과 통합을 촉진시켰다. 그 결과 같은 해인 1939년 8월 중경 바로 아래에 있는 四川省 綦江에서 양대 연합전선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회의가 열렸다. 한국국민당·한국독립당(재건)·조선혁명당 등 광복전선 소속 3당과 민족혁명당·조선혁명자연맹·조선민족해방동맹·조선청년전위동맹 등 민족전선 소속 4당으로 개최된 7당 통일회의가 그것이다.¹⁶⁾ 그러나 조직방법에서 이견을 보인 조선민족해방동맹과 조선청년전위동맹은 이탈하였고, 다시 나머지 5당의 통일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이것마저도 민족혁명당과 조선혁명자연맹의 이탈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말았다.

그렇다고 독립운동 정당들이 분화되고 이합집산하는 것만으로 세월을 보낸 것은 아니었다. 군사간부 양성을 위해 蔣介石 정부와 협의하여 중국군관학교에 한인청년 군사간부 양성을 위한 과정을 만들거나 의열단에 의해 조선군사정치간부학교가 세워지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다수의 한인청년들이 군사간부로 육성되고, 국내외로 밀파되기도 하였다.

1937년 7월에 발발한 중일전쟁은 蔣介石 정부의 중경 천도만이 아니라 한국

14) 內務省警保局, 『社會運動の狀況』 9, 東京: 三一書房, 1972, 1166쪽.

15) 白凡金九先生全集編纂委員會, 『白凡金九全集』 6, 1999, 25-40쪽.

16)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國民政府與韓國獨立運動史料』, 臺北: 1989, 20-21쪽.

독립운동 세력의 이동까지 강요하였다. 무한으로 이동한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세력들은 전시에 맞는 체제를 갖추어 나갔다. 민족혁명당은 남경시대에 양성한 군사간부로 무한 합락 직전인 1938년 10월 朝鮮義勇隊를 조직하였고, 바로 전선에 투입시켜 敵後工作를 펼치기 시작하였다. 이 무렵 김원봉의 노선에 반대한 崔昌益·許貞淑 등이 민족혁명당을 떠나 중국공산당의 본거지인 연안으로 이동하였고, 장차 조선독립동맹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한편 武漢이 함락되자, 임시정부는 長沙·廣州를 거쳐 기강으로 이동하였다. 그 과정에서 광복진선은 韓國光復陣線靑年工作隊를 조직하였고, 이후 임시정부는 軍事特派團을 조직하여 장차 한국광복군 창설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라. 임시정부의 강화와 좌익진영의 합류

1) 중경 정착과 체제정비

관내지역 독립운동 세력이 중국의 임시수도인 중경에 도착하기 시작한 시기는 1939년이였다. 먼저 김원봉 계열이 도착하였고, 이어서 임시정부 요인들이 도착하였다. 7당, 5당 통일회의가 실패한 뒤, 광복진선 3개 정당이 통합 논의를 계속하였다. 그 결과 1940년 5월 8일에 하나로 통합하여 한국독립당(중경)을 결성하였다. 그들은 “3·1운동의 정맥을 계승한 민족운동의 중심적 대표당”임을 천명하였다.¹⁷⁾ 비록 우파진영만의 통합이기는 하지만 이로써 광복진선 결성 이후 줄곧 추진해 왔던 우파진영 3당 통합이 이루어졌다.

한국독립당 결성 후 임시정부는 세계대전의 종결을 내다보면서 건국구상에 들어갔다. 그 결과 1941년 11월 28일에 「대한민국 건국강령」으로 정리되었다. 그 내용은 한국독립당이 1941년 5월에 제1차 전당대회에서 근대민족국가 수립 단계로 정했던 북국운동·북국·건국·치국의 4단계 노선을 한 걸음 더 발전시킨 것이었다.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통합한 한국독립당은 이어서 군대 창설을 준비하였다. 그러다가 창군의 주체가 한국독립당에서 임시정부로 바뀌었다. 그것은 광복군의

17) 三均學會, 『素昂先生文集』 상, 264쪽.

성격이 黨軍에서 國軍으로 바뀐 것을 의미한다. 그래야만 민족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고, 민족역량을 여기로 결집하기 쉬울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¹⁸⁾ 그러나 광복군 창설에는 민족전선과 조선의용대의 방해공작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기도 했다. 김원봉 세력이 조선의용대의 존재를 내세우면서 임시정부의 군대 창설에 반대활동을 벌였기 때문이다.¹⁹⁾ 그렇지만 임시정부는 기어이 군대 창설 계획을 밀고 나갔다.

1940년 9월 15일 김구는 「한국광복군선언문」을 발표하였다. 그는 여기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원년(1919)에 정부가 공포한 군사조직법에 의거하여 중화민국 총통 蔣介石 원수의 특별 허락으로 중화민국 영토 내에서 광복군을 조직하고, 대한민국 22년(1940) 9월 17일 한국광복군총사령부를 창립함을 자에 선언한다”고 밝혔다.²⁰⁾ 이를 뒤인 9월 17일 한국광복군이 창설되었다. 이로써 우파진영은 黨(한국독립당)·政(임시정부)·軍(한국광복군) 체제를 정립하였다. 이러한 바탕 위에 1941년 12월 8일(미국 날짜) 하와이 진주만에 대한 일본의 공습 소식을 듣자마자, 임시정부는 다음 날(중경 날짜 12월 10일) 「大韓民國臨時政府 對日宣戰 聲明書」를 발표하였다.²¹⁾

2) 좌익세력의 합류와 통합정부의 위상 확립

민족좌파의 대표자인 민족혁명당이 임시정부에 합류하였다. 여기에는 蔣介石 정부의 요구와 조선의용대의 분열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중경시대에 들어 장개석은 한국독립운동의 구심점으로 임시정부를 지목하고 군대도 광복군을 중심으로 통합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조선의용대의 華北 북상은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

18) 韓詩俊, 『韓國光復軍研究』, 一潮閣, 1993, 88쪽.

19) 광복군 창설에 반대하던 조선의용대는 광복군 창설 나흘 전에 발간된 기관지에서 “두 집단의 출현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조선의용대가 각 당파를 망라하여 관내 혁명자 통일·단결시킬 대오임을 강조하였다(如松, 「論朝鮮義勇隊在革命運動中的地位」, 《朝鮮義勇隊》 37기, 1940. 9. 13, 『海外的 韓國獨立運動史料』 VIII, 國家報勳處, 444-448쪽).

20) 獨立運動史編纂委員會, 『獨立運動史』 6, 177-178쪽.

21) 白凡金九先生全集編纂委員會, 앞의 책 6, 102-103쪽.

조선의용대는 이미 1938년 출범 무렵부터 분열의 조짐을 안고 있었다. 우선 최창익이 김원봉의 지도노선에 반발하면서 연안으로 갔고, 1939년에 중국국민당의 반공노선 강화와 중국공산당 소조의 활동이 개시되면서 北上抗日 노선이 설득력을 얻어 가고 있었다. 특히 조선의용대가 목표했던 朝鮮革命軍 건설이 중국국민당에 의해 봉쇄되어 있는 점은 대단한 불만거리였다.²²⁾

조선의용대는 성립 직후부터 당면목표를 조선혁명군 창설에 두고 있었다.²³⁾ 독자적인 무장부대를 조직하여 일본군과 싸우려는 것이요, 만주의 김일성이 거느리는 동북항일연군을 모델로 삼았다.²⁴⁾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전선을 따라 한인들이 많이 이동해 와 살고 있던 화북지역으로 이동해야 했다. 그 결과 1940년 말부터 이듬해 여름 사이에 조선의용대 병력 3분의 2가량이 중국국민당 정부 몰래 黃河를 건너 북상해 버렸다. 그리고는 끝내 延安으로 들어가 조선독립동맹을 결성하고 조선의용군을 조직하였다. 이에 대한 蔣介石 정부의 불만과 질책이 상당히 컸고, 광복군으로의 통합이 요구되었다.

민족혁명당의 임시정부 참여에 대한 태도 변화는 1941년부터 나타났다. 임시정부가 통치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외국의 승인을 받지 못했으며, 합법적 선거를 통하지 않은 것이라는 점을 들어 不關主義를 고수해온 그들은 태도를 바꾸었다. 태평양전쟁 발발로 인한 국제정세의 급격한 변화와 독립운동의 세계혁명에 대한 기대가 점증하고 있는 점을 태도 변화의 이유로 내걸었다.²⁵⁾ 민족혁명당의 임시정부 참여는 1942년 10월 제34회 임시의정원회의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이에 임시정부는 의정원 의원 선거 규정을 개정하여 임시정부에 대한 참여의

22) 金喜坤, 「조선의용대의 독립운동전략」, 『한국근현대사연구』11, 1999, 28쪽.

23) 조선의용대는 결성 직후부터 계속하여 '조선혁명군' 조직을 추구하고였고, 그러한 주장이 그들의 기관지 《朝鮮義勇隊》에 지속적으로 게재되었다(韓志成, 「目前環境與朝鮮義勇隊今後工作方向」, 《朝鮮義勇隊》 34기, 앞의 책, 1993, 376쪽; 樸孝三, 「爲建立朝鮮革命軍而鬪爭」, 35기, 앞의 책, 393쪽).

24) 馬義, 「朝鮮人在中國」, 《朝鮮義勇隊》 38기, 앞의 책, 465쪽; 韋明, 「英勇戰鬥中的東北朝鮮革命軍」, 《朝鮮義勇隊》 39기, 앞의 책, 485-486쪽.

25) 한상도, 「중국 관내지역 독립운동 단체의 활동」, 『한국독립운동사사전』(총론편) 하, 475-476쪽.

길을 터놓았다. 그 결과 민족혁명당·조선혁명자연맹·조선민족해방동맹·한국독립당통일동지회 출신 인물들이 국무위원과 의정원 의원으로 선임되었다. 좌우 통합정부가 된 임시정부는 비록 군소 정당이 있기는 하지만, 크게 보아 한국독립당[여당]과 민족혁명당[야당]이라는 양대 정당에 의해 운영되었다. 1930년대 중반의 양대 정당체제는 한쪽만이 임시정부를 지키고 다른 한쪽은 이를 부인하던 것이었다면, 1940년대의 양대 정당체제는 모두 임시정부에 참여하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1945년 2월에 들어 이 양대 정당체제에 불만을 가진 柳東說·崔東昨·洪鎭 등에 의해 신한민주당이 결성되었지만, 결코 두 정당에 비길 만한 위치에 서지는 못했다.²⁶⁾

통합정부의 달성은 물론 외부적인 압력이 작용한 데 큰 요인이 있지만, 독립운동세력 사이의 강령이나 정책에서 상당히 접근되어 있었다는 점도 중요한 요인이었다. 한국독립당은 黨策에서 보통선거 실시, 국민기본권 보장, 지방자치제 실시, 토지국유화 및 분급제 실시, 대규모 생산기관의 국유화 및 중소기업의 사유화 보장, 징집제 실시와 국방군 편성, 남녀평등, 매국적 및 독립운동 방해자 처벌과 재산몰수 등을 밝혔다. 즉 한국독립당의 당책이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골간으로 하는 토대 위에서 사회주의 경제정책을 수용한 자주독립국을 지향한 것으로서, 민족혁명당의 그것과 충돌할 만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²⁷⁾

정부 통합과 함께 군사통합도 이루어졌다. 이미 1941년 1월에 무정부주의 청년들이 핵심을 이룬 韓國靑年戰地工作隊를 광복군 제5지대로 흡수했던 임시정부는 1942년 4월 20일 제28차 국무회의에서 조선의용대와 광복군의 통합을 결의하였다.²⁸⁾ 이어서 중국국민당정부 군사위원회는 5월 15일 조선의용대의 광복군 합류를 명령했고, 김원봉을 부사령에 임명하였다.²⁹⁾ 이에 따라 조선의용대는 7월에 해체되고 광복군 제1지대로 새롭게 편제되었으니, 사실상 흡수 통합이었다. 이로써 연안의 조선의용군을 제외한 관내지역의 모든 군사조직이 임시정

26) 秋憲樹, 『資料 韓國獨立運動』2, 연세대출판부, 1972, 189쪽.

27) 秋憲樹, 『資料 韓國獨立運動』2, 延世大出版部, 1975, 172-173쪽.

28) 秋憲樹, 『資料 韓國獨立運動』3, 연세대출판부, 112쪽.

29) 國史編纂委員會, 『韓國獨立運動史』資料 3, 296쪽.

부리는 하나의 통수권 아래 통합되었고, 다음 목표를 자율권 획득으로 잡고 노력하게 되었다.

임시정부는 좌우합작 정부를 구성하고서 자신감을 갖고 蔣介石 정부를 통해 외교활동을 폈다. 그리고 미국과의 외교를 위해 駐美外交委員會를 설치하였다. 그러한 결과 카이로선언에서 한국의 독립을 보장하는 내용을 확보하였다. 또 연합군의 일원이 되어야만 독립에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연합군과의 군사합작을 도모하였다. 미국 OSS부대의 훈련을 통해 國內挺進軍을 편성한 것은 그 성과의 하나였다.

중국국민당 주변의 독립운동 세력을 하나로 묶은 임시정부는 중국공산당의 본부 延安에 자리잡은 조선독립동맹과도 연계를 추진하였다. 국공합작으로 周恩來를 비롯한 중국공산당 주요인물들이 중경에 포진해 있었고, 또 그들이 임시정부 행사에 참여하는 등 관심을 기울이기도 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연안의 조선독립동맹도 임시정부를 타협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고, 임시정부도 이들에 대해 같은 시선을 주고 있었다. 金學武가 김구와 金料奉의 서신 연락을 맡았던 사실,³⁰⁾ 延安의 행사에 임시정부 주석 김구를 명예주석단에 추대하거나 孫文·蔣介石·毛澤東과 함께 김구의 초상화를 대회장에 내걸었던 점,³¹⁾ 임시정부가 《獨立新聞》에서 조선의용군을 소개한 점,³²⁾ 임시정부에서 국무위원 張建相을 延安으로 파견한 사실³³⁾ 등은 두 세력 사이의 연합 노력을 보여주는 주요한 증거들이다. 미처 결실을 맺기에 앞서 전쟁이 끝나버렸지만, 이 노력은 중국국민당정부의 관할 구역을 벗어나 관내지역 전체 독립운동 세력의 통합을 꾀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마. 맺음말

임시정부는 3·1정신을 계승하여 수립이 선포된 여러 민주공화정부 조직

30) 韓洪九, 「華北朝鮮獨立同盟의 조직과 활동」, 서울대학교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67쪽.

31) 韓洪九, 앞의 글, 67쪽.

32)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獨立運動史』 8, 1975, 198-199쪽.

33) 韓詩俊, 「1940년대 전반기의 민족통일전선운동」,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좌우합작운동』, 한울, 1995, 169쪽.

체를 통합함으로써 역사적 정통성을 확보하였다. 수립 직후 임시정부는 대체로 독립운동의 중심이요, 정점의 구실을 해냈다. 주변에 지원단체들이 조직되었고, 그 활동도 왕성하였다. 그러다가 1920년을 넘어서면서 인적·물적 지원이 단절되고 이념적인 분화가 일어나 임시정부는 급격하게 쇠약해졌다.

1920년대 전반기에 정부 준립 자체에 대한 도전을 받기도 했지만, 임시정부는 이를 극복해 가면서 정부조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국민대표회의에서 창조파가 임시정부의 해체와 새로운 정부수립안을 들고 나왔지만, 개조파가 단단히 버티고 서 있었기 때문에 정부 운영이 가능했다. 이후 유일당 운동에서도 이것이 달성되면 당을 중심으로 정부를 운영한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대처하였고, 비록 위축된 모습이나마 외곽조직을 통해 의열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유일당 운동이 좌절된 뒤에 좌파세력이 한 걸음 뒤로 물러나자, 임시정부는 우파세력의 한국독립당에 의해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동기에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였다. 대일전선통일동맹으로 이어진 좌우합작 운동이 민족혁명당 창당으로 결론지어졌고, 이 단계에서 임시정부 해체가 요구되었다. 그 가운데에는 그 동안 임시정부를 구성하였던 주요 인물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이 당시 임시정부를 지키고 있던 인물은 김구 중심의 한국국민당이라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였고, 사실 관내지역 독립운동 세력의 대다수가 임시정부를 외면하거나 반대하는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임시정부는 일시적으로 바람 앞의 등불 같은 절대 위기를 맞았다. 이 난국은 임시정부의 여당으로 한국국민당이 다시 조직되고 이를 중심으로 우파정당이 가세하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해결되어 나갔고, 정부로서의 위상도 조금씩 회복되었다.

그러다가 중경시기에 가서 임시정부는 대단한 활력을 가지게 되었다. 좌우를 가릴 것 없이 모두가 여당과 야당의 자격으로 임시정부로 합류하였기 때문이다. 우선 우파정당의 통합 위에 정부조직을 새롭게 강화하고, 건국강령을 마련하여 복국과 건국을 예비하게 되었다. 또 광복군을 창설한 뒤 對日宣戰을 포고하였으며, 다시 임시정부에 좌파정당을 포용하면서 그 군사조직인 조선의용대마저도 광복군에 합류시키는 데 성공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중경시기의 임시정부는 관내지역 독립운동에서 그 중심에 우뚝 서게 되었고, 그 바탕 위에 중국·미국

등과 외교와 군사 합작도 이끌어 갈 수 있었다. 끝으로 연안의 조선독립동맹과 연합을 추진했던 일은 비록 결실을 맺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관내지역 독립운동 세력의 대통합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민족통일을 염원하는 우리들에게 귀중한 교훈이 되고 있는 것이다.

3. 상하이 윤봉길기념관(上海尹奉吉記念館)



중국 상하이[上海] 루쉰[魯迅]공원에 있는 윤봉길 의사 기념관.

매헌(梅軒) 윤봉길 의사가 1932년 일본군 요인을 폭살한 홍커우공원의의거[虹口公園義舉]를 기념해 상하이시 홍커우구 인민정부와 윤봉길 의사 기념사업회가 공동으로 건립하였다. 기존에 세워진 윤봉길 의사 기념 정자인 매정(梅亭)을 한 차원 승격시켜 2003년 12월 4일 개관하였다.

공식 명칭은 '윤봉길 의사 생애 사적 전시관'이다. 지상 2층 건물로, 1층에는 출생에서부터 농민부흥운동, 홍커우 공원 의거 때까지의 사적을 보여주는 유품 6점과 사진이 전시되어 있다. 2층에는 의거 이후의 사적, 의거의 역사적 의의와 한국·중국에 미친 영향,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활동 등에 관한 자료가 전시되어 있다.

그밖에 의거 때 사용했던 폭탄과 같은 도시락 폭탄, 수류탄과 혈서를 들고 한인애국단에 입단할 당시의 사진, 친필 편지, 장렬한 죽음 장면, 새로 만든 흉상 등도 볼 수 있다. 상하이 루쉰공원[魯迅公園:옛 홍커우 공원]에 있다.

4. 예원(豫園)



예원(豫園)은 상하이 구시가지 푸시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명청시대의 양식을 가지고 있는 정원이다. 중국 정원 중에서도 가장 섬세하고 아름답다고 평가받고 있다.

예원은 반윤단(潘允端)에 의해 명나라 가정(嘉靖) 연간 1559년 개인 정원으로 만들기 시작하여, 1577년에 완공되었는데, 거의 20년이 걸렸다고 한다. 예원은 명조의 관리였던, 그의 아버지 '반은(潘恩)'을 기쁘게 하기 위해 만들기 시작했는데, 완공이 되었을 때, 그의 부모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고 그 자신도 몇 년 살지도 못하고 병으로 죽었다.

건립 후 상인이 매입을 하여 1760년까지 방치되어 있다가, 1842년 아편전쟁이 일어나자, 영국군이 이곳을 5일간 점령했다고 한다. 태평천국의 반란동안 황군에 점령되었다가 다시 1942년 일본군에 의해 심하게 손상을 입었다. 그러다가 1956-61년에 상하이 시 정부에 의해 보수되었고, 1961년에 일반에 개방되었다. 1982년에 국가 단위의 문화재로 공표되었다.

오늘날 예원은 2만평방 미터의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수저우 정원 스타일의 6개의 구역으로 나뉘며, 주요 건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삼수당(三穗堂); 1760년 완공
점춘당(點春堂); 문인들이 강론을 주고받았던 곳이다.

대가산(大假山); 원난에서 2만 2천여 톤의 무강석을 가져와 12m 높이로 쌓아 올린 인공산이다.

- 득월루(得月樓);
- 옥영룡(玉玲瓏)
- 청도각(聽壽閣)

- 내원(內園)
- 지당(池塘)



이 중 예원을 대표할 만한 것은 후신탱(湖心亭, 호심정)으로 이곳을 연결하는 구곡교(九曲橋)와 함께 가장 인상적이다. 이 후신탱은 상하이를 찾는 세계 각국의 유명인사들이 방문을 하여, 사인을 남겨놓은 곳으로도 유명하다.

예원 주위에는 후신탱 앞으로 성황묘와 상하이 라오(상하이 옛거리)제는 옛 상하이의 정취를 맛 볼 수 있는 몇 안되는 장소 중의 하나이며, 청나라 때의 건물이면서, 쇼핑가로 이름난 예원상청도 유명한 볼거리 중의 하나이다.

5. 상하이 박물관



상하이 박물관(上海博物館)은 중국 상하이에 인민광장 근처에 있는 상하이의 대표적인 박물관이다.

상하이의 박물관은 이 밖에 상하이 자연사 박물관, 상하이 곤충 박물관, 상하이 과학 기술 박물관, 일대회지 박물관 등이 있지만, 단지 박물관이라면 현지에서는 상하이 박물관을 말한다.

1952년에 구 조계지의 경마장 유적지에 상하이 시립박물관이 건설되었다. 그 후 몇 번의 이전이 반복됐지만, 최종적으로 1993년 인민광장에 이전이 결정되고, 총면적 39,600 평방미터의 신관이 1996년에 완성되어 같은 해 10월 12일에 이전되어 일반에 공개되어 현재 11개의 전시장이 개설되어 120,000점이 상설 전시되고 있다.

건물 외관은 주나라 초기의 청동그릇박물관의 외관은 최상부에 원반을 얹어 놓은 것처럼 생겼으며, 아랫부분은 술을 받치고 있는 형상을 모방하고 있다. 언뜻 보기에 손잡이와 같은 반원형의 구조물이 최상부에 호를, 아래에 동서남북에 활시위를 당기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외관은 고대로부터의 중국의 세계관, 우주관을 가리키고 있으면서, 삼발이에 대표된 청동기 컬렉션을 가리키고 있다.

상해 박물관의 소장품 중, 이목을 모으는 것은 청동그릇이다. 박물관의 외관이 원래 청동기를 본떠 만든 것으로, 이곳의 청동그릇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컬렉션이다. 물론 서화, 자기, 도기, 인세, 가구 등의 소장품도 많지만, 청동기 컬렉션에 비견되는 것은 없다. 또 대부분의 서화, 인세(도장) 등은 전부 명청대 이전의 컬렉션이고, 근현대의 것은 대부분(거의) 소장되고 있지 않다.

6. 루쉰공원(魯迅公園)

중국 상하이[上海] 홍커우취[虹口區]에 있는 공원이다.

루쉰 공원은 이전에는 홍커우 공원이라고 불렸고, 청조 1896년에 상하이 공동조계 관청이 있었고, 조계의 밖에 있던 농지를 취득하여 조성되었다. 당초에 공원은 홍커우 오락장이라고 불렸고, 영국 원예가에 의해 설계되었기 때문에, 서양식 정원 양식을 가지고 있다. 원래는 도박장이 설치되어 있었다. 1922년에 홍커우 공원이라고 개칭되었다.

홍커우 공원은 1932년 상하이 히로히토 천황 탄신일(천장절) 기념 행사 때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던져 일본제국의 주요 요인들을 암살한 홍커우 의거사건으로 유명하다. 1937년 중일 전쟁으로 상하이를 침략한 일본군에 의해 공원 내의 건물들은 파괴되었으며 1942년에는 일본군의 군사용지로 사용되었다.

일본이 패망하고 철수한 1945년에는 장제스에 의해 중정 공원이라고 개칭되었지만, 1950년 다시 옛 이름을 되찾아 홍커우 공원이라고 불렸다.

1927년 루쉰이 광저우에서 상하이로 옮겨와 생활하고 있었던 곳은 홍구공원 방의 대륙신촌이라는 곳이었고, 그는 생전에 이곳을 즐겨 산책하였다. 그로 인



노신 묘

해 1956년 다른 곳에 매장되었던 루쉰의 관이 이곳에 이장되었다. 그리하여 공원 내에는 루쉰 기념관이 만들어졌다. 만들어진 때부터 오랜 기간이 흘러 이제는 영국식 정원의 흔적이 약간만 남아있고, 중국 정원풍의 색채가 강해져 있다.

※ 현대 중국을 이끈 지성인 '루쉰'



▲ 상하이 루쉰공위엔 안에 있는 루쉰동상. 바로 뒤가 루쉰의 묘다.

중국 공산당이 당장에서 ‘공산당 선언’을 빼고, 자본가의 입당을 허용한 2002년 겨울의 초입 루쉰의 고향 샤오싱(紹興)에서는 루쉰의 상표논쟁이 있었다. 이곳에서 새롭게 설립된 샤오싱주 회사가 ‘루쉰’의 이름을 딴 술을 내놓는 것에 대한 주변의 반응이었다. 중국 근대 최고의 지성을 술 이름으로 만들어서야 되겠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장사를 위해서라면 물불 안가리는 만큼 일단은 루쉰의 입상(立像)까지 들어간 술이 시장에 나왔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상상하기 어려웠던 상전벽해(桑田碧海)의 일이지만 이미 뿔나무밭은 바다 속에 잠긴 것을 따로 논할 필요가 있을까.

국문학도였던 기자에게 루쉰은 그다지 인상적인 작가는 아니었다. ‘아큐정전’이나 ‘광인일기’ 등의 그의 저술이 쉽사리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



▲ 샤오싱이나 조우주왕 등 강남의 촌락은 물과 땅의 경계없이 만들어져 독특한
^{느낌을 준다}
 국에서 생활하면서 중국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관심을 가지면서 루쉰 만큼 부각
 되는 인물이 없었다. 그래서 루쉰의 고향 샤오싱에 가는 길도 그 만큼 가슴 떨
 리는 일이었다. 거기에 루쉰의 고향 샤오싱은 그 작은 도시에서 근대에만 엄청
 난 인물을 배출한 곳이니 그 흥분은 더할 수밖에 없다.

향저우에서 한 시간 반 거리에 있는 샤오싱으로 가는 길은 남방 특유의 호수
 도시의 풍경을 느낄 수 있다. 길가에는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호수인지 구분되
 지 않을 만큼 들과 호수가 교차되면서 펼쳐지고 있다. 그리고 뒤에 마이산홍(梅
 山紅)이라는 이쁜 이름의 커다란 호수를 끼고 샤오싱역에 내려 도시로 들어갈
 때, 어렵지 않게 물의 내음을 만끽할 수 있다. 하지만 물의 내음에 못지않은 것
 이 학문의 내음이다.

사실 20세기 중국 최고의 사상가이자 문인인 루쉰을 비롯해, 마오쩌둥도 그
 가 없으면 공산혁명을 못 이루었을 거라는 칭송을 받는 저우언라이, 베이징대학

의 총장을 지내며 현대 지성 양성에 절대적인 공헌을 한 차이위안페이, 여성 혁명가 추진(秋瑾)의 옛집과 옛 놀이터가 곁에서 얼마 크지도 않는 이 소도시에 붙어있다는 것이 그저 신기할 뿐이다.

루쉰의 흔적이 살아있는 샤오싱, 베이징 그리고 상하이

루쉰의 옛집과 그가 공부하던 산웨이슈우(三味書屋)는 셴형(咸亨) 주점, 창칭스(長慶寺), 투쿠스(土谷祠) 등 그의 소설에도 자주 등장하는 곳들과 붙어 있어 남다른 감흥을 준다. 그는 난징의 지양난수이스웨탕(江南水師學堂)으로 공부하러 가던 18살 때까지 이곳에서 공부했고, 1910년 서른의 나이로 이곳 중학교의 교감으로 부임한 후 다시 2년을 살다가 난징을 거쳐서 베이징으로 갔다.

그는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 시절과 일본에서 유학하다가 몸의 병이 아닌 마



▲ 산웨이슈우위안. 루쉰은 이곳에서 중국 전통 사상을 두루 섭렵할 수 있었다
음의 병을 고치기 위해 의학전문학교를 포기하고 들어와 잠시 생활한 그의 고

향이니 만큼 그의 사상과 낭만의 모태가 된 곳은 샤오싱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의 작품에서 등장하는 풍부한 고전과 지명도 대부분은 샤오싱에서 부여받았다.

루쉰은 31살인 1911년 10월 신해혁명으로 청나라가 멸망하고, 중화민국이 세워진 다음해 쑨원이 이끄는 남경 정부의 교육부 직원으로 들어가 난징을 거쳐서 1912년에는 베이징에 안착한다.

베이징 샤오싱 회관에서 진로를 잡지 못해 갈팡질팡하는 중국의 모습을 보면서 회심한다. 하지만 38살인 1918년 5월 진보잡지인 '신청년'에 '광인일기'를 연재함으로써 중국인이 가진 정신의 병을 치유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다. 한편으로는 베이징 대학, 베이징 사범대학에 출강하면서 교육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1921년 12월에는 '아Q정전'의 연재를 시작해 다음해 2월 마침으로써 20



▲ 쑨웨이슈위안 앞 풍경. 작은 배들은 이제 여행자를 위한 상품의 기능도 한다.

세기 중국 문학 사상 최대의 문 제작을 탄생시킨다.

베이징은 그가 중국인으로서 근대사상을 받아들이는데, 다양한 요소를 얻은 곳이다. 베이징 대학이나 사범대학 등에서 그는 그가 량치차오(梁槩超) 등의 사상을 수혈 받고, 귀모루(郭沫若) 등과 교류하면서 고민하고 그 상흔을 소설이나 시, 잡문으로 담아낸 곳이다. 그런 그의 흔적인 푸청먼(阜成門) 시얼티아오에 있는 옛집이나 같이 있는 루쉰 박물관, 또 그가 고향의 향수를 달래던 샤오싱후이관(紹興會館) 등에 남아있다.

베이징의 정치적 혼란과 혼돈

속에서 갈등하던 루쉰은 1926년(46세) 샤먼(廈門)대학에 교수로 취임하면서 베



▲ 베이징 시절 루쉰의 집. 이곳과 샤오싱회관을 오가며, 주된 창작시절을 보냈다.

이징을 떠난다. 하지만 다음해 샤먼을 떠나, 잠깐 광저우 중산대학을 거친 후 1927년 10월에는 상하이에 도착한다. 이곳에서 그는 창작보다는 사회주의문학 운동을 펼치고, 러시아 문학작품이나 서구문학이론을 편역 출판하는데 노력한다. 루쉰은 지병으로 사망한 1936년 10월 19일까지 상하이에 머문다. 때문에 상하이인들은 루쉰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있다. 때문에 홍코우공원을 루쉰 공원으로 개명하기도 했다.

홍코우공원은 윤봉길 의사가 1932년에 상하이사변의 전승기념 행사를 하는 일본군 장성들에게 폭탄을 던진 의거가 있었던 곳이다. 하지만 이곳은 일본인들과 적잖은 인연이 있는 곳이다. 루쉰은 젊은 날에 일본에서 공부한 적도, 그와 교류하던 지인들도 많아서 자연스럽게 일본 문화의 영향을 받았고, 그의 작품이 일본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때문에 루쉰공원에 건립된 루쉰박물관의 건설과정에도 일본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1927년 10월 광저우에서 상하이로 건너온 그는 나이산수디엔(內山書店)과 공원을 다녔고, 후에 그가 폐병으로 죽었을 때 처음에 그의 묘를 완귀(萬國) 공동



▲ 서재의 루쉰. 그가 창작활동을 하던 시기는 신해혁명, 5.4운동 등 격변의 시기였다. 묘지에 썼다가 루쉰공원으로 옮겼다.

마오쩌둥에 의해 위대한 사상가로 대우받아

그럼 현대 중국에서 루쉰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떨까. 현대 중국에서 루쉰의 위상은 마오쩌둥이 ‘신민주주의론’에서 “노신은 중국 문화 혁명의 주장(主將)이다. 그는 위대한 문학가일 뿐 아니라 또한 위대한 사상가이자 위대한 혁명가이기도 하다. 문화전선에 있어서 노신은 전민족의 대다수를 대표하여 적을 향해 맹렬히 진격해간 정확하며 가장 용감하고 가장 굳세고 가장 충실하고 가장 열렬한 공전의 민족영웅이었다. 노신의 방향은 곧 중국 민족 신문화의 방향이다”(전형준 ‘현대 중국문학의 이해’에서 재인용) 라고 말한데서 거의 결정이 됐다. 실제로 마오쩌둥은 옌안(延安)시절에 루쉰의 책을 밤새도록 읽어서 ‘마오쩌둥의 성서’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다.

마오쩌둥의 절대적인 찬사는 사회주의 중국에서 그의 텍스트가 가장 숭앙받는 존재가 됐다. 때문에 그는 문화대혁명에도 크게 손질이 뺏히지 않았던 드문

사상가로 대우받았다. 실제로 그는 “소설가요, <문화편지론 文化偏至論>이나 <악마시역설 摩羅詩力說> 등을 발표한 문화 문학이론가요, 고전시 현대시 산문시 등을 쓴 시인이요, 어사사(語絲社)나 미명사(未明社) 망원사(莽原社) 등의 문학동인을 조직했던 문학운동가요, <미명총간> <오합총서> 등을 편찬 출간한 출판가요, 하문대학과 중산대학 등에서 강의한 교수요, 1930년 중국좌익작가연맹을 비롯 중국자유운동대동맹 중국민권보장동맹 등을 조직했던 민족운동 정치 운동가”(허세욱, ‘중국현대문학사’에서) 였다.

그는 때로 좌절했지만 중국인의 마음을 고치는 ‘정신의 의사’가 되기에 충분한 자질을 타고 났었다. 그는 산웨이슈위안 등 전통적인 교육방식에서부터 막눈이 뜨기 시작한 서구문화를 어려서부터 받아들일 수 있었다. 또 열세살인 1893년 관직에 있던 조부가 과거시험 부정사건에 연루되어 투옥되고 1894년 겨울에는 부친이 중병에 걸려 2년 가량 투병하다가 사망함으로써 샤오싱에서 내노라했던 그의 집안은 완전히 몰락해 그는 외가를 다니면서 가난한 농민들과 가난한 도시 지식인들의 삶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다. 거기에 일본 유학을 통해 서구의 과학은 물론이고 철학 등을 받아들였다는 점이다.

물론 그런 시점도 중요했지만 영웅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난세라는 요인도 그에게는 적절했다. 그가 성장한 시점은 청조가 서구 열강에 무너지고, 서구민주주의, 공산주의 등 수많은 사상이 앞 다투어 동양에 들어오는 한편 일본도 서서히 제국주의로서의 마각을 드러내는 시기였기 때문이다. 때문에 그가 표출해야한 문학적 사상적 자산은 너무나 풍부했다.

때문에 루쉰은 “스스로를 중국 사회 변혁기의 ‘중간물’이라 여기고는 짙은 갑문을 어깨로 떠받치듯 인습의 무게를 감내하면서, 스스로 ‘중국의 마지막 지식인’이 되길 희망했다.”(빙신(冰心) ‘중국문학사’ 중에서)

하지만 사상가임을 중심으로 부각된 자신 때문에 문인으로서 그는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 때문에 80년대 후반부터는 중국에서 문인으로 루쉰을 더 자세히 보자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기도 하다. “먼저 루쉰이 있는 그 자리로 돌아가자”라는 기치 아래 소설의 창작에 큰 영향을 주는 그의 내적 모순과 다양한 갈등을 분석하기 위한 작업도 중시하기 시작했다.

소설에서 전근대성 타파 희망 담아

그의 가장 대표적인 소통 수단인 소설은 그런 그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첫 작품 ‘광인일기’에서 그는 미친 이를 통해 중국역사 4천년의 표어인 ‘인의도덕’(仁義道德)이라는 글자가 결국인 ‘식인’(食人)이었다며, 인민을 압박하는 식민의 역사를 통렬하게 비판한다. 그는 “사천년 동안 늘 사람을 잡아 먹어온 곳, 나도 오랫동안 그 속에 섞여 살아왔다는 것을 오늘에야 깨달았다”고 말한다. 또 ‘콩이자’(孔乙己)에서는 몰락한 전통 지식인의 삶을 그리고 있다. 또 ‘약’에서는 처형된 혁명가의 피를 적신 만두를 사다가 폐병에 걸린 아들에 주는 우매한 민중의 모습을 담는다.



▲ 루쉰의 가족사진 1931년 상하이에서 찍은 사진이다.

1921년 12월 천바오(晨報)에 연재하기 시작한 그의 대표작 ‘아Q정전’에서 루쉰은 현실과 다르게 생각해서 자신을 위로하는 정신승리법을 가진 아Q의 삶을 통해 중국인들의 사상을 통렬히 비판하는 한편 “정신 승리법이라 명명된 농민 계급의 병든 의식 상태로부터 그 사회적 존재에 의해 본래적으로 주어진 혁명적 에네르기로의 전화 가능성을 포착”(전형준 ‘노신 소설과 5·4운동’ 중에서)한다. 그리고 이 소설은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러시아 등 서구에 까지 많은 영향을 준다. 또 그의 소설에는 전설에 나오는 여와, 후예(后?),



▲ 루쉰의 초상.

우왕(禹王) 등과 노자, 공자, 묵자 등이 소설의 소재로 등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아Q정전’ 이후 루쉰의 창작세계는 상당 부분 위축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56세인 1936년 상하이에서 지병인 폐병으로 숨을 거둔다.

샤오싱의 여름은 호수에서 뿔어내는 습기와 강남 특유의 무더위로 행자들을 지치게 하기 쉬웠다. 그런 피로를 풀기 위해 짐을 호텔에 던지고, 몰락한 지식인 쿵이 지나, 작가 자신의 자전적 성격이 강한 소설 ‘술집에서’의 주인공처럼 술집에 들러 샤오싱 주를 주문했다. 바이주와 달리 샤오싱 주는 그다지 술이 세지 않다. 우리의 막걸리 같은 술이다. 루쉰의 삶도 샤오싱주 같다. 마오쩌둥의 해석에 의해 그의 삶도 바이주처럼 독해진 경향이 있다. 하지만 지금쯤은 그를 따끈하게 데워서 회향콩이나 간(肝)을 안주로 삼아 마시는 샤오싱 주의 농도로만으로 해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오마이 뉴스 2002-11-28

7. 쑹칭링 능원(宋庆龄 陵园)



중국 상하이[上海] 창닝취[长宁区]에 있는 쑹칭링[宋庆龄]의 묘.

쑹칭링[宋庆龄]은 1981년 5월 29일에 백혈병으로 베이징[北京]서 사망했다. 생전 그녀의 유언에 따라 유골은 상하이만국공묘[上海万国公墓]에 있는 그녀의 부모님 묘지 동쪽에 안장되었는데 이곳이 바로 오늘날의 쑹칭링 무덤이다. 소나무와 측백나무가 있고 쑹칭링의 석고상이 있다. 그 뒤에 쑹칭링의 묘가 있다.

※ 송칭링(宋慶齡)

1) 송칭링의 일생

송칭링(宋慶齡: 1893~1981)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요 지도자 중의 한사람으로 중화인민공화국 명예 주석을 역임하였으며, 중국 근대 여성해방운동의 선구자이자 탁월한 정치가, 사회운동가이다.

송경령의 본관은 광둥성 문창(文昌, 지금은 海南省에 속함)이며, 자신은 1893년 1월 27일 상해의 기업가 집안이자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 최근에는 송경령과 그녀의 언니 송애령(宋靄齡), 장개석(蔣介石)의 아내인 동생 송미령(宋美齡)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 <<송가황조(宋家皇朝)>>가 우리나라에서 공연되어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기도 하였다.

손문(孫文)의 친구이자 혁명동지인 그녀의 아버지 송가수(宋嘉樹)는 그녀를 계몽시킨 첫 번째 스승이다. 송가수는 손문의 혁명을 추종하여 먼저 자기 가정의 모든 봉건주의 잔재를 없애고 세 딸을 민주, 평등, 선진적 생활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였다. 송애령과 송미령은 어릴 때 총명하고 대담하여 송가수는 그녀들이 5세가 되자 중서여숙(中西女塾)에 입학시켜 그곳에서 기숙하게 하였다.

송경령도 언니나 동생에 못지않게 총명하였지만 그녀들만큼 대담하고 발랄하지는 못하다고 생각하였는지 송경령은 7세 때 중서여숙에 입학시켰다. 송가수 부부는 송애령이 13세가 되었을 때 그녀를 혼자 미국에 유학 보냈다. 송애령은



중국 근대사상 최초로 미국에서 유학한 여성이 되었다.

1908년 송가수 부부는 송경령과 송미령을 함께 미국으로 유학 보냈다. 따라서 송경령은 15세 때 미국으로 유학가서 서구식 현대교육을 받으면서 민주주의의 세례를 받았던 것이다.

송경령은 성격이 침착하고 수줍음을 많이 타서 자매들 중에서 가장 조용한 편이었다. 또 독립심이 강하고 진보적이면서 이상적인 사상을 가졌으나 거만하지 않았다. 이후에 그녀는 자매들과 정치적이 입장이 달라서 자주 분란을 일으켰는데, 송애령과 송미령이 공동 보조를 취한 반면 송경령은 언제나 홀로 고군분투하였다.

1913년 송경령은 미국 조지아주 메이컨시 위슬리여자대학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가을에 일본으로 건너갔다. 1914년 손문의 비서를 역임하면서 그해 중화혁명당에 가입하였다.

1915년 10월 25일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일본 동경(東京)에서 손문과 결혼한 후, 손문을 따라서 원세개(袁世凱) 타도, 헌법 수호, 서남군벌 토벌 등 일련의 공화제 수호를 위한 정치투쟁에 참가하였다.

1922년 6월 군벌 진형명(陳炯明)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몸을 던져 손문을 위협에서 구해냄으로써 혁명사업에 대한 열정과 탁월한 헌신 정신을 발휘하였으며, 그후에는 1차 국공합작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

1925년 3월 12일 손문이 북경에서 서거한 후 그의 유지를 받들어 "러시아와의 연합", "공산당과의 연합", "노동자 농민에 대한 원조"라는 3대정책을 견지하면서, 손문의 사상과 혁명사업을 왜곡한 국민당 우파와 과감히 맞섰다. 1926년 1월 국민당 제2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중국공산당과 긴밀히 협조하여 중앙집행위원에 당선되었다. 장개석과 국민당이 "4.12 정변"을 일으켰을 때는 모택동(毛澤東), 임조함(林祖涵), 등인달(鄧寅達) 등과 연명으로 <장개석 토벌 전보(討蔣通電)>를 발표하였다.

"7.15" 왕정위(王精衛)의 반란 전야에 <손중산의 혁명 원칙과 정책 위반에 대한 항의 성명(爲抗議違反孫中山的革命原則和政策的聲明)>을 발표하고 국민당 우파와의 결별을 선언했다.

1927년 "8.1" 남창봉기 때에는 혁명위원회 7인 주석단의 한 사람으로 선출되었으며, 그후 비밀리에 소련을 거쳐 독일, 프랑스, 벨기에 등의 세계 사회주의 대국과 자본주의 대국을 순방하였다.

이때 그녀는 마르크스사상을 연구하면서 유럽으로 망명한 중국혁명가들과 함께 중국혁명의 핵심 문제인 토지와 농민 문제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자신의 사상을 비약적으로 성숙시켰다.

이 시기에 국제 반제국주의와 평화수호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한 이후, 1927년과 1929년에 국제 반제국주의 동맹대회에서 명예주석으로 선출, 세계 반파쇼위원회 주요 지도자 중의 한사람이 되었다.

1931년 중국으로 돌아가 국민당과 그 정부의 모든 직무를 거부하고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면서 항일구국운동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국민당 정부의 대일 타협과 대내 반공탄압 정책을 비판하였다.

1932년 말 노신(魯迅), 채원배(蔡元培) 등과 "중국민권보장동맹(中國民權保障同盟)"을 조직, 주석에 취임하여 국민당 우파에 대한 투쟁활동과 민주권리를 쟁취하는 혁명가들에 대한 원조 활동을 벌였다.

1933년 상해에서 개최된 극동 반전대회(反戰大會)에서 극동 반제반전동맹(遠東反帝反戰同盟) 중국분회 주석에 당선되었다. 이 시기에 일련의 성명과 정론을 발표하여 중국공산당과 신민주주의혁명 옹호를 선포하고, 전국민들에게 반일반제 민족혁명전쟁으로 진정한 중국인민정부를 건설하자고 호소하였다.

그후 애국인사들과 연합하여 <중국인민 대일작전 기본강령(中國人民對日作戰基本綱領)>을 발표하고, 중화민족 무장자위 위원회를 설립하여, 전국의 항일구국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다.

중국에서 항일전쟁이 시작된 후 1938년에는 홍콩에서 "보위중국동맹(保衛中國同盟)" 등의 단체를 조직하여 경애화교연합총회(瓊崖華僑聯合總會) 명예회장을 역임하면서, 항일투쟁에 필요한 의약품과 각종 물자를 지원하였다.

1945년 9월 항일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그녀는 미국인들에게 미국정부의 장개석 내전 지원 중지를 호소하였다. 또 보위중국동맹회를 "중국복리기금회"로 개편하여 여성과 아동의 복지사업에 종사하였다.

1948년 초에는 중국국민혁명위원회 명예주석을 역임하였다.

1949년 9월 21부터 30일까지 북경에서 개최된 전국정치협상회의에 참석하여 중앙인민정부 부주석,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기 전국위원회 상무위원에 당선되었다.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후에는 국가 부주석(1959년 4월 7일 당선, 1965년 1월 재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1954년 9월 당선, 1975년 1월 재선, 1978년 2월 삼선), 전국정협 부주석 등과 전국부녀연합회 명예주석, 중국인민보위아동 전국위원회 주석, 중국복지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1950년 정치협상회의 제1기 회의에서 발언하던 해에 세계평화이사회 이사에 당선되었다. 1951년 "국제평화 강화" 스탈린상을 수상하였다. 1952년 아시아 태평양지역 평화연락위원회 주석에 당선되었다.

1981년 5월 14일 송경령은 지병이던 관상 동맥경화증과 만성 임파성 백혈병이 악화되었다. 5월 15일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송경령을 중국공산당 정식당원으로 받아들였다.

1981년 5월 16일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는 그녀에게 중화인민공화국 명예주석 칭호를 수여하였다. 1981년 5월 29일 20시 18분 북경에서 세상을 떠났다. 저서로는 <<신중국을 위해 분투하자(爲新中國奮鬥)>>(1952), <<송경령선집(宋慶齡選集)>>(1966) 등이 있다.

2) 손문과의 동고동락

1916년 3월 송경령은 손문과 함께 일본에서 상해로 돌아왔다. 이때부터 10년 동안 손문은 혁명을 계속 하면서 여러 차례 상해에서 칩거하여 연구에 몰두하거나 광주(廣州)로 가서 정무를 주재하면서도 항상 송경령과 함께 있었다.

그들이 중국으로 돌아온 이후 손문은 광주에서 대원수를 역임하여 제1차 호법운동을 이끌었다. 그러나 군벌과 정객들의 배척으로 울분을 삼키며 대원수직을 사임해야만 하였다. 이때 손문은 상해에서 속수무책으로 출로를 찾지 못하고

절망의 늪에 빠져 있었다. 송경령은 손문을 정성을 다해 보살피면서 정신적으로 많은 격려와 위로를 하였다.

송경령은 손문이 독서를 좋아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수시로 중요한 서적과 잡지를 수집하여 그의 사상 정리를 위한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 1918년부터 1919년까지 손문은 두문불출하고 집필 작업에 들어갔다. 이 시기에 쓴 그의 저술은 모두 송경령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녀는 손문이 쓴 많은 서신들을 영어로 번역하면서 그의 비서직을 충실하게 수행했다. 그녀는 또 독어와 러시아어를 부지런히 배우면서 소련과 연락을 취할 준비를 하였다. 손문과 송경령은 레닌을 대단히 흠모하였다. 이 시기에 송경령은 여러 차례 손문을 도와 소련과 연락을 취하였다.

1918년 손문은 레닌과 전보를 주고 받기 시작하였다. 1922년 손문은 최초로 레닌과 직접적인 접촉을 하였다. 송경령은 "통신 왕래를 하면서 이 두 위대한 혁명전사는 인류의 자유와 진보적인 투쟁을 위해서 손을 잡았다."고 말하였다. 손문은 송경령과 함께 결합함으로써 그들이 떨어져 있을 때 생각할 수 없었던 사업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이다.

1920년 11월 25일 송경령은 손문과 함께 상해에서 광주로 돌아가 군사정부에서 활동을 재개했다.

1921년 4월 손문은 광주에서 비상회의를 개최하여 중화민국 정식정부를 수립하기로 결정하고, 5월 5일 임시 대총통에 취임하였다. 10월 24일 손문은 계림(桂林)으로 가서 북벌을 계획하였으며, 송경령은 "출정군인위로회(出征軍人慰勞會)"라는 여성단체를 결성하여 손문의 군사행동을 적극적으로 후원하였다. 이와 동시에 송경령은 각계 인사를 동원하여 거액의 위문 경비를 모집하고 전사들을 위로할 위문단을 조직하였다.

계림에서 손문과 송경령은 레닌이 파견한 코민테른(komintern) 대표 마링(Maring)을 접견하였다.

북벌군이 순조롭게 진군하고 있을 때 손문의 직속 부하 진형명(陳炯明)이 후방에서 반란을 도모하였다.

1922년 5월 18일 진형명은 군사를 이끌고 광주로 잠입하였다. 국면을 전환시

키기 위하여 송경령은 손문과 함께 긴급히 광주로 돌아와서 진형명의 모반 증거를 포착하였다. 6월 12일 손문은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형명의 소속 부대가 원래의 지역으로 물러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진형명이 그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손문의 요원과 화교들을 살해함으로써 사태는 더욱 심각해졌다.

15일 저녁 진형명의 부대는 이미 총통부를 포위하기 시작했다. 6월 16일 새벽 2시에 손문은 진형명의 부대가 그의 집을 공격할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다.

그때 송경령은 단잠에 빠져 있었는데 손문은 그녀를 깨워서 함께 이곳을 떠나 위험에서 벗어나자고 했다. 송경령은 대세를 살핀 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손문과 함께 행동하는 것이 반란군에게 발각되기 쉬울 것이라 생각했다. 이에 자신은 남아서 손문의 비밀 철수를 엄호하기로 결심하고 손문에게 다가가 다정하게 말했다.

"중국은 나는 없어도 되지만 당신은 없으면 안됩니다.!"

손문은 물론 호위병들도 모두 송경령에게 빨리 철수하라고 재촉하였지만 누구도 그녀의 결심을 뿌리칠 수 없었다. 결국 손문도 어쩔 수 없이 그녀를 남겨둔채 혼자서 먼저 떠나기로 하였다. 손문은 50명의 호위병들을 모두 집에 남아 있게 하고 자기 몸만 빠져나갔다. 손문은 간신히 반란군의 시야를 피하여 황포영풍함(永豐艦)에 도착하였다. 손문은 안전하게 영풍함에 도착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포성을 세 번 울렸고, 집에서 초조하게 대기하고 있던 송경령과 호위병들은 밤중에 울려 퍼진 그 포성을 듣고서야 비로소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손문이 떠난 지 30분 쯤 지났을 때 갑자기 사방에서 포성이 울려 퍼졌다. 반란군이 송경령이 남아 있던 율수루(손문과 송경령이 살던 집)를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반란군은 "손문을 죽여라! 손문을 죽여라!"고 외치대면서 좌우에서 협공을 해왔다. 반란군의 공격을 받은 호위병들은 8여시간 동안 그들과 총격전을 벌였다. 총격이 멎자 그때까지 부근의 야산에 피신해 있던 송경령은 요대장(姚隊長)과

두 명의 호위병과 함께 산을 내려와서 육교를 따라 기어갔다. 이때 유탄이 공중으로 날아와서 송경령의 귀밑머리 부위를 두 발이나 스쳐지나갔다.

그들이 막 육교를 지나갔을 때 육교는 반란군의 포격을 맞고 무너졌으며 요대장은 총탄을 맞고 쓰러졌다. 두 명의 호위병은 그를 들고 총통부 후원으로 들어가 응급조치를 취했다. 그들이 총통부에 이르렀을 때 주위의 포성은 멎었다. 새벽 4시부터 오후 4시까지 송경령과 호위병들은 포탄이 끊이지 않는 생지옥 속에 있었던 것이다.

이날 오후 4시에 광주 위술구(衛戍區) 사령 위방평(魏邦平)이 총통부로 부관을 보내어 조건을 제시했다. 그가 제시한 조건은 첫째가 송경령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었지만 그 부관은 송경령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이때 2층 철문이 열리면서 반란군이 진입하였다. 이 혼란 속에서 송경령은 대문을 뚫고 나가 기지를 발휘하여 손에 싸 들고 있던 물건을 땅에 던졌다. 그녀는 반란군들이 그 돈주머니를 서로 차지하려고 다투고 있는 사이에 그속을 무사히 빠져 나올 수 있었다.

이때 송경령은 이미 임신을 하고 있었던 중이라 행동이 몹시 불편했다. 대문을 뚫고 나온 후에 송경령은 여러 차례 기지를 발휘하여 반란군들을 따돌리고 간신히 사면(沙面)의 친구집으로 가서 휴식을 취하였다. 그후 다시 기선을 타고 영남대학(嶺南大學: 지금의 중산대학 中山大學) 총장 종영광(鍾榮光)의 집으로 갔다. 오랫동안 피로와 긴장에 시달린 탓에 송경령은 종광영의 집에서 유산을 하고 말았다. 이것이 그녀의 일생동안 유일한 임신이었다.

이후 송경령은 안전하게 황포도로 가서 영풍함에 승선하였다. 그녀는 "내가 영풍함에서 손문을 만났을 때 사별한 후 다시 만나는 것 같았다"고 술회하였다. 이 사건에서 송경령이 보여준 용감한 행동으로 그녀는 많은 사람들의 신임을 받게 되었으며, 특히 국민당 중에서 그녀와 손문의 결혼에 불만을 품고 있던 당원들도 송경령을 새로운 눈으로 대하게 되었다.

진형명의 반란으로 송경령은 갖은 고초를 겪으면서 유산을 하게 되었으며 이로써 그녀는 평생동안 임신을 할 수 없게 되었다. 한 여인에게 있어서 이것은 대단히 치유하기 어려운 육체적 정신적 상처이다. 그럼에도 그녀는 결코 좌절하

지 않고 더 넓은 가슴으로 더 많은 사랑을 사랑하면서 무수한 아동들을 위해 더 고귀한 모성애를 발휘하였으니 진정 위대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송경령의 미용 비법

송경령은 빼어난 용모를 지닌 매력적인 여인이다. 그녀는 나이가 들어서도 결코 젊은 시절의 미모를 잃지 않았다. 그녀는 중국에서 자연미를 갖춘 미인의 표준형으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사진에 나타난 그녀의 인상은 우아하면서도 부드러운 아름다움 여성 모습이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녀의 모습에서 내면의 평온함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녀의 최대의 미용 비법은 바로 이 "평온함"이다. 이러한 평온함은 한시도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았으며, 바로 이것 때문에 그녀는 특유의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내면의 평온함은 그녀가 간직한 미의 원천이며 그것이 밖으로 표출된 것이 바로 그녀의 사랑이다.

이러한 사랑은 편협적이거나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포용적이고 사심이 없는 것이다. 그녀는 이러한 내면의 평온함으로써 자기의 민족과 대중을 열렬히 사랑하였다.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내면의 평온함을 간직하기란 매우 쉽지 않은 일이다. 그녀는 여러 가지 정치적 임무를 수행하려면 많은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녀는 내면의 평온함을 간직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중심을 잃지 않아야 하고, 그렇게 해야만 내면의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해야만 생활 속에서 참되고 영원한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한 번은 한 친구가 그녀에게 최대의 미용 비법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때 그녀는 친구에게, "복잡한 바깥 세상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사물을 평온하고 온화하게 대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아름다운 내면 세계를 간직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더욱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 대답하였다고 한다.

여기에서 그녀의 "비법"은 바로 자기자신의 내면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평온함을 간직하는 것이 그 어떤 화장품 보다도 좋다. 그것은 사람의 용모에 색채를 더해 줄 뿐만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솟아나오는 힘을 더해 주기 때문이다.

※ 송씨 삼자매

사람의 인생은 때로 그가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였냐에 따라서 크게 변화한다. 한 부모 아래서 한 나무에 난 가지처럼 자라던 형제자매도 선택한 배우자의 사상과 이상에 영향을 받으며 마침내 접점이 사라진 채 전혀 다른 삶의 궤적을 걷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배우자의 선택은 한 인간이 성인이 된 이후 가지게 된 가치관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발현하는 계기가 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20세기 초반 중국에는 아름답고 총명한 세 명의 자매가 있었다. 이들은 어린 시절 돌도 없이 친밀한 언니 동생이었지만 성인이 된 이후 각자가 선택한 배우자의 길을 따라 인생의 여정이 확연히 달라졌다. 그들은 광둥성의 부호 송씨의 세 명의 딸이었다. 그 중에 중국의 국모로 칭송받는 송경령이 있었다.

- 총명하고 아름다운 세 자매

광둥성 대부호 송씨의 주인인 송가수는 서구 문명에 일찍 눈을 뜬 사람이었다. 그는 누대를 거쳐 내려온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중국의 부강을 위해서는 청나라가 아닌 다른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이를 주창하는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후원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런 그에게는 세 명의 딸이 있었다. 모두 총명하고 아름다우며 야심이 있는 여인들이었다.

첫째 송애령, 둘째 송경령, 셋째 송미령이 바로 그들이었다. 그들은 같은 학교를 다녔으며 나란히 함께 미국 유학길에 올라 똑같이 위슬리 대학을 졸업하

였다. 무엇보다 그녀들의 인생을 전혀 다른 길로 이끌 것 같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들은 가치관이 달랐다. 이들의 인생을 두고 중국 사람들은 흔히 송애령은 돈을 사랑하였고, 송경령은 조국을 사랑하였으며, 송미령은 권력을 사랑하였다고 말하곤 한다. 이 말은 이들이 선택한 배우자로 인해 나온 말이다. 첫째 송애령은 중국 산시성의 대부호 공상희와 결혼하며 중국의 경제를 남북으로 아우르는 대부호가 되었다. 막내 송미령은 권력을 쫓아 당시 군벌의 대표주자이자 가장 정치적이었던 장개석과 결혼하며 그의 야심을 보좌하였다. 그리고 가운데 송경령은 중국 근대사상의 아버지이며 현재까지도 중국에서 국부로 존경받는 혁명가이자 사상가인 손문을 택했다.

- 손문과의 만남, 나이를 극복한 결혼

송경령(1892-1981)은 언니 애령이나 동생 미령에 비해 침착하고 사려깊은 성격을 가졌다. 그녀는 모든 일에 심사숙고를 아끼지 않았으며 독립심이 강하고 자신의 이상적인 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길을 조용히 모색하고 있었다. 송경령은 스무살이 되던 해 아버지의 절친한 친구이자 사상적 동지이던 손문의 비서가 되었다. 그리고 이듬해 손문이 제 2혁명에서 실패하여 일본으로 망명길에 오르자 이를 수행한다. 송경령은 스물 두 살이 되던 1914년 일본에서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손문과의 결혼을 감행한다. 그때 손문의 나이는 이미 쉰을 바라보고 있었다. 많은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손문과 송경령의 결합은 이상적이었다. 1916년 다시 상해로 돌아온 손문은 많은 시간을 그의 민족주의 사상의 집대성에 투자했고, 그 옆에는 항상 송경령이 있었다. 송경령은 손문의 저작들을 영어로 번역했으며 손문이 외국의 정치가들과의 통교가 필요할 때는 뛰어난 어학실력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도왔다. 그 과정에서 송경령은 손문의 삼민주의 사상에 깊이 공감하고 이를 체화하였다. 남편 손문을 돕는 동안 송경령 자신도 한 명의 사상가로, 중국을 미래를 짊어질 혁명가로 성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 조국을 생각하다 1925년 손문은 북경에서 타계한다. 송경령과 손문의 결혼 생활은 불과 10여 년 남짓이었다. 그러나 그 10년은 한 명의 총명한 여성을 조국과

민족을 생각하는 지도자로 변모시켰다. 손문 사후 송경령은 중국의 정치적 상황에 적극 개입하며 남편의 유지를 따라 중국 민중에게 가장 올바른 길이무엇인가를 항상 고민하고 실천했다. 송경령은 국민당 정부의 수장인 장개석과 강하게 맞섰다. 송경령은 장개석이 남편 손문의 이념과 이상을 왜곡하고 중국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권력 야욕에 젖어 있다고 판단하고 그와 대립하였다. 이때부터 시작된 장개석과의 대립은 평생 계속 이어졌다. 그리고 장개석의 아내였던 여동생 미령과의 관계도 여기서 끝을 맺게 된다. 송경령은 빈사 상태에 빠진 중국과 중국 민중들을 구원할 길을 여러 가지로 모색하였다, 그녀는 반일과 반제국주의를 주창하고 중국 혁명의 주요 문제인 농민과 토지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더불어 여성과 아동 복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 중국 현대사를 누빈 파란의 삶

1945년 9월 항일 전쟁에 승리한 후 송경령은 모택동과 손을 잡고 여동생 미령과 그녀의 남편 장개석을 대만으로 몰아낸다. 송경령은 남편 손문의 뜻을 이어받을 정부로 중국 공산당을 택한 것이다. 1949년 중국 본토에 중화인민공화국 성립한 이후 송경령은 두 차례나 국가 부주석을 역임하였다. 이후 그녀는 중국 현대 정치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로 활약하였다. 송경령은 1981년 만선 임파선 백혈병의 악화로 89세의 파란 많은 삶을 마친다. 죽음에 임박한 시점에서 송경령은 중화인민공화국 명예주석 칭호를 받기도 하였다. 송경령의 긴 인생 속에서 손문과의 만남은 불과 10년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 10년이 그녀의 인생관을 송두리째 변화시키고 나머지 삶의 길을 선택하게 하였다. 평생을 남편의 유지를 이어받아 조국 중국을 생각하며 살아간 송경령. 그녀는 손문과의 결혼 이후로는 언니 애령과 동생 미령과도 절연을 하여야 했다. 서로가 추구하는 가치관이 너무도 확연히 달랐기 때문이었다.

20세기 중국 현대사를 총횡무진 누비던 송씨 집안의 딸들의 삶은 2003년 10월 막내 송미령이 미국에서 죽으면서 역사가 되었다.

8. 상하이 와이탄



황푸 강을 끼고, 강 서쪽에 자리잡은 와이탄(중국어 간체: 外滩, 정체: 外灘, 병음: Wàitān, The Bund)은 1.7km 걸쳐 상하이의 주요 건물과 야경을 가장 잘 조명할 수 있는 포인트로 사람들의 사진에 가장 많이 남는 장소이기도 하다. 150년전 조계시대에 세워진 다양한 유럽식 건축물은 건축양식을 박람회장을 보여주는 듯 다양한 양식을 뽐내며, 황푸 강의 야경과 더불어 앞뒤가 가장 즐거워지는 조망대이다.

외백도교(外白渡橋)는 건너편 금릉동로(金陵東路)와 연안동로(延安東路)를 연결하는 1.5km에 이르는 다리인데, 상해 최초의 공원이라는 황푸공원(黃浦公園, 1868년)과 이어진다. 한 때 이곳은 당시 영국의 조계지로서 "중국인과 개는 출입금지!"라는 뜻말이 붙은 곳으로 유명하다.

1855년에 영국 상인 "헬스"가 외과도(外擺渡, 나루터)쪽의 수저우허(蘇州河) 위에 길이 137m, 넓이 7m의 나무다리를 지어 '헬스교'라 불렀고, 내국인들은 지역



와이탄 건설 초기의 모습

명을 따서 '외과도(外擺渡)교'라고 불렀다. 이 다리는 외국인들만 무료로 다니게 하고 중국인들에게는 통행료를 강요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원성을 샀다.

다리가 만들어진 18년 후 1873년 8월에 영국과 프랑스 공동조계공사국[公共租界工部局]이 이 다리의 동쪽에 다시 길이 117m, 넓이 12m, 양쪽에 2m의 부교(浮橋)를 지어 무료로 통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이 다리는 나중에 외백도교(外白渡橋)라고 불리었고, 같은 해에 헬스교는 철거되었다.(白渡橋는 공짜로 건너는 다리라는 뜻임) 청나라 광서(光緒) 32년(1906년)에 이 부교를 철거하여 철교로 바꿨는데, 외백교는 당시 상하이에서 제일 웅장하고 뛰어난 다리로 사람들의 구경거리였다. 외백도교에서 사이길로 황푸공원을 따라 와이탄으로 진입하면, 멋진 강변 레스토랑이 있고, 상해인민영웅기념비(人民英雄紀念碑)가 맨 처음으로 눈을 자극한다.

와이탄 관광터널을 지나 좀 더 내려가게 되면 상해시 초대 시장인 천이동상과 천이광장이 나온다. 쓰촨성 출신으로 1949년 상하이시의 해방과 더불어 초

대 시장에 오른 오성장군(원수) 천이(陳毅, 1901~1972) 시장의 동상이 서 있다. 천이는 마오쩌둥, 저우언라이, 주더, 덩샤오핑 등과 함께 중국공산혁명의 1세대 원로이며, 중국 10대 원수의 한사람이고, 리와 외교부 부장을 역임했으며, 중국의 현대 바둑사업 보급 및 외교방면에서 아주 큰 역할을 했다.(바둑을 워낙 좋아해서 중국기원에는 꼭 이 천이의 동상이 있다.)

과거의 상하이이곳에는 로마네스크, 고딕, 르네상스, 바로크, 신고전주의, 보아르, 아르데코 등 52개의 건축양식을 가진 건축물이 있다.

와이탄의 뒷편이 상하이의 과거라면, 황푸강을 건너서 맞은편은 뤼저주이에 있는 상하이의 현재와 미래를 나타내는 각종 고층빌딩이 찬란한 빛을 내뿜으며,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동방명주탑, 진마오 빌딩 등 상하이를 상징하는 주요 마천루의 조명은 중국 전체가 자부하는 야경이다.

와이탄의 중간쯤에 있는 에스컬레이터 터널을 따라 지하로 내려가면 와이탄 관광터널이 있는데, 이곳에서 황푸 강 지하로 푸동을 넘어가는 전동차를 이용할 수 있다. 푸동에서 동방명주탑 정도만 보고 온다면 충분히 이용할 만하다.



9. 베이징 VS 상하이

오래 살수록, 자주 방문할수록 중국은 이해하기 어렵다고들 한다.

드넓은 땅에 수많은 명승지들이 산재해 있고, 여러 민족이 공존하다 보니 같은 점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탓이다. 기후도 제각각이고 자연환경과 문화도 매우 다르다.

또한 국내에서 직항으로 연결된 도시만도 10곳이 넘어서 여행지를 고르는 일 자체가 쉽지 않은 편이다. 이렇듯 다채로운 중국의 명소들 중에서 대조적인 성격을 띤 여행지들을 묶어 비교했다.

◇ 너무나 다른 중국의 두 얼굴

남쪽의 홍콩, 마카오, 광저우(廣州)를 제외하면 중국에서 개별여행을 위한 인프라가 완벽하게 갖춰진 도시는 베이징(北京)과 상하이(上海)뿐이다.

깔끔한 호텔과 레스토랑이 많고, 중국어를 몰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이 깔려 있어서다. 또한 충실한 여행 정보도 쉽게 얻을 수 있다.

'중국의 두 얼굴'이라 할 수 있는 베이징과 상하이의 매력은 어떻게 다를까.

▲ 박제된 역사, 진화하는 예술

베이징의 관문인 서우두(首都) 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입국자는 세계 최대 규모의 공항 터미널에 놀란다. 올림픽을 앞두고 중국 정부가 의욕적으로 세운 결과물이다.

베이징 여행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다. '전통'과 '현대', '역사'와 '유행'처럼 시간을 갖대로 나뉜다. 전통은 베이징 시내와 외곽에 흩어져 있는 유적으로 향하는 과정이다.

중심부에 버티고 있는 썬진청(紫禁城)을 정점으로 천하를 다스렸던 왕들의 흔적이 여기저기에 남아 있다. 하지만 베이징에서 과거는 현재와 철저히 분리돼 있지 않다. 썬진청과 중국 현대사의 상징인 톈안먼(天安門) 광장이 붙어 있는

식이다.

재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후통(胡同)은 베이징의 시간이 교차하는 지점이다.

고관대작의 행차를 피해 서민들이 대로의 뒷골목에 터전을 잡으며 형성된 이곳에는 토박이들의 일상이 녹아 있다. 700년 전부터 별다른 변화 없이 보존돼 왔기에 모든 것이 고풍스럽다.

하지만 이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풍경은 이전과 다르다. 관광객을 태운 인력거가 오가고, 행인은 휴대전화로 통화하며 거리를 쏘다닌다.

문화의 측면에서도 베이징은 다채로운 면모를 보여준다. 국가대극장(國家大劇院)에서는 중국의 전통극인 경극이 상연된다. 인공 호수를 만들고, 입구를 수면 아래로 지은 현대적인 빌딩에서 짙은 화장을 한 배우들이 희로애락을 노래한다.

텐안먼 광장의 정남쪽으로 이어지는 길인 첸먼다지에(前門大街)의 끝에는 차를 시음하고 구입할 수 있는 '라오서차관(老舍茶館)'이 있다. 이곳에서는 중국인들이 어떠한 음료보다도 사랑하는 차를 들이켜며 그림자 연극과 변검을 감상할 수 있다.

이러한 전통문화의 대척점에는 '다산쯔(大山子) 798 지구'가 있다.

구소련과 동독의 도움을 받아 무기와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밀집 지대였던 이곳은 1990년대 후반 예술가들이 흘러들면서 예술특구로 지정됐다. 밴쿠버의 그랜빌 아일랜드처럼 폐허에서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다산쯔 798 지구에는 미술가들의 작업실과 화랑을 비롯해 예쁜 카페와 레스토랑들이 밀집해 있다. '정치적으로는 보수적이지만, 문화적으로는 진보적'이라는 베이징 사람들의 감수성이 구현돼 있다.

▲ 그들의 밤은 낮보다 화려하다

명나라 시대의 고관이 부모를 위해 18년 동안 지었다는 위위안(豫園). 중국 강남의 정원 양식을 따라 건설된 이곳은 언제나 여행자로 들끓는다.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뀐 뒤 1950년대 중반 들어서야 대중에게 개방됐는데, 주변에는 찻집, 식당, 기념품점, 골동품점이 즐비해서 쇼핑을 즐기기에 좋다.

그러나 위위안의 인기가 높은 진정한 이유는 상하이에 불만한 전통 정원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문화유산만 둘러봐도 3박 4일 일정이 빠듯한 베이징과는 달리, 13세기 후반에야 작은 도시로 성장한 상하이에는 자신 있게 내세울 고적이 없다.

거대도시 상하이의 진가는 해가 저물 무렵부터 서서히 드러난다. '백만 달러 짜리 야경'이라는 홍콩보다 더욱 아름다운 밤풍경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황푸(黃浦) 강의 양안에는 100년의 시간 차이를 두고 들어선 건물들이 색색의 조명을 발한다. 이러한 야경을 만끽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황푸 강 서쪽의 와이탄(外灘)과 동쪽의 푸둥(浦東) 사이를 지나가는 '유람선 탑승'이다.

와이탄은 중국이 아편전쟁에서 패한 뒤 영국, 프랑스, 미국 세력이 유입되면서 탄생한 지역으로 우람하면서도 고전적인 서양 건물들이 늘어서 있다. 은행, 세관, 도서관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와이탄의 빌딩들은 20세기 초반의 외관을 유지하고 있다.

푸둥 지구는 와이탄에 비해 훨씬 '젊은' 곳이다. 흔히 중국 경제 발전의 결정체로 인식되는 이곳에서는 '높이 경쟁'이 한창이다. 로켓을 떠올리게 하는 둥팡밍주(東方明珠)와 진마오다사(金茂大廈)를 필두로 가느다란 건물들이 치솟아 있다.

상하이 여행의 절정은 신토펬디(新天地)이다. 본래 프랑스 사람들이 거주하던 동네였는데, 유럽풍의 건물에 카페와 레스토랑, 바 등이 입점하면서 상하이에서 가장 세련된 곳이 됐다.

골목마다 세계 각국의 술과 음식, 음악을 향유할 수 있는 상점이 숨어 있다. 노천카페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잘 차려입은 젊은이들을 보는 것도 재미 있다.

[출처] 중국여행(명소) - 중국전문 포털 [와이드차이나]

II. 장쑤성에서 보는 중국의 원림 문화

1. 장쑤성(江蘇省, Jiangsu) 개관



중국의 동부 양쯔강[揚子江] 하류에 있는 성.

약칭하여 '쑤[苏]'라고도 부르며, 성도(省都)는 난징[南京]이다. 중국 동부의 황해(黃海) 연안에 있으며, 양쯔강[揚子江]에서 바다로 향하는 문호라는 지리적 이점을 지닌 강해(江海) 지역으로 해안지대의 길이가 1000여km에 이른다.

춘추전국시대에는 오(吳) 나라와 초(楚) 나라의 영토였고, 한(漢) 나라 때는 서주(徐州)와 양주(揚州) 2개 주에 속하였으며, 명(明) 나라에 이르러 난징에 직속되었다. 청(淸) 나라 초기에는 장난성[江南省]에 속하였고, 강희(康熙) 황제 때 강녕부(江寧府)와 소주부(蘇州府)의 첫 글자를 따서 장쑤성[江蘇省]을 설치하였다.

면적은 10만여km²로 전 국토의 1.1%에 지나지 않는 작은 성(省)이다. 행정구

역은 난징·취저우[徐州]·롄윈강[连云港]·화이안[淮安]·옌청[盐城]·양저우[扬州]·난통[南通]·전장[镇江]·창저우[常州]·우시[无锡]·쑤저우[苏州]·쑤첸[宿迁]·타이저우[泰州] 등 13개 지급시(地級市), 27개 현급시(縣級市)와 26개 현으로 이루어져 있다. 70% 정도의 시현(市縣)과 5개의 연안 항구가 대외적으로 개방되었다. 난징·쑤저우·창저우·우시·전장·양저우·난통 등지는 양쯔강 삼각주 경제개방 지역에 속한다.

피저우[邳州]와 화이안의 고대 유적지는 4000~6000년 전부터 이 지역에서 고대 인류가 활동하였고, 신석기시대의 양샤오문화[仰韶文化]에 속하는 문명을 발달시켰다는 사실을 설명해준다. 동진(東晉)과 남북조(南北朝) 시대를 거쳐 남송(南宋) 시대로 내려오면서 많은 인구가 남쪽으로 이주하였다.

역사적 인물은 북송(北宋) 시대의 문화가 범중엄(范仲淹)이 쑤저우 출신이고, 원명(元明) 시대에 소설 《수호전(水滸傳)》을 지은 시내암(施耐庵)은 싱화[興化] 출신이며, 《서유기(西遊記)》의 작가 오승은(吳承恩)은 화이안 출신, 명청(明清) 시대의 여행가 서하객(徐霞客)은 장인[江陰] 출신, 애국 사상가인 고염무(顧炎武)는 쿤산[昆山] 출신, 서예가 정판교(鄭板橋)는 양저우 출신, 당인(唐寅)은 우현[吳縣] 출신, 현대 혁명가인 저우언라이[周恩來]는 화이안 출신, 수학자 화뤄경[華羅庚]은 진탄[金壇] 출신이다.

장쑤성의 자연

롄윈강[连云港]·양저우[扬州]·우시[无锡]·쑤저우[苏州]를 일직선으로 하여 동쪽으로는 6000년 전 고대의 바다 그대로이며, 현재 해안은 슈전강[綉針河] 입구에서 양쯔강 입구까지 갯벌로 이루어진 얕은 바다가 많다. 평원이 69%, 수면(水面)이 17%, 낮은 산지와 구릉 및 언덕이 14%를 차지하여 중국의 여러 성(省)들 가운데 지세가 가장 낮다.

지형은 3개 지역으로 구분된다. ① 양쯔강 삼각주 평원 : 전장[鎮江]의 동쪽이며 통양[通揚] 운하의 남쪽에 있는 타이후호[太湖] 주변의 평원으로, 양쯔강 중하류 평원의 주요 부분이다. 대부분 해발 10m 이하이며, 타이후호 동쪽은 해

밭 2~5m까지 떨어지며, 평원의 관개수로가 조밀하여 간간이 언덕 지형이 눈에 띈다. ② 쑤베이[苏北] 평원 : 황화이[黄淮] 평원의 일부분으로 해발 45m 이하다. 북쪽 폐이황허강[废黄河]의 양쪽 강가는 지대가 약간 높고, 쉬저우[徐州]와 툰윈강 사이에 수백 개의 잔구(殘丘)가 있다. 윈타이산[云台山]의 위녀평[玉女峰]은 해발 625m로 장쑤성의 최고봉이다. 싱화[兴化] 주변의 리샤강[里下河] 일대는 해발 1.5~6m에 지나지 않아 '솔바닥[锅底]'이라는 별칭이 있다. 환창강[串场河]의 동쪽은 해안평원을 이룬다. ③ 남서쪽 낮은 산지와 구릉지역 : 닝진[宁镇] 구릉과 마오산[茅山], 이리[宜溧] 산지를 포함한다. 해발 200~400m이며, 산기슭에 황토 언덕이 산재해 있다.

화이하강[淮河]과 쑤베이[苏北]의 총관개인공수로의 북쪽은 온난대 반습윤 계절풍 기후에 속하고, 중남부의 드넓은 지역은 북아열대 습윤 계절풍기후에 속한다. 기후가 온난하고 습하며 사계절이 뚜렷하다.

'물의 고향[水乡]'이라 불릴 만큼 하천과 호수가 많고, 크고 작은 수로가 2900여 개나 된다. 호수의 숫자는 300개에 가깝고, 댐과 저수지는 1100여 곳으로 수로망의 조밀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다. 특히 양쯔강 삼각주는 1km²당 수로망 길이가 6~7km에 이른다.

하천은 양쯔강과 화이하강 그리고 이수강[沂沭河] 수계에 속한다. 양쯔강이 성내에 흐르는 길이는 440km이며, 징항[京杭] 운하가 비스듬히 700km 남짓 성내를 흐르다가 전장[镇江] 부근에서 양쯔강과 합류한다. 화이하강은 원래 홀로 동쪽을 향하여 바다로 흘러들어갔으나, 송나라와 원나라를 거치면서 황허강이 침범한 뒤부터 징항운하를 통해 남하하여 썌장[三江]을 거쳐 양쯔강으로 흘러들어가게 되었다. 잘 알려진 하천으로는 친화이강[秦淮河]과 쑤베이 총관개인공수로, 통양운하 등이 있다.

장쑤성의 명승지

국가중점보호문화재가 많은 성으로 모두 52곳이 있다. 풍경명승지는 양쯔강 남북으로 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국가중점관광지역이기도 한 우시[无锡] 타이후

호[太湖]의 빈위안터우주[濱菴頭渚]는 절경을 자랑한다. 련윈강[连云港]의 해변, 윈산타이[云台山]의 화귀산[花果山] 수이렌둥[水帘洞], 진평산[锦屏山]의 자연경관은 모두 국내외에 널리 알려져 있다.

타이후호·윈산타이와 더불어 난징[南京]의 중산[钟山], 양저우[扬州] 수강[蜀岗]의 서우시호[瘦西湖] 4곳은 모두 국가지정 명승풍경지역이다. 난징 중산의 중산릉[中山陵]·링구사[灵谷寺]·취안우호[玄武湖]·밍샤오링[明孝陵]·천문대·메이화산[梅花山]과 친화이강의 푸쯔묘오[夫子庙]와 모처우호[莫愁湖] 그리고 양저우 수강의 다밍사[大明寺], 서우시호의 우팅차오[五亭桥] 등 풍경지역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황홀경에 빠지게 한다.

장쑤성의 고원림(古园林)은 독특한 특색으로 유명하다. '원림의 성[园林之城]'이라 불리는 쑤저우[苏州]에는 송·원·명·청의 고원(古园)으로 중국 4대 명원의 하나로 꼽히는 취정위안[拙政园]과 류위안[留园], 왕스위안[网师园] 등 여러 곳이 있으며, 쑤저우의 원림(园林)은 1985년 전국 10대 명승지로 선정되었다. 또 다른 명원(名园)으로는 우시[无锡]의 지창위안[寄畅园]·리위안[蠡园]·메이위안[梅园], 양저우[扬州]의 허위안[何园], 난징[南京]의 잔위안[瞻园] 등이 있다.

이밖에 쑤저우의 후추[虎丘]·시위안사[西园寺]·둥팅산[洞庭山], 전장[镇江]의 '삼산(三山)', 이싱[宜兴]의 '삼동(三洞)', 창저우[常州]의 메이화거[梅花阁], 창수[常熟]의 위산산[虞山], 난통[南通]의 랑산산[狼山], 쑤저우[徐州]의 윈룡산[云龙山], 쑤첸[宿迁]의 건륭(乾隆) 황제 행궁, 난징[南京]의 위화타이[雨花台], 화이안[淮安]의 저우언라이[周恩来] 기념관, 장인[江阴]에 있는 서하객(徐霞客)의 옛집, 우시~양저우 대운하 유람코스 등이 있다.

2. 소박한 물동네 통리(同里)



960만 km²에 달하는 넓은 중국의 땅위에는 아름다운 명소들이 수도 없이 많다. 내외에 이름난 관광지나 관광도시는 물론이고 산과 들과 물가에 산재해 있는 옛 동네 마찬가지로 비경이다.

물가의 소박한 고건물 동네로 평가되는 통리(同里, Tongli)는 바다의 진주처럼 다섯 호수에 안겨 "동방의 작은 베니스"라는 미명도 가진다. 정원과 다리와 물이 어울리는 이곳에 들어서면 우아함과 청신함, 두터운 문화에 취하게 된다.

통리에 들어서면 세상과 동떨어진 정토에 들어선 듯 착각하게 된다. 소리 없이 흐르는 물, 오래된 돌길, 정교한 돌다리, 물가의 집, 검은 지붕을 떠낸 배, 물가에서 빨래하는 여성, 피어오르는 밥 짓는 연기가 떠나면 옛날을 이야기하는 듯하다.

역사적으로 통리의 정원은 물과 끊을 수 없는 인연을 맺었다. 그로 인해 통리 8경 중 물가의 피리소리, 연꽃위로 불어오는 바람, 여름날의 빗소리 등 거의 모두가 물과 연관된다.

그래서 강남의 첫 정원으로 인정되는 퇴사원(退思園)도 변화한 거리와 인파를 멀리 벗어나 홀로 고요한 물속으로 들어가 정교하면서도 우아하고 물가의 정원으로 남아 있다.

서쪽의 저택과 중앙의 홀, 동쪽의 가든 세 부분으로 나뉘는 퇴사원에서 저택 중 사랑방은 손님을 맞이하는 장소로 사용되고 안방은 주인과 식구의 침거지다. 그밖에 홀에는 누각, 가든에는 회랑과 다리 등 볼거리가 많다.

퇴사원을 나와 통리의 거리를 걸으면 금방 물가를 걷다가도 어느새 또 다리 위에 올라서게 되어 마치 옛 다리 박물관에 들어선 듯하다. 통리에서 가장 유명한 다리로는 동네 중앙에 위치한 천평(天平), 길리(吉利), 장경(長慶) 세 개이다.

정교하면서도 고풍스럽고 소박한 이 다리들은 세 점의 조각문화재처럼 푸른 물위에 드러누워 있는데 결혼식 때면 신부가 탄 꽃가마는 만사형통을 기원해 평안의 뜻인 태평과 길함의 뜻인 길리, 경사로운 뜻인 장경을 외우면서 세계의 다리를 경유한다.

통리에는 또 가음당(嘉蔭堂)과 숭본당(崇本堂), 세덕당(世德堂)을 비롯해 돈후 하면서도 소박한 뜰과 정교하면서도 아담한 정원들이 두터운 문화로 각자의 특색을 자랑한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교한 조각으로 유명한 가음당이다. 높은 천정을 가진 건물의 대들보와 창틀에 너무 형상적이어서 부르면 금방이라도 그림 속에서 달려 나올 듯한 삼국지 인물이 조각되어 있다.

통리의 거리와 정원과 건물과 다리를 보고나서 시간이 있다면 이번에는 강남의 첫 차집으로 불리우는 남원다사(南園茶社)로 가서 강남의 지방극을 들으면서 강남의 차 한 잔 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뜨거운 차 한 잔 들고 창가에 앉아 은은한 음악을 들으면서 옛 동네의 거리와 집, 물길과 사람들을 바라보노라면 고요해지는 마음의 여유를 즐길 수 있다.

통리는 자연이 선물한 산수화이다. 물길로 거리를 그리고 물길에 의해 동네

가 형성되고 물길에 의해 정원이 조성되어 물과 도로, 다리, 민가, 정원이 조화를 이루면서 고요하고 다정한 집 같은 통리라는 그림을 완성한 것이다.

통리는 강소(江蘇, Jiangsu)성 오강(吳江, Wujiang)시에 위치한 교통이 아주 편리하다. 상해(上海, Shanghai)에서 통리까지 버스로 2시간이 소요되고 소주(蘇州, Suzhou)에서는 30분 간격으로 소주-통리간 버스가 왕복한다.

출처 : 中国旅游网

3. 졸정원(拙政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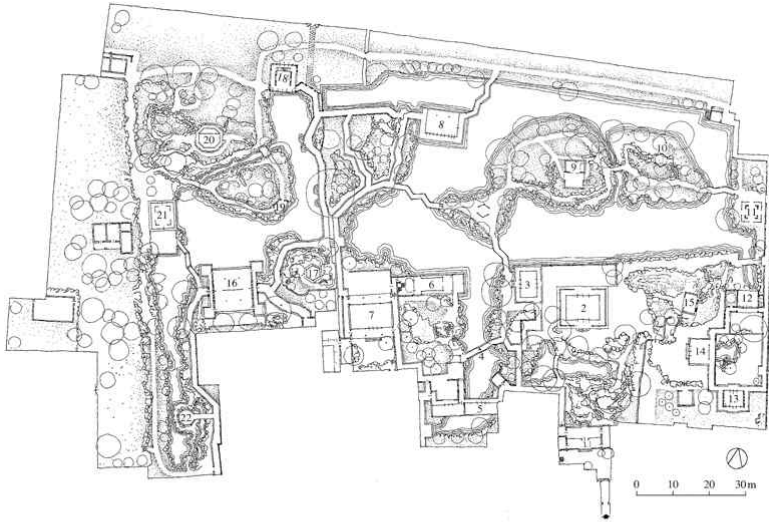
졸정원은 명나라 때 어사였던 왕헌신(王獻臣)이 중앙에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낙향해서 지은 것이다(1522년). 진대의 시 한 구절 '졸자 지위정(拙者之爲政)'에서 본 이 정원을 졸정원이라고 이름지었다고 한다. 부지의 60% 정도가 연못으로 물 주변으로 누각과 정자 등이 있다.

이 정원은 동원, 중원 및 서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지, 축산에 이어 건축이 조화를 이룬 작품으로 평가된다. 이들 세 요소의 극치를 즐기려면 중원의 원향당(遠香堂)에 오르는 것이 좋다.

명대에 건축을 시작하였으며, 청나라초엽에 걸쳐 증축, 개수하였다.

졸정원의 배치는 물(水)을 중심으로하여 정원복도와 호수를 건너는 다리를 주(主)로, 각 정자와 대청을 부(副)로 하여 지은 것이다.

정원은 東, 中, 西의 세부분으로 나뉘며 서쪽의 부분은 증축한 것으로 원래



졸정원 중원(1 ~ 15)·서원(16 ~ 22) 배치도

1. 오문(纒門) 2. 원향당(遠香堂) 3. 의옥헌(倚玉軒) 4. 소비홍(小飛虹) 5. 소청암(小滄浪) 6. 향주(香洲) 7. 옥란당(玉蘭堂)
8. 건산루(見山樓) 9. 석창운위정(碧香云위亭) 10. 북산정(北山亭) 11. 오죽유거(梧竹庵廬) 12. 해당춘오(海棠春塢)
13. 청우헌(聽雨軒) 14. 영동관(玲瓏館) 15. 수기정(?綺亭) 16. 삼십육원앙관(三十六鶯鶯館) 17. 삼팔만타라관(十八曼陀羅館)
17. 의랑정(宜兩亭) 18. 도영루(倒影樓) 19. 여수동좌헌(與誰同坐軒) 20. 부취각(浮翠閣) 21. 유정각(留聽閣) 22. 담영각(塔影閣)

(자료: 潘谷西, 『江南理景藝術』, 東南大學出版社, 2001)

없었던 부분이다. 동쪽 부분에 입출구가 있으며 입구에는 “勝入”, 출구에는 “幽通” 라고 새겨져 있다. 즉 정원 내부를 들어갈 적에는 보고 싶은 마음에 기대를 하고 들어가며, 정원을 보고서는 그 아름다움에 숙연해져서 나간다는 집주인의 생각을 적어놓았다.

포지(鋪地) : 지금의 보도블럭

정원입구를 들어서면 마당이 나오고, 마당에 나 있는 자갈길을 따라 지나게 되는 데, 이 자갈길도 하나하나 모양을 내어 당시에 인부들이 하나하나 모두 박아 만들었다고 한다.

태호석(太湖石)

길이나 호수를 지나가다가 보면, 곳곳에 기암괴석이 있으며, 이것은 소주근처의 태호(커다란 호수라는 뜻)에서 채취한 돌을 가져다 놓은 것이다. 돌의 모양이 기기묘묘하게 생겨서 태호석이라는 이름이 생겨났고, 정원 장식에서 빠질 수 없는 자연물이다.

연못



졸정원은 원래 평지였으나, 왕헌석이 돈을 들여서 연못을 파고 물을 가두어 그안에 잉어를 길렀다고 한다. 그 잉어들은 지금도 많이 볼 수 있으며, 크기가 상상을 초월한다. 여름에는 연못에 연꽃들이 활짝 피며, 봄, 가을, 겨울에는 연못 주

변의정자와 인공산들의 그림자가 연못에 비쳐서 아름다움을 더해준다.

가산(假山) - 인공산

소주의 정원문화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가산으로, 건축자는 자신의 정원안에 세상(자연)을 모두 가지고 싶어 했으므로, 대청 앞에 인공산을 쌓아서 거기에 정자를 올려 경치를 즐겼다.

졸정원의 가산은 연못을 파고서 나온 흙과 태호석을 가지고 만든 독특한 모양이다.

화조(花鳥)

중국인들의 꽃과 새에 대한 사랑은 대단하다. 정원에 새의 지저귀는 소리(聽)와 아름다운 꽃(視)을 기르면서 심신을 다스렸으며, 장수에 도움이 된다고 믿었다.

복도

정원의 복도는 연못을 따라서 이루어져 있으며, 동쪽에서 중앙으로 들어가는 복도 중간에서 연못을 향해 보면, 소주의 북사탑이 마치 정원에 있는 듯이 보인다. 복도에는 동쪽으로 창이 나 있으며, 각 창의 모양이 다르게 설계되어 독특함이 있다.

정자

복도를 따라가면 이름없는 정자가 하나 있는데, 호수쪽으로 나 있는 창을 보면 가을이 보이고, 오른쪽의 대나무가 여름, 복도쪽의 흰색은 겨울, 좌측의 꽃나무가 봄을 연상케 한다.



건물(旱船)



배의 앞머리와 같이 만든 건물로, 집주인이 연못을 만든 다음 연못에 배를 띄워 놓고 싶었으나 연못이 너무 작아서 안되자, 대신에 배와 같이 생긴 건물을 만들어 그 기분을

내었다고 한다. 그 지붕을 계속 따라가 보면 그 모습이 마치 용의 등과 같이 생겼다. 왕헌석이 이 집을 지을 때는 이미 퇴직하여 아무것도 거리낌이 없었고, 생전에 해보지 못한 것은 오직 황제의 자리밖에 없었다. 따라서 그는 복도와 건물의 모양을 용의 모습을 본따서 만들어서 황제가 되지 못한 한을 이러한 방법으로 풀었다고 한다.

백목향(栢木香)나무

나무는 100여년이 된 것이나, 나무 주위에는 작은 자갈들이 원형으로 촘촘히 박혀 있다. 왕헌석은 여기서 매일 3번씩 맨발로 나무의 주위를 10번씩 돌았는데, 이 작은 자갈이 지압 역할을 하고, 10번씩 돈 것은 100살까지 살고 싶은 그의 바람을 나타낸 것이라고 한다.

분재(盆栽)

정원의 서쪽에 있으며, 중국 분재의 특징을 모두 볼 수 있다. 중국의 분재는 한국의 분재와는 달리 크기가 크고, 태호석을 조화시켜서 하나의 풍경을 만들어 낸다.



원양관(鴛鴦館)

이곳은 부부가 36마리의 원양새를 기르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던 곳으로 부부만의 공간이었다.

여기는 창유리가 파란 색으로 되어 있는데, 북경에서 관리를 하면서 겨울이면 눈을 보던 왕헌석은 강남에 내려와 눈을 보기 힘들게 되자 파란 색의 창유리를 달아서 그 창을 통해 눈이 내린 것과 같은 느낌을 가지게 만들었다.

원향당(遠香堂)

손님을 맞이하는 대청으로 이곳에서 정원의 가산, 대나무, 연못을 모두 볼 수 있다. 왕헌석은 이곳에 홍목(紅木-물에 가라앉는다는 유명한 가구 재목)으로 의자를 만들고, 의자 등걸이를 대리석으로 하는 등 자신의 재력을 과시했다고 한다.

태호석

정원을 빠져나가는 곳에 두개의 커다란 태호석이 있는데, 우측은 남자 좌측은 여자가 변한 것이라고 한다. 올려다 면, 그 모양이 남자쪽은 아무런 풀도 나 있지 않고, 여자쪽은 마치 긴 머리를 기른 듯이 풀이 무성하게 나 있다.

4. 세계문화유산인 중국 소주의 원림들

<소주 전통정원(Classical Gardens of Suzhou)>이라는 이름으로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등재 사유로는 '○ 자연의 풍경을 그대로 축소한 중국 전통정원양식의 전형 ○ 중국문화에 내재한 형이상학적 자연의 아름다움을 잘 나타내고 있음'을 꼽고 있다.

중국의 동부에 위치한 강소성(江蘇省: Jiangsuxing)은 북쪽으로 산둥성(山東省: Shandongxing), 서쪽으로 안휘성(安徽省: Aahuixing), 남쪽으로는 절강성(浙江省: Zhejiangxing)과 상해(上海: Shanghai)에 접해 있다. 장쑤성의 해변 길이는 황해(黃海)를 따라서 1000km에 이르며, 양쯔강(長江)이 장쑤성의 남부를 관통하고 있다. 1978년 경제개혁이 시작된 이후, 장쑤성은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루어 지금은 중국의 가장 부유한 성들 중에 하나가 됐다.

동해를 접하고 있는 강소성의 강(江)은 지금 남경(南京: Nanjing)의 옛 지명 강녕(江寧: Jiangning)에서 소(蘇)는 소주(蘇州: Suzhou)에서 나온 말이다. 강소성(江蘇省)의 약자 소(苏)는 소주(蘇州)를 뜻 하기도 한다. 강소성(江蘇省)의 장강(長江) 삼각주(三角洲)에 위치해 있는 소주(蘇州)는 산수가 수려하고 토양이 비옥하고 기후가 알맞으며 교통이 편리한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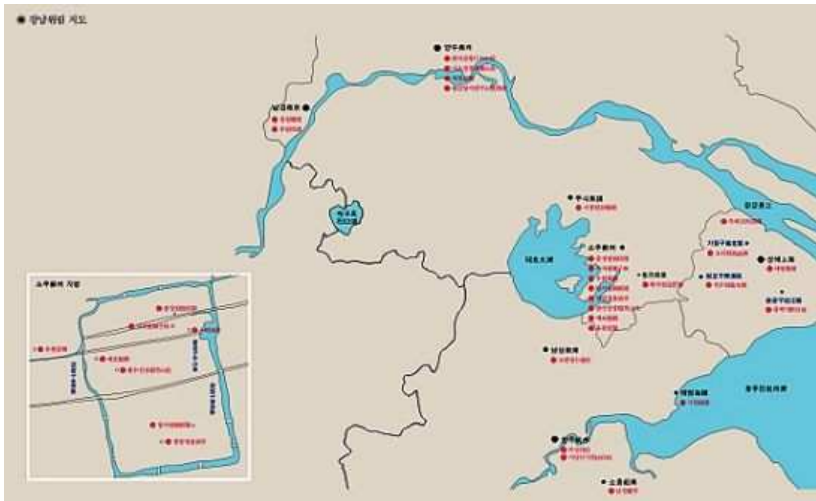
4세기 초기의 서진(西晉)시대 북방유목민들의 침입하자 한족(漢族)의 귀족들은 남부로 피난하여 317년 건강[建康: Jiankang, 지금의 남경(南京)]에 동진(東晉)을 세운다. 남북조(南北朝)시기로 알려진 581년까지, 강소성 남부의 남경은 더 중국화 되지 않았던 북쪽의 왕조들과 대치하는 4개 한족 왕조의 근거지였다. 이때부터 많은 관리들은 퇴직 후 노후를 보낼 장소로 소주를 선택하였다.

중국의 남북조시대(南北朝時代) 이전에는 건축양식이 탑(塔), 정자(亭子), 대청(大廳), 저택(邸宅)과 같이 독립된 것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경제 발전이 가속되고,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대가 지속됨에 따라 건축물에 정원(庭園)을 도입하는 복합건축문화를 탄생시키게 된다. 강남(江南)의 본격적인 농업 발달, 송조(宋朝: 960~1279)이래 비단산업의 중심지로 인한 교역확대 등으로 부(富)를 축적할 수 있었던 상인들은 자신의 재력에 대한 자량과 자연과 쉽게 접하려는 욕

망으로 소주에서 정원이 딸린 저택을 짓고 여생을 즐기고 싶어 하였다. 1367년 명조에 이르러 성(城) 중심에 황성(皇城)이 건설 되었다. 그 후, 도시는 더욱 번창하였다.

이처럼 정원문화는 송나라 이후에 더욱 발전하여 명나라와 청나라에 이르러서는 중국의 대표적인 건축양식으로 자리 잡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장소가 양주(揚州), 무석(無錫), 소주(蘇州), 항주(杭州), 남경(南京) 일대인 강남지역이다. 이곳의 사가원림(私家園林)을 통틀어 강남원림(江南園林)이라 하는데, 강남원림은 대개 저택의 일정한 부지 안에 자연지형과 결합하고, 각종 조경 수법을 사용하여 조성한 것이다.

중국에서는 주택에 부속되어 있는 '정원'과 분리하여, 독립적인 일정 규모 이상의 정원을 '원림'이라고 부른다. 중국원림은 크게 황실원림(皇室園林)과 사가원림(私家園林)으로 나누어지는데, 황실원림은 말 그대로 황실을 위한 원림이며 규모가 엄청나다. 대표적인 것이 승덕 피서산장으로, 여름에는 이궁(離宮)으로도 쓰인다. 황실원림은 그 규모 때문에 멀리 산 능선까지 포함하여 한국의 자연 발생적 정원과 비슷하다. 황실원림은 크게 보아서 사가원림의 확장이라 볼 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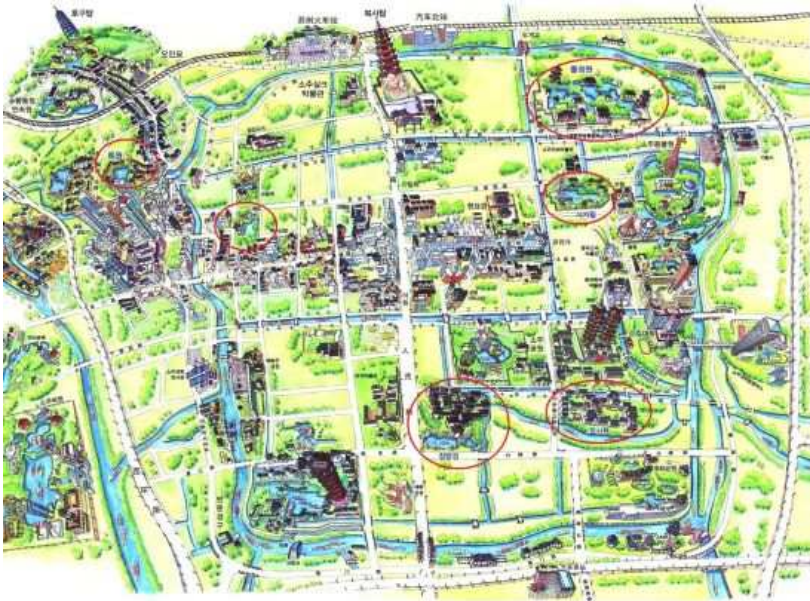


강남원림(江南園林)의 분포도

다.

강남 지역의 사가원림은 중국 정원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지역은 예로부터 상업이 발달했고, 부유한 상인과 문인, 은퇴관료들이 많이 거주했다. 이러한 지역적 특징이 강남 특히 그 중에서도 소주 지역에서 사가원림이 발달한 배경이다.

강남원림(江南園林) 중에 명원(名園)으로 꼽히는 것은 수없이 많다. 그 중 대표적인 곳으로 졸정원(拙政園), 사자림(獅子林), 우원(耦園), 망사원(網師園), 창량정(滄浪亭), 환수산장(環秀山莊), 예포(藝圃), 유원(留園), 퇴사원(退思園), 침원(瞻園), 후원(煦園), 편석산방(片石山房), 기소산장(寄嘯山莊), 개원(個園), 평산당서원(平山堂西園), 기창원(寄暢園), 추하포(秋霞圃), 고의원(高琦園), 예원(豫園), 곡수원(曲水園), 취백지(醉白池), 소련장(小蓮莊), 기원(綺園), 곽장(郭莊), 서령인사(西泠印社), 난정(蘭亭) 등을 꼽을 수가 있다(최부득. 2008. 『건축가가



소주의 고전원림 분포도

찾아간 중국정원 - 강남 원림건축 26곳』 미술문화).

강남(江南) 중“동방의 베니스”라고 불리는 소주는 수로가 잘 발달되어 물을 쉽게 끌어다 쓸 수 있는 곳이었다. 또 전국시대부터 발달한 건축기술, 그리고 정원을 장식하는데 적격(適格)인 태호석(太湖石)이라는 재료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점, 대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자연환경 등은 정원이 있는 저택을 만들기 유리한 조건을 갖춘 곳이 바로 소주였다.

소주의 고전원림은 주택과 화원이 함께 자리한다. 주택은 강남 고대 건축의 정화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화려하면서도 웅대하다. 화원부분은 대자연의 아름다움의 축소하여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래서 소주의 고전원림을 거닐다 보면 이르는 곳 마다 대자연의 정취와 문화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소주의 정원은 명청대(明清代)에 와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다. 그래서 이 시기에 많은 원림 예술가와 유명한 원림 건축물을 탄생시켰다. 대부분의 중국 고대 원림 설계사들은 시와 그림에 능(能)하는 등 높은 문화적인 수양을 갖추고 있었다. 그들은 시(詩)적인 정취와 그림 같은 경치를 추구하기 위하여 연못을 파고 산을 만들고 꽃과 나무를 심도록 정원을 설계하였다. 그래서 소주의 고전원림은 <소리 없는 시, 입체적인 그림>으로 불리기도 한다.

문화의 중심지가 된 소주는 1860년 태평군(太平軍)의 도시 장악과 1863년 찰스 고든(Charles Gordon)의 상승군(常勝軍)이 도시를 탈환하는 과정에서 일부 피해를 입었다. 또한 1937년 일본군의 침략으로 많은 정원들이 황폐해졌지만 다른 지역에서처럼 전란(戰亂)의 피해를 심하게 입지는 않았다. 전쟁이 발발하였을 때도 정복자들은 소주정원의 아름다움을 알고 이곳만을 파괴시키지 않았다.

그래서 <강남원림갑천하(江南園林甲天下) 소주원림원갑원(蘇州園林甲江南)>라는 말이 생겨났다. 즉 강남의 정원이 천하 으뜸이고, 소주 정원이 강남의 으뜸이라는 말이다. <인간천당(人間天堂)>이라고도 불리는 소주는 이처럼 고전원림으로 유명한 곳이다. 소주에는 명대(明代)에 조영된 것이 272개, 청대(清代)의 것이 130개가 있었다. 그러나 소주고성(蘇州古城)내에는 현재 69곳에 달하는 고전

원림이 완전하게 보존되어 있다.

이들 중 창랑정(滄浪亭), 사자림(獅子林), 졸정원(拙政園) 그리고 유원(留園)은 각 시기별, 즉 송(宋:960 ~ 1278), 원(元:1271 ~ 1368), 명(明:1368 ~ 1644), 청(淸:1644 ~ 1911)이라는 4개 왕조(王朝)의 대표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곳이다. 그래서 이들을 소주의 4대명원(蘇州 四大名園)이라 칭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서는 소주 고전원림의 설계 이념을 높이 평가하여 1997년 12월 4일 졸정원(拙政園)과 망사원(網師園), 유원(劉園), 사자림(獅子林)을 <소주(蘇州) 전통정원(Classical Gardens of Suzhou)>이라는 이름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였다. 또 2000년 11월 30일 창랑정(滄浪亭) 등 5곳을 추가로 지정하면서 <소주(蘇州) 전통정원>으로 지정된 곳은 모두 9곳에 이르게 되었다. 이들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소주(蘇州) 전통정원>

지정번호	명칭	면적	지정일
813-001	졸정원(拙政園)	5.195 Ha	1997.12.4
813-002	유원(留園)	2.331 Ha	1997.12.4
813-003	망사원(網師園)	0.54 Ha	1997.12.4
813-004	환수산장(環秀山莊)	0.218 Ha	1997.12.4
813-005	창랑정(滄浪亭)	지정면적:1.174 Ha완충지대: 16.362 Ha	2000.11.30
813-006	사자림(獅子林)	지정면적: 0.874 Ha완충지대: 4.79 Ha	2000.11.30
813-007	예포(藝圃)	지정면적: 0.38 Ha완충지대: 1.117 Ha	2000.11.30
813-008	우원(耦園)	지정면적: 0.789 Ha완충지대: 3.039 Ha	2000.11.30
813-009	퇴사원(退思園)	지정면적: 0.421 Ha완충지대: 1.531 Ha	2000.11.30

5. 중국 대운하(경항대운하)

(병)Da yunhe (웨)Ta yünhe (영)Grand Canal.

중국 북부 저장 성[浙江省]의 항저우[杭州]와 베이징[北京]을 잇는 수로. 총길이가 1,700km를 넘는 이 운하는 세계에서 가장 긴 인공(엄밀히 말하면 전부 인공은 아님) 수로이다. 대운하는 중국의 역대 왕조들이 양쯔 강[揚子江]과 화이하 강[淮河] 유역에서 수도 베이징까지 식량과 생활필수품을 수월하게 운반하기 위해 건설했다.

대운하 중에서 가장 먼저 건설된 부분은 양쯔 강에서 장쑤 성[江蘇省]에 있는 도시 칭장[清江]까지이다. 칭장은 원래 황허 강[黃河] 유역에 있었지만, 그 후 황허 강이 훨씬 더 북쪽으로 진로를 바꾸면서 강과 거리가 멀어졌다. 이 구역은 전통적으로 산양(山陽)운하라고 불리다가 수백 년 전부터 난[南] 운하라고 불리고 있다. 이 오래된 수로는 BC 4세기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되며, 그 후 607년에 재건되어 오늘날까지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수나라(隋: 581~618)는 607~610년 최초의 대운하망을 건설했는데 황허 강(이때는 황허 강이 북쪽을 지나고 있었음)에서 화이하 강까지 이어지는 북서-



수양제가 뚫은 대운하

남동 방향의 수로를 만들었다. 이 새로운 벤[] 운하는 당대(618~907) 내내, 그리고 송대(960~1126) 초기까지 가장 중요한 수로로 기능을 발휘했다.

원나라(1271~1368)가 출범한 뒤, 수도인 베이징에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 또다시 대규모 수송망을 확립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그래서 원은 1282~83년 황허 강과 산둥 성[山東省] 북쪽의 다칭 강[大

清河]을 잇는 새로운 운하를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이때 황허 강은 1195년부터 남쪽으로 진로를 바꾸어 칭창 밑에 있는 옛 화이허 강 어귀를 침범하고 있었다. 원은 바다로 나가는 출구를 확보하기 위해 다칭 강의 바닥을 준설했지만, 다칭 강 어귀에는 금방 또다시 토사가 쌓이곤 했다. 칭다오[靑島] 항구에서 시작하여 현[掖縣]까지 이어져 산둥 반도[山東半島]를 가로지르는 대체(代替) 수로도 역시 실용성이 없다고 판명되어 계획을 포기했다. 결국 황허 강 유역의 동안진[東安鎭]과 웨이허 강[衛河] 유역의 린칭[臨淸]을 잇는 새로운 후이통[會通] 운하가 건설되었다. 오늘날의 대운하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원대에는 운하 수송이 값비싸고 비효율적이어서 대부분의 식량은 바다로 운반되었다.

명(1368~1644) 초기의 수도 난징[南京]에서 1403년 베이징으로 수도를 옮긴 뒤부터 대운하를 이루고 있는 모든 운하(웨이허 강 유역의 린칭에서 황허에 이르는 부분도 준설했고 개수하여 다시 사용함)는 19세기까지 계속 기능을 발휘했



명청대의 대운하

다. 대운하는 6개의 주요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① 베이징 주변에서 통 현[通縣]에 이르는 짧은 수로, ② 바이허 강[白河]과 톈진[天津]을 잇고 다시 웨이허 강 유역의 린칭까지 운하를 파서 이어지는 강, ③ 산둥 성에 있는 구간(이 구간은 상류에서 운반되어 쌓인 토사 때문에 비교적 바닥이 높으며, 린칭에서 시작하여 지닝[濟寧] 근처에서 바닥이 최고로 높아졌다가 쉬저우[徐州] 근처에서 다시 낮아지는 이 까다로운 수로에 수많은 갑문과 댐을 설치하여 타이산 산[泰山]에서 흘러나오는 수많은 작은 강과 지닝 남동쪽의 호

수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이용하고 있음), ④ 쉬저우에서 황허 강의 남쪽 진로를 따라 칭장까지 뻗어 있는 구간, ⑤ 칭장에서 옛 산양 운하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 양쯔 강 유역의 진장[鎮江]까지 이어지는 구간, ⑥ 양쯔 강 남쪽 구간(장난[江南] 운하라고 부르는 이 구간은 총길이 약 320km로 양쯔 강에서 남동쪽으로 흐르다가 쑤저우[蘇州]에서 남서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항저우까지 이어짐)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19세기에 몇 차례의 대홍수로 황허 강(황허 강은 이때부터 지금의 북쪽 진로로 서서히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음)의 제방이 무너져 쉬저우와 칭장을 잇는 운하에 큰 문제를 일으켰고, 린칭과 지닝 사이의 운하가 끊어졌다. 태평천국운동(1850~64)과 염군(捻軍)의 난이 일어난 뒤 베이징에 식량을 공급하는 주요보급로로 운하를 이용하는 것은 단념할 수밖에 없었고, 운하의 북쪽 구간은 차츰 황폐해졌다. 1934년부터 국민정부는 칭장과 양쯔 강 사이의 운하를 수리하기 시작했다. 중간급 기선들의 운항을 위해 운하 바닥을 깊게 파고 대규모 개축공사를 벌였으며 갑문도 여러 개 만들었다.

1958년 공산당 정부는 대운하 전체를 600t급 선박이 다닐 수 있는 수로로 복구하기 위해 새로운 공사를 시작했다. 1958~64년 대운하를 넓히고 준설하여 더욱 보강했으며, 64km 길이의 새로운 운하를 만들고 근대식 갑문을 추가로 설치했다. 지금은 중간급의 화물선이 대운하의 어느 수로로나 마음대로 다닐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교통량은 대부분 남쪽에 집중되어 있다. 이 운하는 또한 양쯔 강의 물줄기를 북쪽의 장쑤 성으로 돌려주는 일도 한다. 이 관개시설 덕분에 장쑤 성에서는 벼의 이모작이 가능해졌다.

※ 대륙 통치엔 강력한 수단...해양강국 포기 '족쇄'

주경철(서울대학교 교수)

모든 문명이 해결해야 하는 핵심 과제인 치수(治水) 문제에서 가장 성공한 사례는 중국의 대운하 건설이다. 대운하는 미국 뉴욕에서 플로리다까지의 거리에 해당하는 장장 1600km 길이로 인간이 만든 가장 긴 수로다. 깊이 3~9m, 최대 폭 30m의 이 운하는 60개의 교량과 24개의 갑문(閘門)으로 해발고도 차이와 수위를 조절했다.

중국에서는 기원전 5세기부터 여러 지방에서 운하들이 불연속적으로 건설됐다. 진 제국이 성립된 이후 기존 운하들을 연결하고 여기에 새로운 운하들을 추가로 건설하는 작업도 이뤄졌다. 이후 수나라 때인 610년에 대운하가 사실상 완성됐다.

수 제국은 500만명의 남녀 노역자를 가혹하게 몰아붙여 단 6년 동안 무서운 속력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운하 건설은 만리장성 축조보다 더 힘든 사업이었다. 이 일에 동원된 사람들은 맨손에 삽 하나로 작업을 했으며, 그런 가운데 수십만명이 목숨을 잃었다.

대운하는 황허(黃河)와 양쯔강(揚子江, 長江)이라는 두 강과 그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세계 최대의 내륙 수상 운송 네트워크다. 사실 북부 중국의 황허 유역과 남부 중국의 양쯔강 유역은 상이한 별개의 문명권이라 할 수 있다. 중국 문명이 처음 탄생한 황허 유역은 빙하가 물러나면서 생긴 퇴스(loess)라 불리는 누런 옥토(沃土)로 덮여 있었다. 이 퇴스 성분이 강물에 들어가 세계에서 가장 탁한 강물이 됐다. 이 침전물이 하류 지역에 쌓여 황허가 자주 범람하는 것이 역대 제국의 주요 고민거리였다. 북중국 고원지대의 비옥한 토양에서 풍부한 강물을 이용해 수수를 경작하며 황허 문명이 발달했다.

반면 양쯔강 유역은 원래 거대한 늪지여서 문명화된 대규모 정착 사회가 형성될 수 없는 곳이었다. 그러나 점차 건조화가 진행되고 벼농사 기술이 발전해 결국 이곳이 중국 최대의 식량 생산지역으로 발전했다. 대운하는 이 두 지역을

연결시켰다. 남중국의 테라스식 언덕배기 논에서 생산한 쌀은 내륙 수로를 통해 황허 유역에 위치한 대규모 인구 중심지와 군대에 송출됐다. 이렇게 해서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 단일한 전국시장으로 통합됐고, 북방의 호전적 기마 유목민들의 지속적인 위협을 막을 수 있었다.

운하가 중국 통합성의 핵심 요소라는 점은 로마제국과 비교하면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로마제국에는 중국의 수로와 같은 통합 추진력 요소가 없었다. 유럽의 주요 수상 동맥이라 할 수 있는 다뉴브강과 라인강은 유럽 문명의 초기 허브(hub) 지역인 로마로부터 멀리 떨어져 흐르기 때문에 제국의 통합성을 가져다주지는 못했다. 한편 지중해는 개방된 바다이므로 강에 비해 통제가 훨씬 어려웠다.

이 때문에 로마제국이 무너지고 이후 유럽 대륙은 상호 경쟁하는 다수의 국가들이 분립하는 상태가 됐다. 반면 중국은 로마와 동시대의 제국인 한나라가 멸망한 이후에도 계속 통합적인 제국을 이룰 수 있었다.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런 강력한 통합성이 근대에 중국이 세계사 무대에서 뒤처지는 결과를 낳았다. 대운하는 제국의 생명선인 쌀 운송을 원활하게 했고, 조세 수취인·관료·군인들의 이동이 편리해 중앙정부의 통치에도 큰 도움이 됐다. 운하는 해적이 들끓는 해로를 대신해 제국 전체의 수송을 책임졌다. 중국은 굳이 바다로 나갈 필요가 없었으므로 갈수록 내향적(內向的)이 됐다.

원래 중국이 바다로부터 절연된 것은 아니었다. 명대 초까지 중국은 동남아시아나 인도양 연안 지역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었다. 아프리카 해안까지 대규모 함대가 항해한 유명한 정화의 원정(1405~1433)은 명나라 초 중국의 해상력이 세계 최강의 수준에 도달해 있었음을 증언한다.

그런데 1433년을 기점으로 중국이 급작스럽게 해상 세계와 절연하고 스스로 문을 닫아걸었다. 황제는 칙령을 통해 중국인의 해외 항해 및 외국인과의 접촉, 원양항해 선박의 건조를 금했다. 심지어 마스트 2개 이상의 배도 금지할 정도였다. 정화의 거대한 전함들은 방치돼 썩었다. 해군에 종사했던 선원들은 대운하를 오가는 작은 배로 옮겨 탔다. 중국은 자신의 해상 권력을 스스로 포기하고 세계사의 큰 흐름에서 멀어져갔다.

아마도 북방 유목민족의 침입에 대비하려는 것이 해금(海禁) 정책을 취한 중요한 요인이었을 것이다. 하여튼 중요한 점은 중국이 바다를 버리고도 거대한 제국을 훌륭하게 운영할 능력을 구비했기 때문에 그런 방향전환이 가능했다는 사실이다.

1411년 새로운 대운하가 완성됐다. 수로는 베이징 너머로까지 확대됐고, 갑문 체제가 더욱 발달해 이제 건기에도 고산지대의 최고점에 달하도록 충분한 물을 대서 연중 운항이 가능해졌다.

대운하는 양면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우선 제국의 중앙집권을 더욱 강화시켰다. 제국의 경제와 행정이 잘 운영됐다는 점은 기근이 들었을 때 운하로 곡물을 날라 굶주리는 백성들을 구휼하는 탁월한 시스템이 갖춰졌다는 데에서 알 수 있다. 반면 이런 체제는 내부 혁신성을 떨어뜨리고 외부와 단절시키는 결과도 가져왔다. 황제와 그 주변의 보수적인 신유교 관료들은 지주계급과 결탁해 상인층을 힘으로 억눌렀다. 또 과도하게 자족성을 고집하다 보니 결국 세계와 단절됐다. 바다라는 중요한 무대를 스스로 버린 이후 중국 해안지역은 당장 왜구의 침탈에 무방비 상태가 됐다.

길게 보면 1839~1842년의 아편전쟁 중에 영국의 증기선 포함(砲艦)들이 이 무력한 제국의 내부로 밀고 들어온 것도 먼 연원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6. 물길 좋은 중국운하, 720년의 운명

중국 물동량에서 내륙 수운 5%... "사실상 물류 기능 상실"

중국에서 화둥으로 불리는 상하이·지양쑤·저지양의 지형을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물길이다. 지형의 고도도 파악할 수 있는 구글 어스에서 이 지역을 마우스로 휘저으면서 고도를 파악해보면 대부분 3~4m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이 지역을 다니다보면 수로가 도로망처럼 뻗어있다.

그야말로 물길을 내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사실 물길을 내서라도 흙을 확보해야만 농토나 택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곳이 이 지역이다. 조우주왕이나 통리·우전·시탕 같은 수백 년된 수향들도 이런 수로를 통해 발전해 왔다.

이 때문에 크고 작은 수로는 고대부터 가장 중요한 운송수단이었다. 중국 역사상 가장 큰 공사 중 하나로 꼽히는 경항운대하(베이징-항저우를 잇는 운하로 총 길이는 약 1,794km며 위·오·촉의 삼국시대부터 만들어졌다)도 이런 천혜의 조건을 통해 가능했다. 이런 환경이었기에 운하가 중요한 물류수단으로 작용했다.

물론 창지양(양쯔강)을 지나 화이하를 넘으면 조건이 달라진다. 화이하의 중심호수인 홍저후도 고도 12m 정도로 창지양과 큰 차이가 있다. 이 물길은 고도 31m의 후이산후에 가면서 곤란을 겪는다. 이후에 저수지이자 물길의 역할을 하는 난양후에서는 다시 12m로 낮아지지만 동평후에서는 40m로 높아진다. 이후 경항운하는 황허를 만나고 어렵게 이어져 베이징의 루거우치아오에 다다른다.

화려했던 과거... 그러나 내륙 수운 시대는 이미 지났다

중국에서 운하의 공식 역사는 고난 그 자체다. 운하가 최초로 착공된 건 춘추전국시대 노나라의 애공 9년(기원전 486년)이었다. 이후 수 양제 때와 원나라 때 대규모 공사를 거쳐 운하를 완성했다. 수나라 때는 홍저후에서 정저우로 우회하는 길을 택한 반면 원나라 때는 산둥성 서쪽 도시인 지닝 등을 거쳐서

북쪽으로 이어지는 길을 택한 것이다.

운하는 당송 때도 비교적 번성해 중국 문화의 근간이 됐다. <서유기>의 시작 점도 운하로 번성한 양저우 인근이고, <수호지>의 배경인 양산박도 산둥 동쪽 물길인 등평후 인근이다. 실제로 이 도시들은 과거에 번성하면서 물류의 근간 노릇을 했다. 청나라 건륭제도 5차례의 강남 순행 때 운하를 이용했다. 하지만 여러 차례 수해가 반복돼 제방이 터지면서 운하는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이후 중국 역사는 격변기에 들어섰고, 운하의 기능은 정지됐다.

当前位置：[目的地指南](#) >> [山东](#) >> [枣庄](#) >> [京杭大运河](#)

京杭大运河

京杭大运河流经枣庄市西段68公里，与冀、苏、浙、沪等省市相通。通航运输方兴未艾，是京杭大运河南北航运的枢纽。台儿庄船闸是进入山东省的第一座船闸，也是山东省目最大的船闸。沟通南北经济、文化的繁荣，为南北运输的重要码头。



运河的自然风光和十里灌湾的奇特景致融为一体，形成了运河观光线。由此既能北上微山湖观赏万亩荷花，又可南下苏杭领略江南秀色。

[更多景点图片>>>](#)

▲ 경항대운하의 갑문에서 나갈 차례를 기다리는 모습.

운하는 과거에 물류에서 중요한 기능을 했다. 물자가 풍부한 강남에서 베이징으로 향하는 육로가 도둑이나 도로망 부실로 인해 제 기능을 못했기 때문에 경항대운하가 물자운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다. 역대 왕조는 이를 위해 화이안에 조운총독부를 두었다.

경항운하의 베이징 주요 기착점인 빠이허의 경우 한 해 물동량은 최소 1만

5000톤에서 4만5000톤에 이르렀는데, 이는 당시 필요 운수량이 6만5000톤의 절반이 넘는 양이다. 때문에 중국인들은 경항대운하를 만리장성에 버금가는 중국의 인공 공사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중국 내부에서조차 앞으로 운하가 물류에서 의미있는 비중을 차지하리라고 믿는 이를 찾아보기 어렵다.

중국과학원이 발행하는 <중귀귀지아디리>에서는 2006년 5월호에서 경항대운하를 깊이 있게 다뤘다. 하지만 여기서도 초점은 문화적 측면이었으며, 물류기능 재현 부분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이 잡지는 2005년 3월에 남수북조(南水北調)를 다뤘지만 이 때도 물류를 다루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당대 운하가 중국에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사실 중국에서는 운하라는 개념 자체가 이미 상당 부분 소멸했다. 경항대운하는 이제 이름만 남아있을 뿐 물류 기능 자체는 포기한 상태다.

그 말을 대체한 것은 남수북조다. 남쪽의 물을 북쪽에 끌어대는 게 운하의 운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남수북조와 운하는 출발부터 완전히 다르다. 남수북조의 주요 목적은 수자원 이동인 데 반해, 과거에 운하의 중심 기능은 물류였기 때문이다.

운하로 가면 보름, 기차로 가면 9시간

11월 말이 지나면 물이 고갈되어 흐름이 없는 황허의 수자원을 활용하는 베이징·톈진의 물 부족 사태는 이제 코앞에 다가와 있다. 베이징의 경우 이미 수자원이 고갈돼 도시 발전에 치명적인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 비교적 물이 풍부한 창지양의 물을 황허, 나아가 베이징·톈진·스좌장 등 화베이 지역에 공급하는 계획이다. 실제로 중국에서 남수북조를 물류로 보는 의견은 거의 없다. 물길이 물류의 기능을 하리라고 예상하는 이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곳이 항저우와 쑤저우 간이다. 이 두 곳은 육지의 고도 차이 1~2m에 지나지 않은 곳으로 운하 조성이나 관리에 최적지다. 거기

에 두 도시 자체가 큰 규모이기에 물동량이 상당 수준이다. 하지만 이 두 도시 사이의 물류에서 물길이 담당하는 양은 이제 거의 의미가 없는 수준이다.

움직인다고 해봤자 석탄이나 모래 등 속도를 다투기보다는 저렴한 비용 및 생산지와 소비지가 가까워야 하는 점이 더 중요한 품목을 실어 나르는 정도다. 그밖에 항저우-쑤저우 사이에서는 여행의 낭만을 느낄 수 있는 밤배가 오가는 정도다. 고속도로로 달릴 경우 3시간 정도면 닿을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시간이 생명인 현대 물류의 속성상 이 곳의 물길은 거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중귀귀지아디리> 취재진을 만난 운하배의 선장들은 경항대운하의 중복단인 지닝에서 상하이까지 소요시간을 반 달로 보고 있었다. 이 구간의 거리는 약 850km 정도여서, 기차로 이동할 경우 9시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다.

현대 중국이 건설된 후에도 경항대운하가 물류 차원에서 거론되지 않았던 것은 철도나 고속도로 등 다른 교통인프라를 이용했을 때 걸리는 시간이 훨씬 줄어들었고, 바다에서 해적으로 인한 피해가 사라지면서 해로를 이용해 물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중귀귀지아디리> 2006년 5월호 경항대운하 특집에는 경항대운하 전체의 고도가 나와 있다. 경항대운하의 경우 바닥이 가장 높은 산둥성 동쪽 후이통허 구간도 강바닥이 40m를 넘지 않는다. 그럼에도 운하의 효용이 줄어든 후 수로가 완전히 말라버린 곳이 대부분이다.

기자는 2005년 8월 창지양과 대운하 지역을 취재하며 남수복조 문제를 살펴본 적이 있다. 당시 후이통허 중심부인 동평후는 거의 말라 저수지 기능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 동평후로 이어지는 수로엔 이미 수 미터의 나무들이 자라고 있어, 현지인 인터뷰를 통해서야 원래 물길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건립 목적 중 하나가 물류 개선인 쑤샤담이 있는 창지양에서도 최근에는 수량 감소와 상하이 인근의 적체로 인해 수로운송일 경우 창지양 입구에서 대기하는 데만 3~4일이 소모되면서 물류대란이 진행되고 있다.

중국 운하의 중심은 남수복조 기능

이처럼 1만리에 달하는 최고의 수운 자원을 보유한 중국조차 강이나 운하를 통한 물류에는 손을 드는 게 현실이다. 고도차가 크지 않은 이 지역의 갑문에서 대기하는 배들의 상황이 이 정도인데, 고도차가 중국의 2~5배에 달하는 한국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 지는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이 대목에서 한반도 대운하 예정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낙동강 중류인 구미의 경우 고도가 40m가량이고, 문경에 오면 150m에 달한다. 문경에서 충주호까지 직선거리 20km 구간은 해발고도 300m 이상인 지역이 태반이다. 상식적으로 여기는 지하수로를 만들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지하 20km의 수로터널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만든다고 치더라도 엄청난 대공사인데다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또한 이미 중부내륙고속도로가 뚫려 있는 이 구간의 물류에서 운하가 어떤 기능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아울러 짚어봐야 할 문제는 이 구간이 개통됐을 때 어떤 물자가 운하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중국의 경우 경향대운하나 창지양의 수운이 그동안 물류에서 일정한 기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식량이나 나무·모래·철광석 등의 원자재처럼 물류 시간 제약을 적게 받는 자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월수입이 100달러 미만이라도 대대로 그 배를 타온 집안 출신 선장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운송비용을 감당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정도 수준의 임금을 받고 일주일 동안 운하를 떠돌 사람이 한국에 있을지는 의문이다.

중국에서도 물류 문제 해결을 위해 운하를 만들자는 논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산둥반도의 아래쪽 칭다오에서 농업도시인 까오미·창이를 지나 보하이완의 라이저우항으로 이어지는 자오라이운하 건설 논의가 그것이다. 이 운하 건설 논의는 남방의 물자를 바닷길을 통해 북방으로 이동시킬 필요성이 높았던 원 세조(1280년) 때부터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관통 길이는 100km에 달하지만, 이 곳은 이미 대부분 수로가 갖춰져 있고 고도도 10m를 넘는 곳이 거의 없다. 실제로 이 길이 완성될 경우 상하이 등 남방이나 칭다오 등지에서 베이징, 텐진 등 수도권으로 가는 배의 바다길이 600km 정도 단축될 수 있다.



▲ 경항대운하의 중심 기점인 동평후는 수위가 낮아 오염 우려도 높다. 멀리 보이는 것이 2005년 남수복조를 위해 만든 빠리완자(八里灣閘).

왕스청 산둥성 해양 및 어업청 부청장이 2004년 8월 이 운하 건설 필요성을 다시 제기했다. 공사를 구상한 왕스청 부청장은 이 공사를 위해 1000억 위안(한화 약 14조 원) 정도를 들여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의 구상은 물류 기능 뿐 아니라, 이 길을 통해 보하이만과 황해의 물이 쉽게 이동함으로써 해수 순환 기능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다른 안에 비해 실현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이 계획조차 중국 정부는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또한 관련 학계 등에서도 왕스청 부청장의 제안에 선뜻 동의하기보다는 물류 문제 해결을 위해 운하를 건설하는 것이 적절한 방안인지를 두고 논쟁을 거듭하고 있다.

2006년 10월 12일 칭다오)에서 열린 관련 세미나에서는 운하의 실효성, 수질오염 문제, 운하 주변지역 토양 염화, 화물 이동을 위한 동력 문제, 운하 입구의 모래 적체 문제, 자금 마련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와 관련, "현대에 1000억 위안을 들여 운하를 건설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기사도 나오는 등 비판적인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지오라이운하 건설, 1280년부터 논의됐지만

이 논의에서 주목할 대목이 있다. 왕스청 부청장이 제시한 예상 공사비가 한반도대운하의 공사비와 같은 14조원이라는 점이다.

칭다오와 라이저우항은 거리상으로도 100km 정도이고 고도도 10m를 넘지 않음에도 예상공사비는 그렇게 책정됐다. 자오라이운하가 시공될 경우 공사지로 구상된 부분이 이미 상당 부분 강줄기가 형성되어 있는 구간이라는 점에서 낙동강과 충주호 수계를 재활용하겠다는 한반도 대운하와 큰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이 정도 공사비를 책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한반도 대운하와 예상 공사비가 같게 나왔다는 점은 한반도 대운하의 실제 소요 비용이 축소된 것 아닌지 의문이 들게 하는 부분이다.

한반도 대운하의 또 다른 기능은 관광 진흥을 통한 지역발전이다. 사실 중국에는 10000리가 넘는 창지양에 썬샤를 비롯한 무한한 여행자들이 있지만, 썬샤 댐 건설과 같은 개발이 여행객 증가로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반도 대운하가 개발된다 해도, 운하가 해외 관광객들이 해당 지역을 찾게 하기 위해 어떤 유인 요소를 제시할 수 있을지 세밀하게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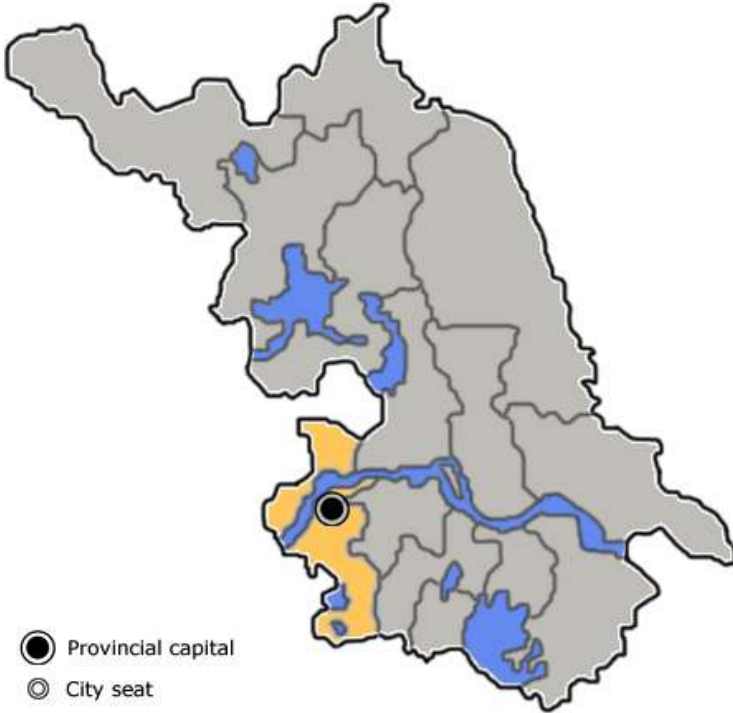
중국전문가인 강효백 경희대 교수는 중국 전체 물동량에서 내륙 수운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강 교수는 인터뷰에서 "1985년까지만 해도 21%였던 내륙 수운의 물동량이 1995년에는 14%, 2005년에는 5%로 떨어져 사실상 기능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에선 상하이나 베이징 등이 세계적인 전시컨벤션 도시로 부흥하고 있다, 대운하보다는 전시컨벤션 기능의 부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여행지로 유명한 조우주왕의 수로. 강남은 도시 내부뿐만 아니라 지역 사이도 수로로 연결되어 있다.

Ⅲ. 난징에서 보는 중국 근현대사

1. 난징(南京, Nanjing) 개관



옛 이름은 건업(建業)이었다. 삼국 시대 오나라(吳)나라의 초대 황제인 손권(孫權)이 이곳에 도읍을 하였으며, 많은 주민들이 이곳으로 이사 와서 거주했기 때문에 삼국시대 위(魏)나라의 수도인 낙양(洛陽) 다음으로 변창한 도시였다. 서진(西晉)이 흉노 출신의 유연(劉淵)이 세운 한(漢 - 전한, 후한과는 관련이 없다.)나라에 멸망했다는 소식이 건업의 진 황족인 사마예(司馬睿 - 동진[東晉]의 초대 황제)에게 전해진 직후, 휘하 심복들과 호족들의 뜻을 모아 즉위하고 동진을 세웠다. 원제(元帝) 사마예(司馬睿)는 서진의 마지막 황제 민제(愍帝) 사마업

(司馬鄴)의 업(鄴)이 건업(建業)의 업과 음이 같다 해서 이를 피하기 위해 건강(建康)이란 지명으로 고쳤고 송(宋), 원(元) 시대까지 계속 쓰였다. 이후 진(晉)·송(宋)·양(梁)·진(陳)에서 이곳을 수도로 삼았으며 당나라 시대에는 금릉(金陵)으로 불렸다. 원나라 때에는 집경(集慶)으로 불리다가 1356년 주원장이 이곳을 점령한 이후 이름을 응천부(應天府)로 고쳤다. 명이 건국된 이후 응천부에서 남경(南京)으로 고쳤고, 1378년 정월 정식으로 수도가 되면서 경사(京師)로 이름을 바꾸었지만, 영락 원년 다시 남경(南京, Nanjing)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1853년 기독교 성격의 사회운동인 태평천국운동의 지도자 홍수전이 이곳에 들어와 수도로 삼고 천경(天京)이라 하였다. 쑨원의 중화민국도 이곳에서 처음 일어났고 1928년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의 수도가 되었다. 1937년 일본군의 침공으로 대 참살극인 난징 대학살이 벌어지기도 했다.

1940년 3월에 중화민국 국민정부 충칭으로 후퇴하면서 새로 수립된 국민정부(왕징웨이 정권)의 수도가 되었다. 이후 중일전쟁에서 승리한 장제스 정부는 수도를 다시 난징으로 이전하였다. 1949년 10월 1일에 국공내전에서 승리한 중국 공산당의 주도하에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되면서 직할시가 되었고, 1953년에 장쑤 성의 성립과 함께 성도가 되었다. 1994년에는 부성급시로 승격되었다.

지리

전체 면적 6,501km²에 중국에서도 가장 큰 경제권인 양쯔강 삼각주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다. 양쯔강은 도시의 서쪽을 흐르고 북쪽, 남쪽, 동쪽은 ning 정 산지가 둘러싸고 있다. 난징은 상하이에서 서쪽으로 300km, 베이징에서 남쪽으로 1200km, 충칭에서 동쪽으로 1400km 떨어져있다.

기후

난징은 다습한 아열대성 기후로 동아시아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다. 난징은 사계절이 뚜렷하고 여름은 덥고 비가 많이 온다. 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여름 때문에 난징은 우한과 충칭과 함께, "장강 유역 3대 화로(长江流域三大火炉) 도시

"로 불린다.

자원

난징은 천연 자원이 풍부하고 40종류가 넘는 자원이 매장되어있다. 철과 황의 매장량은 장쑤 성 전체 매장량의 40%를 차지한다. 스트론튬의 매장량은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통틀어 1위이다. 난징은 또한 양쯔 강과 지하수를 통해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게다가 장녕의 탕산 온천, 푸커우의 탕취안 온천을 비롯한 몇 개의 천연 온천이 있다.

주민

2007년 난징 시의 주민 등록 인구는 618만 명이다. 출생률은 8.75%이고 사망률은 6.27%이다. 난징은 51개 민족이 거주하며 한족이 98.56%를 차지한다. 1999년 소수 민족은 77,394명으로, 그중 후이족이 64,823명으로 소수 민족 인구 중 83.76%를 차지한다. 그리고 만주족이 2311명, 좡족이 533명이다. 소수 민족의 대부분은 쟈예 구에 거주하며 구 인구의 9.13%를 차지한다. 2003년 도시의 성비는 여자 100명 당 남자 106.49명이었다.

경제

삼국 시대 이래로 난징은 전략적인 지리적 위치와 편리한 교통 때문에 방직과 조폐 산업의 중심지가 되었다. 명나라 때 난징의 산업은 더욱 확장되었고 도시는 중국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번영하는 도시가 되었다. 방직, 조폐, 인쇄, 조선과 많은 다른 산업들은 난징을 극동 아시아에서 가장 변화한 업무 중심지로 성장시켰다.

20세기의 첫 50년간 난징이 잠시 동안 중국의 정치 중심지의 지위를 회복하자 부유층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난징을 생산 중심에서 대량 소비도시로 점차 변모시켰다. 중앙 상창과 같은 수많은 거대한 백화점이 생겨났고 중국 전역의 상인들이 자신의 물건을 팔기 위해 난징으로 모여들었다. 1933년에는 식품과 오락 산업에서 발생한 세입이 농업과 제조업에서의 산출량

합계를 초과하였다. 도시 인구의 3분의 1이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였고 매춘, 마약, 도박 또한 성행하였다.

1950년대에 중국 공산당은 빠른 산업화를 위한 국가 계획의 일환으로 국가 소유의 중공업을 세우기 위해 난징에 많은 투자를 하였다. 전기, 기계, 화학, 철강 공장이 연이어 세워졌고 동아시아 중공업 생산 기지로 변화하였다. 세계적인 수준의 산업 도시를 건설하려는 난징 지도자들의 지나친 열정은 석탄이 없는 광산에 수 백만 위안을 투자하는 등의 재앙적인 실수를 불러일으켰다. 그 결과 1960년대에 난징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현재 산업은 1960년대의 특성을 이어받은 것으로 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전력 산업이 5개의 기둥 산업을 이룬다. 대표적인 거대 공기업으로 판다 전자, 진청 자동차, 난징 철강이 있다. 3차 산업 또한 예전의 명성을 되찾고 있고 도시 GDP의 44%를 차지한다. 난징은 양쯔강 삼각주에 위치한 이웃 도시들과 외국인 투자를 놓고 경쟁하고 있고 폭스바겐, 이베코, A.O 스미스, 샤프와 같은 수많은 유명 다국적 기업들의 지부들이 세워져있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래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가하였고 평균적으로 매일 두 개의 새 외국 회사의 지부가 세워지고 있다.

시 정부는 도시를 투자하기에 더욱 적합하게 하기 위해 4개의 공업 단지(가오신, 신강, 화공, 장닝)를 건설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난징의 국내총생산은 외국인 투자 유치와 지방 혁신이 더 앞서있는 쑤저우, 우시, 항저우에 뒤처져 있다. 게다가 전통적인 공기업은 효율적인 다국적 기업에 상대가 되지 않았고 그 결과 거대한 부채의 수렁에 빠지거나 파산 혹은 민영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 결과 기술적으로는 실업 상태가 아니지만 사실상 직업을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휴업 노동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최근에 난징은 경제, 상업, 공업과 도시 건설이 발전하고 있다. 2008년 난징의 총 GDP는 3775억 위안(553억 달러)로 장쑤 성에서 3위이고 1인당 GDP는 2007년에 비해 12.1%증가한 50327위안(7369달러)이다. 도시 거주자의 평균 가처분 소득은 23123위안이고 농촌 거주자의 평균 순이익은 8951위안이다. 도시 실업률은 3.16%로 국가 평균 실업률 4.2%에 비해 낮다. 난징의 2008년 GDP

는 중국 전체에서 17위를 차지했고 종합 능력은 9위를 차지했다.

한편, 난징은 대안(對岸)의 푸커우[浦口]와 더불어 예로부터 양쯔강 하류의 도하지(渡河地)의 구실을 담당해 온 하항(河港)으로, 수륙교통의 접촉지가 되어 왔으며, 오늘날 진푸[津浦:天津~浦口]·후닝(上海~南京)·닝우[寧蕪:南京~蕪湖] 3철도의 분기점이고, 또 후닝(상하이~난징)·닝항(寧杭:난징~항저우)·닝우(난징~우후) 등 주요 공로(公路)의 기점으로, 육상교통과 양쯔강의 수상교통이 여기서 연결된다. 북쪽 성외(城外)의 샤관[下關]에서의 양쯔강의 수심은 10m 전후로, 연중 기선이 정박할 수 있으며, 그곳에 철도역·선착장(船着場)을 중심으로 창고가 밀집해 있다.

한편, 1968년에 대안(對岸)의 푸커우와의 사이에 철교와 도로교로 된 2층 구조의 창장대교[長江大橋:6,700m]가 개통되어, 종래의 철도 및 도로 교통의 장애를 해소하게 되었다.

난징은 화중(華中) 지방의 학술·문화의 중심지로서, 난징대학[南京大學]을 비롯한 고등교육기관 외에 과학원분원(科學院分院) 등 연구기관과 쓰진산천문대·난징박물관·도서관 등이 있다. 또 난징은 그 역사적 배경으로 인하여 명승고적이 풍부하기로도 유명하다. 쓰진산 남쪽에는 쑨원[孫文]의 묘소인 중산릉(中山陵)이 있고, 그 서쪽에 명나라 홍무제(洪武帝)의 효릉(孝陵)이 있다. 그밖에 위화타이[雨花臺]는 쉬안우호·칭량산[淸涼山]·지명사[鷄鳴寺] 등과 더불어 명승지를 이룬다.

2. 잔위안태평천국기념관(瞻园太平天国纪念馆)



중국 장쑤성[江蘇省] 난징[南京]의 푸쯔묘오[夫子庙]에 위치한 박물관.

잔위안은 난징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의 강남명원(江南名園)이다. 본래 주원장(朱元璋)이 황제가 되기 이전에 사용하던 왕부(王府)이며, 당시에는 우왕부(吳王府)라고 하였다. 주원장이 황제에 등극한 후 황궁을 새로이 지으면서, 공신(功臣)이었던 중산왕(中山王) 서달(徐达)에게 하사하였다.

태평천국(太平天国) 시기에는 양수청(杨秀清)의 동왕부(东王府)로 사용되었다. 원내에 있는 태평천국기념관(太平天国纪念馆)은 본래 동왕(东王) 양수청의 저택이었다. 1951년 태평천국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개관하였고, 전국에서 유일한 태평천국전사박물관(太平天国专史博物馆)이다.

한편 이싱에는 태평천국왕부(太平天国王府)가 있다. 이 집은 청대(清代)에 축조되었다. 본래는 사씨(史氏)의 저택이었으며, 청(淸) 1860년에 태평군(太平军)이 이싱[宜兴]을 공격한 후 보왕(輔王) 양푸청[杨辅清]의 저택으로 사용되었다.

나중에는 충왕(忠王) 리슈청[李秀成]의 여행 중 임시 거처로도 이용되었다. 현재 3채의 건물이 남아있으며, 모두 잉산탕[硬山頂] 형식을 갖추고 있다. 정팅[正廳]의 양쪽 벽면에는 각각 4폭의 벽화가 있고, 세 번째 건물의 정팅[正廳] 1칸에도 4폭의 벽화가 있으며 모두 태평천국시기의 작품이다.

3. 태평천국의 봉기

가. 배경

1) 사회적 배경

제1차 아편전쟁의 패배로 청조의 권위가 흔들리고, 영국에 지불해야 하는 배상금의 부담¹⁾과 아편수입의 증가로 인한 은(銀)의 유출²⁾은 경제적으로 백성들을 궁핍하게 하였고, 이 시기 양쯔강(揚子江) 이남의 지역에서는 수해(水害)·가뭄·풍해(風害)·충해(蟲害) 등이 기승을 부린데다가 재정난과 관료의 무기력에 의한 관개치수의 방치가 어우러져 각 지역에 대재해를 일으키기도 하였고, 전쟁에 참여하였던 부패한 군대가 국지적 소요를 벌이기도 하여 사회불안은 가중되었으며, 영국에 대항하기 위해 고용되었던 향용(鄉勇) 또한 해산당하여 다수가 토비로 생계를 이어가는 등 사회질서 전반에 걸쳐 이완현상이 가속화되어 다방면에서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었다.



홍수전(洪秀全)

2) 홍수전(洪秀全)과 배상제회(拜上帝會)

- 1) 배상금과 전쟁비용 등을 포함하여 청조는 세입의 2.5배에 상당하는 9,000만 냡을 지출하였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 장쑤성(江蘇省)·저장성(浙江省)·광둥성(廣東省)·안후이성(安徽省) 등지에서 세금을 가혹하게 거두어들였다.
- 2) 청조가 제 1차 아편전쟁에서 패한 후 노골적 아편밀수는 증가하여 1851년에는 55,000 상자에 달함으로써 이 한해만으로 세입의 절반 이상의 은(銀)이 유출되었다.

태평천국(太平天國)을 세운 홍수전(洪秀全)은 광둥성(廣東省) 광저우(廣州)에서 북쪽으로 30km 떨어진 화현(花縣)에서 자작 소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7세에서당에서 공부를 시작하였고, 1827년 14세 때 처음으로 광저우(廣州) 부시에 응시했으나 대다수 지원자들과 마찬가지로 생원 자격시험에 낙방했고, 1836년에 재차 응시했으나 또 다시 실패했다. 그런데, 이 시험을 보기 위해 광저우(廣州)에 왔을 때 우연히 영국 장로교 소속 선교사 모리슨(R.Morrison)이 구약성서의 중요문구를 발췌한 것을 양아발(梁亞發)이 중국어로 번역·출판한 『권세양언(勸世良言)』³⁾을 읽게 되었는데, 이 책이 홍수전(洪秀全)과 중국의 미래의 운명을 바꾸어놓게 된다.

또한 홍수전(洪秀全)은 당시의 유명한 학자 주차기(朱次琦)로부터 공양전(公羊傳) 해설과 주석, 그리고 『예기(禮記)』의 「예운(禮運)」과 「대동(大同)」편에 대한 설교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홍수전(洪秀全)은 유교사상과 기독교를 융합하여 상제(上帝)의 천지창조와 유일신 사상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꿈속에 나타난 노인이 하느님인 상제(上帝)이고, 중년 남성은 '천형(天兄)'인 예수였다며 스스로를 예수의 동생이라고 칭하고 인류를 구제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1843년부터 전도활동을 시작했다.

홍수전(洪秀全)은 고향친구인 풍운산(馮雲山)과 사촌인 홍인간(洪仁玕)을 개종시켜 유일신인 여호아만을 섬기기로 하고, 교의에 충실하기 위해 공자의 위패를 파괴하는 등 기존 사회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여, 배상제회(拜上帝會)는 다른

3) 『권세양언(勸世良言)』은 1832년에 완성되어 광저우(廣州)와 말라카 두 곳에서 출판되었는데, 이 책은 홍수전으로 하여금 종교적 환상을 키우게 한 유일한 문헌이었으며, 1847년 홍수전이 성경 번역본을 입수하기 전까지는 유일한 원천이라고 추측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 책은 그다지 체계적이지는 못하며, 대체로 모리슨과 밀튼이 번역한 성경을 길게 인용하고 나서 양아발이 속어로 주석한 설교문을 달아놓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 책은 신의 전능함, 죄악과 우상 숭배와 같은 타락 그리고 구원과 심판 사이에서의 엄중한 선택 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 책은 중국 전체가 이미 오랫동안 진행된 도덕적 타락으로 인해 재앙에 직면해 있다고 여러 차례 등장하여 정치적 함의를 담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책 전체에 걸쳐 성경 자료들이 무질서하게 배열되어 있는 바람에 구세주의 강령은 과거 어느 한 시점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 아닌 묵시론적인 지상의 위기 상황과 함께 몇 번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인 것처럼 되어있다.

비밀결사들과는 전혀 다른 혁명성을 띄게 되었다.

1844년 4월, 홍수전(洪秀全)은 풍운산(馮雲山)과 고향 화현(花縣)을 떠나 순덕(順德)·난하이(南海)·번우(番禺) 등지를 거쳐 광시성(廣西省) 구이현(貴縣)으로 가서 객가 친척 집에 기거하면서 농민들에게 포교하였다. 그러나 1844년 9월, 홍수전(洪秀全)은 친척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고향 화현(花縣)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고, 풍운산(馮雲山) 또한 같이 가기로 하였으나 인근 구이핑현(桂平縣) 자형산(紫荊山)으로 가서 3,000여 명의 신도를 확보하였고, 신도들을 묶어 여러 촌락을 연결하는 지방 분회망을 자형산(紫荊山)에 두고 여러 주현에 지부를 설치했다.

1845년 홍수전(洪秀全)은 유교사상과 기독교를 융합하여 상제의 천지창조와 유일신 사상을 주장함과 동시에 당시 중국의 암담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천하일가(天下一家)가 모두 태평하여야 한다는 대동사회론(大同社會論)을 강조하는 『원도성세훈(原道醒世訓)』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1847년 3~4월에 그는 홍인간(洪仁玕)과 광저우(廣州)에 가서 미국 침례교 선교사인 로버츠(Issachar. J. Roberts, 羅孝全)에게 가르침을 구해 성경교리를 배웠고, 6월에는 풍운산(馮雲山)과 합세하여 적극적으로 포교활동을 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풍운산(馮雲山)이 포교활동을 하는 동안 홍수전(洪秀全)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원도성세훈(原道醒世訓)』에 이어 『원도구세가(原道救世歌)』·『백정가(百正歌)』·『원도각세훈(原道覺世訓)』 등을 저술하여 배상제회(拜上帝會)의 이론적 기초를 확립하였다.

그리고 홍수전(洪秀全)은 모세의 십계를 모방한 『십관천조(十款天條)』를 지어 상제를 숭배하고 사신(邪神)을 멀리하는 것을 의무로 삼았으며 부모에 대한 효(孝)와 순종을 장려하기도 했고, 사람을 살상하지 못하도록 하고, 간음, 절도, 약탈, 도박, 아편흡입, 음주 등을 금지하였다. 이렇게 종교적 이론과 규율 및 조직을 정비한 배상제회(拜上帝會)는 광시성(廣西省) 동남부에서부터 광둥성(廣東省) 서부 일대로 급속히 확산되어 1849년 중반에 이르면 신도 수가 약 1만여 명에 달하는 종교집단으로 성장했다.

나. 태평천국의 선포

1) 태평천국(太平天國)

우상을 파괴한다며 공자(孔子)묘와 사당을 훼손하고 만민평등(萬民平等)을 주장하는 배상제회(拜上帝會)의 교리와 활동은 기존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특히 지주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지주들은 배상제회(拜上帝會)가 1847년 10월 28일 상저우(象州)의 감왕묘(甘王廟) 신상(神像)을 파괴한 사건을 계기로 단련(團練)을 조직하여 배상제회를 공격하기 시작하였고, 1848년 1월에는 풍운산(馮雲山)을 체포하였다. 이후 배상제회(拜上帝會)는 풍운산(馮雲山)을 구출하고 이를 계기로 무력을 강화하여 정치운동의 성격이 더 높아졌다.

1850년 7월 여름, 광시성(廣西省) 각 현(縣)과 신도들은 일가의 남녀노소가 각지에 모여 무장을 하고, 변발(辮髮)을 장발(長髮)로 고쳐 반청의지와 청조타도



홍수전(洪秀全)

의 의지를 표시하였다. 그리고 홍수전(洪秀全)을 비롯한 배상제회(拜上帝會) 지도부는 광시성(廣西省) 서강(西江) 근처 구이핑현(桂平縣)의 진텐촌(金田村)에 집결하도록 명하였다. 신도들이 모이자, 집단은 남군과 여군으로 나뉘어져 부부의 만남도 금지하는 등, 엄격한 군률(軍律)이 결정되었고, 군자금과 급양과 소유재산은 모두 『성고(聖庫)』⁴⁾에 기탁하여 의

4) 성고(聖庫)는 신도들이 토지 재산을 처분한 것과 부호로부터 뺀 것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진 공유재산이다.

존하였다. 그리고 전투에서의 전리품의 사유나 명령위반은 엄격하게 처벌되었고, 부상자나 노인도 한사람 빠짐없이 소천당(小天堂)에 이르기까지 서로 돕자는, 고도의 집단주의, 공동주의가 강조되었다.

그리고 이들은 청군과의 전투에서 몇 차례 승전하자 배상제회(拜上帝會) 지도자들은 홍수전(洪秀全)의 38번째 생일인 1851년 1월 11일, '태평천국(太平天國)'을 선포했으며, 홍수전(洪秀全) 자신은 스스로 천왕(天王)이라 칭하고 『군기오조(軍紀五條)』⁵⁾를 반포하여 청조타도를 위한 무장봉기를 선언하였다.

다. 난징 진군

태평천국(太平天國)을 선포한 후, 이들은 청조가 자행한 중국 고유전통의 파괴와 가혹한 수탈과 만행 및 극심한 민족차별정책을 고발하였고, 청조에 대한 저항의 표시로 변발 대신 장발을 하고 전족을 금지하는 등 반만감정(反滿感情)을 불러일으켰다.

이들은 진톈(金田)에서 봉기한 이후 천지회원·백련교도·갱부·궁민층이 대량으로 참가하여 세력이 수만으로 늘어나 호남을 석권하고 양쯔강(揚子江) 하류의 경제 중심지역으로 세력을 확대하기 위해 북상을 시작했다. 홍수전(洪秀全)은 1851년 9월 25일에 광시성(廣西省)의 용안(永安)을 점령하고 『태평천력(太平天曆)』을 반포하였고 1852년 2월 3일을 임자(壬子) 2년 원단(元旦)으로 정하고 관제를 정했으며, 양수청(楊秀清)을 동왕(東王), 소조귀(蕭朝貴)를 서왕(西王), 풍운산(馮雲山)을 남왕(南王), 위창휘(韋昌輝)를 북왕(北王)으로 임명하였

5) 군기오조(軍紀五條)는 다음과 같다.

1. 존조명(尊條命) : 명령에 복종한다.
2. 별남행여행(別男行女行) : 남자와 여자는 같이 다니지 않는다.
3. 추호막범(秋毫莫犯) : 조금도 남의 것을 범하지 말라.
4. 공심하나 각준두목약속(公心和離 各遵頭目約束) : 마음을 합하여 화목하고, 지휘관과의 약속을 준수한다.
5. 동심합력 불득임진퇴축(同心合力 不得臨陣退縮) : 같은 마음으로 힘을 합하여, 싸움에 나가 물러서지 말라.

고, 석달개(石達開)를 익왕(翼王)에 임명하였다.

태평천국(太平天國)군은 1851년 9월부터 1852년 4월까지 용안(永安)에 포위되어있어 청군이 일사분란하게 통솔하기만 했더라도 태평천국(太平天國)군은 상당한 피해를 입힐 수 있었으나, 청군의 무능으로 태평천국(太平天國)군은 포위를 뚫고 탈출하여 광시(廣西)의 성도인 구이린 성(桂林城)을 포위 공격하였다.⁶⁾ 그러나 구이린 성(桂林城) 함락을 실패하자, 북동쪽 후난(湖南)의 변경 지역 방면으로 이동했다. 그런데, 1852년 6월 10일, 신사(紳士) 강충원(江忠源)이 지휘하는 단련(團練)의 습격을 받아 남왕(南王) 풍운산(馮雲山)이 전사하였다. 풍운산(馮雲山)의 죽음과 이 습격은 태평천국(太平天國)군에게 치명적이었으나, 청의 내부에서 청군과 단련 간의 비협조로 틈을 얻어 동쪽의 후난(湖南)으로 도주하였다.



영화 명장, 2007

태평천국(太平天國)군은 후난(湖南)의 지방민들로 병력을 크게 확장하는 한편 삼합회 회원들도 받아들였다. 그리고 태평천국(太平天國)군에게 있어서 후난(湖南)으로의 진출은 광시(廣西)의 수계(水系)를 벗어나 양쯔 강(揚子江) 지류의 수운망으로 들어가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그리고 이들이 난징(南京)으로 진군하는 사이 비교적 소규모의 국지적 반란에서 광대한 화중 지역에서 재물과 병력을 보충하는 대규모 운동으로 변모했다.⁷⁾

6) 태평천국(太平天國)이 용안(永安)에서 국가의 체제를 정비하는 동안 청군이 용안(永安)으로 진군하여 포위하였다.

7) 1852년 9월, 창사(長沙)를 공격할 때, 병력이 12만으로 불어났고, 동정호(洞庭湖)와 양쯔강(揚子江)에서는 20~25만, 우창(武昌)에서는 50만명, 난징 함락 후 약 100만 명으

태평천국(太平天國)군은 1852년 9월 12만의 군대를 이끌고 후난(湖南)의 성도인 창사(長沙)를 포위공격을 하였다.⁸⁾ 그리고 얼마 후 창사(長沙)의 포위를 풀고 후베이(湖北)의 성도인 우창(武昌)으로 쇄도해 그곳을 점령하고 약탈한 뒤 성을 버리고 달아났다. 그리고 이 사건 후 태평천국(太平天國)군의 병력은 약 50만으로 증가했다.

태평천국(太平天國)군은 수륙 두 길을 따라 내려가면서 강에 인접해 있는 수많은 행정 중심지들을 함락시킨 다음 버리고 갔다. (우창(武昌)을 비롯해 함락시킨 도시들마저 버리고 금릉(金陵)의 양쯔강 상류에 대하여 주의해서 지키지 않은 것은 태평천국에게 악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태평천국(太平天國)군은 주강(九江)과 우후(蕪湖)를 거쳐 난징(南京)을 향해 진군하여, 1853년 3월 20일, 난징(南京)의 성벽을 돌파해 점령해버리고, '텐징(天京)'으로 개칭하였다.

그리하여 태평천국(太平天國)은 홍수전(洪秀全)이 구이핑 현(桂平顯) 진텐(金



남경(南京)

田)에서 봉기한 뒤 2년 2개월 동안 중국 6개의 성(省)을 수중에 넣었고, 신도가

로 증가하였다.

8) 1852년 9월, 서왕(西王) 소조귀(蕭朝貴)가 전사하였다.

10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라. 정책

난징(南京)을 점령한 홍수전(洪秀全)은 난징(南京)을 텐징(天京)이라 개칭하고 중앙정부에는 6부만을 설치하여, 국가의 제반 사무를 총괄하는 기관이 별도로 없고 천왕(天王) 홍수전(洪秀全)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독재체제였다.⁹⁾ 그리고 지방정권은 성(省)·군(郡)·현(縣)의 세 등급으로 나뉘고, 성(省)에서는 중앙에서 승상(丞相)이나 지휘(指揮)를 파견했고, 군(郡)에는 총제(總制), 현(縣)에는 감군(監軍) 등을 두어 지방행정을 담당토록 했다. 그리고 현(縣) 이하에는 각 극향관(鄉官)을 두었고, 현(縣)마다 가(家)를 기초로 태평군의 편제에 의해 주민들을 조직하여, 가구마다 병사 한 명을 선발하여 평상시에는 농사를 짓게 하고 전시에만 징집하면서도, 이 가운데 노인과 어린이뿐이거나 장애자가 있는 가족에게는 병역을 면제해 주기도 하였다.

그리고 홍수전(洪秀全)은 1853년 말에 『천조전무제도(天朝田畝制度)』¹⁰⁾를 반포하였다. 이 제도는 당시 농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토지에 관한 제도로서 이 토지제도는 태평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움직이는 기본강령이 되었다. 이는 5가(家)마다 1오장(伍長)을 두고, 25가(家)마다 1양사마(兩司馬), 100가(家)마다 1졸장(卒長)을 선발하였고, 500가(家)마다 1족사(族師)를, 2,500가(家)마다 1사수(師帥)를, 12,500가(家)마다 1군사(軍師)를 선출하였다.¹¹⁾ 그리고 25가(家)마다 설치된 국고인 성고(聖庫)와 예배당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9) 프란츠 마이클은 "태평천국은 중국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국가에 의해 모든 생활이 전면적으로 통제되는 전체체제였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천왕이라는 지위는 이론상으로 종교와 정치적 최고지도자이기도 하였다.

10) 양사마(兩司馬)부터 군사(軍師)까지는 모두 향관으로 주민들이 선발하였다.

11) 천조전무제도(天朝田畝制度)는 『주례(周禮)』의 정전제(井田制)를 모방한 토지군분제도였다. 토지는 경작자에게 분급한다는 원칙하에 모든 토지는 생산량에 따라 9등분되었고 생산물은 농가의 가족 수에 따라 균등하게 분배되었으며, 매년 수확된 곡식은 그해에 소비할 양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모두 '성고(聖庫)'에 저장하고 정부에 별도로 내는 세금 없었다.

상벌과 보호 및 상제와 예수에 대한 제사의식을 관장하였다. 그리고 양사가 통솔하는 25가(家)의 1량(兩)은 생산, 소비, 재정, 행정, 군사, 사법, 교육, 종교 등 모든 분야



를 겸비한 통일체로서 논밭이 있으면 모두가 함께 갈고 음식이 있으면 모두가 함께 먹으며 의복이 있으면 모두가 함께 입으며 돈이 있으면 모두가 함께 써서, 누구나 모두 균등하게 하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난의포식(暖衣飽食)할 수 있도록 한다는 평균주의의 자급자족적 경제 단위였다.¹²⁾

그리고 태평천국(太平天國)은 아편·노름·음주를 금지하였고, 1년이 366일이 되는 새로운 역법과 새 화폐의 발행, 쉬운 구어문체의 제창 등, 풍속과 문화의 각 부문에 걸친 혁신을 추진하였고, 남녀평등을 주장하여, 행정과 전투에도 동등하게 참여하도록 하였고, 여성을 속박하던 전족(纏足)을 금지하였고, 창부세를 폐지하고 축첩도 금지하여, 텐징(天京)을 방문한 어느 외국인이 말위에 올라 탄 여성병사의 씩씩한 모습에 경탄을 금치 못하는 새로운 현실이 나타나고 있었다. 그리고 과거제 또한 여성에게도 1회 뿐이지만 참여가 가능해졌다.¹³⁾

그리고 민영수공업을 폐지하고 수공업 장인들을 장영(匠營)으로 편성하여 군수품을 생산하여 조달하였다. 그리고 상인들에 대한 정책으로는 상인자본을 모두 성고(聖庫)에 귀속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정책의 목적은 가난한 소상인을 돕고, 세금을 가볍게 하며, 중요상품을 국가가 독점하려는 것이었다. 이는

12) 천하의 토지는 공동으로 경작한다(凡天下田 天下人同耕)의 성격을 띤 이것은 빈부의 격차가 극단적으로 확대된 위기의 시대에 중국역사상 반복하여 나타난 민중반란의 커더란 추진력이 되어왔으나, 인격, 신분, 법률상의 평등을 골자로 하는 시민적 평등사상과는 이질적이었다.

13) 남녀평등을 주장한 반면 천왕(天王) 홍수전(洪秀全)을 비롯한 여러 왕들은 권위의 상징으로서 많은 처첩을 거느리고 있었고, 자녀교육용으로 짜인 교과서에서는 전통적인 '삼종지도(三從之道)'가 설교되어 있었다.

상인들이 담합하여 매점매석을 못하게 하였으며, 공정하게 교역하고 제대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또한, 태평천국 정부는 가난한 소상인에게는 운영자금을 지원한 뒤에 70%만을 상환 받고 나머지 30%는 자금의 회전을 위하여 남겨두었다. 그리고 태평천국의 상세(商稅)로는 관세와 영업세, 선박톤세의 3종류가 있었는데, 모두 청조보다 세금의 무게가 가벼웠다.

그리고 태평천국은 생활필수품을 독점하여 관리하였고, 무역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에게는 반드시 허가증을 받도록 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였다. 또한, 아편수입을 엄금하여 판매자와 흡연자 모두를 참수하였다. 그리고 강소, 절강, 안휘, 강서성의 주요 생산물인 생사(生絲)와 차(茶)를 외국으로 수출하고 외국상인들로부터 총과 대포 같은 무기류와 식량과 면사 등의 필수품을 구입하였다.

마. 구질서의 수호자들

태평천국(太平天國)의 정책은 유교 전통문화와 기존경제 및 사회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었다. 특히, 태평천국의 천조전무제도(天朝田畝制度)나 성고제(聖庫制)는 지주중심의 전통적인 경제와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것이어서 지주인 신사(紳士)들은 그들의 기득권과 세력기반인 향촌사회 질서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위군(自衛軍)을 조직하였다.¹⁴⁾ 그리하여 그들은 단련(團練)과 향용(鄉勇)을 조직하여 태평천국(太平天國)을 압박했는데, 중국번(曾國藩), 이홍장(李鴻章), 좌종당(左宗棠) 등이 그 대표적 인물들이었다.

중국번(曾國藩)은 장시 성(江西省)의 향시 감독을 마치고 귀경하다가 고향인 상상(湘鄉) 방문하는 것을 허락해줄 것을 요청하였다.¹⁵⁾ 중국번(曾國

14) 천조전무제도(天朝田畝制度)나 성고제(聖庫制)같은 태평천국의 제도는 유교 사회와 지주 중심의 전통적인 경제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었기에 한인 지주들은 한인의 민족적 이익을 위하여 반청을 주장하는 태평천국보다 유교적 질서를 보존하는 청조에 동조하게 되었다.

15) 중국번(曾國藩)의 고향 방문은 오래전부터 계획되어있던 일이었으나 태평천국의 후난 침입으로 인해 더욱 간절해졌었고 남하하던 도중 모친의 임종 소식을 듣게 되어 상복

藩)은 상상(湘鄉)에서 강력한 지방 방어 대책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고 1853년 함풍제(咸豐帝)가 양쯔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각 성의 향신관리들에게 고향에서 단련을 조직하여 그 지역을 지키라고 유지(諭旨)를 내렸다. 이후 2개월 사이에 청 조정에서는 40여 명의 단련대신(團練大臣)을 잇달아 임명하여 10개 성 이상에서 단련이 조직되었다.

그리고 마침 1852년 모친상으로 고향인 호남성 상상(湘鄉)에 돌아와 있던 예부우시랑 중국번(曾國藩)이 조직한 단련

중국번(曾國藩)

이 바로 상군(湘軍)이었다.¹⁶⁾ 중국번은 조직 원리를 명조의 척계광(戚繼光)¹⁷⁾의 병서를 참고하여, 신사층의 자제를 상군 간부로 선발하고 농민을 병사로 조직했는데, 이는 동향(同鄉)·동학(同學)·혈연(血緣)·사제(師弟) 등의 사적인 관계를 기초로 하는 자위군(自衛軍)이었다.¹⁸⁾ 이로 인해 중국번의 상군은 인적 관계가 녹영(錄營)이나 그 예하 부대에는 없던 강한 응집력을 만들어냈다.

을 입고 바로 고향 집으로 달려가야 했다.

16) 중국번은 외래의 이교(異敎)로부터 유교를, 모든 사람은 형제라는 평등 윤리로부터 가부장제적 신분윤리를, 공유제로부터 사유제(지주제)를, 바깥사람들(광동, 광서인)의 유린으로부터 호남을 지키자는 것으로 근대중국의 완강한 보수주의 원형이었다.

17) 척계광(戚繼光)은 일찍이 명조의 정규군 외에 개인적으로 '가군(家軍)'을 조직해 연해의 여러 성에서 왜구는 물론 이들과 결탁한 토착의 도적 무리들까지 몰아낸 자였다.

18) 상군(湘軍)의 영관(營官)은 650명[군대가 500명, 노역자 150명]을 통솔했고, 영관 위에는 통령(統領)이 있었는데 그는 2영~12여영 이상을 통솔할 수 있었다. 그리고 영관은 수하에 5명의 초장(哨長)을 두고 통솔했으며, 각 초장은 100명을 맡았다. 또한 각 계급은 모두 사실상 사적인 관계로 긴밀하게 결속되어 있었다. 즉 영관이 초장을 뽑았고 초장은 십장을 뽑았으며 십장도 대체로 자기 명령을 따를 10명을 직접 모집했다.

중국번(曾國藩)은 병사를 육사(陸師)와 수사(水師)로 편제하여 군사훈련을 엄격하게 실시하였고, 수사는 장강에서 훈련시키고 병기창을 건설하고, 자원을 적절하게 이용했으며, 정신훈련도 강조하여 민폐를 방지하고, 아편과 도박을 금지했으며, 특히 장령(將領)의 경우 청렴과 검약을 강조하였다.

상군(湘軍)의 군비는 청조의 주요세입인 지정(地丁)·관세(關稅)·염과(鹽課)로부터 지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매관(賣官)을 통한 수입이나 지주와 상인들에게서 반강제적으로 거두어들인 기부금 및 이금(釐金)¹⁹⁾으로 충당되었다. 중국번(曾國藩)은 이와 같이 독립된 재정체계를 수립하고 병사들에게는 정규군보다 높은 급료를 지불했기 때문에 이들의 전투력은 관병보다 월등했다. 더욱이 동향출신으로 조직되어 결집력이 강하였고, 1854년에는 수륙 양군을 합쳐 17,000명에 이르렀고 많을 때는 100,000여 명에 달했다.

바. 중국번, 이홍장의 등장과 태평천국의 몰락

1) 천경사변(天京事變)

태평천국(太平天國) 내부에서는 혼란이 계속되는데, 특히 권력서열 2위인 양수청(楊秀清)이 자신의 권력을 믿고 오만방자해졌고, 자신의 몸에 상제님이 들어왔다고 하여 홍수전(洪秀全)마저도 굴복시키려 하였으며 1856년 강남대영을 격파한 후에는 공개적으로 홍수전(洪秀全)의 자리를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홍수전(洪秀全)은 1856년 9월 2일 위창휘(韋昌輝)에게 명령을 내려, 결국 양수청(楊秀清)은 가족과 부하관원들을 모두 살해하였다.²⁰⁾ 그리고 이 일로 인해 익왕(翼王) 석달개(石達開)는 신변의 위협을 느껴 난징(南京)을 떠났는데, 북왕(北王) 위창휘(韋昌輝)는 그 일족을 모두 죽였다. 그리고 명을 받아 동왕(東王) 양수청(楊秀清)을 살해한 북왕(北王) 위창휘(韋昌輝)는 반대세력에게 반격을 받

19) 이금은 말 그대로 1,000분의 1세 즉 세가 아주 적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이금의 세율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많았으나 대부분의 성에서 2~10%를 받았다.

20) 1856년 9월 2일 위창휘(韋昌輝)에게 살해된 양수청(楊秀清)을 비롯한 부하와 시종은 도합 20,000여 명에 달했다.

다가 결국 1856년 11월, 홍수전(洪秀全)에게 토사구팽(兔死狗烹) 되었다.

그리하여 석달개(石達開)가 난징(南京)으로 다시 돌아오자 대부분 그를 환영하면서 그에게 정치를 맡기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으나 석달개(石達開)의 충성을 의심하고 있던 홍수전(洪秀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익왕(翼王) 석달개(石達開)는 다음해 6월, 100,000여 명 이상의 정예 병사를 이끌고 난징(南京)을 떠나 강남을 떠돌다 쓰촨성(四川省)으로 들어가 7여년 동안 살다가 결국 1863년, 청군(淸軍)에 의해 쓰촨성(四川省) 대도하 근처에서 소멸되었다.

그리고 1857년 천왕 홍수전(洪秀全)은 지도체제를 정비하여 진옥성(陳玉成)과 이수성(李秀成) 및 그의 무능한 형제들을 등용했다. 정권 상층부의 이러한 내분은 태평천국에 대한 백성들의 신뢰를 크게 약화시켰고, 더욱이 태평천국의 제왕들도 기존 왕조체제를 모방하여 세습 제도를 채택하고 수십 명의 후궁을 두는 등 부패한 청조와 다를 바 없어 백성들은 태평천국에 대해 실망했다.

2) 태평천국(太平天國)의 멸망

태평천국(太平天國)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동안 상군(湘軍)은 점차 전투력을 강화하면서 태평천국군(太平天國軍)과의 전투에서 승전을 거두기 시작했다. 그리고 상군(湘軍)은 수군(水軍)을 편성하여 몇 차례의 난관을 극복하고 양쯔강(陽子江) 유역의 다른 성에도 진출하여 1858년까지는 천경(天京) 상류의 호남·호북·강서를 회복하였다. 한편, 태평천국군은 안휘(安徽)의 염군(捻軍)²¹⁾과 연합하여 상군(湘軍)과 전투를 전개하였다. 그리고 충왕 이수성 휘하의 대군은 양쯔강 하류의 강소·절강 일대에 진출하여 1860년에는 상하이(上海)에 육박했다.

청조정은 태평천국군을 진압하기 위해 흠차대신(欽差大臣) 향영(向榮)이 인솔하는 강남대영(江南大營)과 기선이 통솔하는江北대영(江北大營)을 설치하였다.

21) 염군(捻軍)은 1853~1868에 화북지역에서 봉기한 반청 반란집단을 이르는데, 이들은 화북평원 남단의 요새화된 토성(土城) 혼란에 근거를 두어 청나라의 팔기군(八旗軍)처럼 자체적인 기마부대를 조직하여 외부로의 습격을 감행했으며, 지방의 단력 세력을 장악함으로써 근거지를 통제했다. 그리고 이들은 태평천국처럼 왕조 체제를 건립하지는 않았지만, 존재하던 시기에 상당한 지역에서 청조의 통치를 배제할 수 있었고, 이웃 성에서 공급되는 식량을 약탈하는 습격으로 청조를 괴롭히기도 했다.



그러나 기선이 통솔하는 강북대영(江北大營)은 활동이 미진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 강남대영(江南大英)에 통합되었으나, 1860년에는 그 강남대영마저도 궤멸 당했다. 이로써 청조는 팔기군(八旗軍)과 녹영군(綠營軍)만으로 태평천국을 진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군(湘軍)은 청조가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군대로 부상하게 되어 1860년에 증국번(曾國藩)은 양강총독(兩江總督)과 흠차대신(欽差大臣)에 임명되어 장쑤(江蘇)·저장(浙江)·장시(江西)·안후이(安徽) 등 4성의 군무를 총괄하였다. 또한 이를 전후하여 상군(湘軍)의 여러 지도자가 화중·화남 여러 성의 순무(巡撫) 이하의 지방관에 임명되어, 그들은 지방의 군사, 행정, 재정권을 쥐게 되었다.

그리고 증국번(曾國藩)은 안후이 성(安徽省)에도 상군(湘軍)과 같은 성격의 회군(淮軍)을 조직하기 위해 안후이(安徽) 출신의 막료 이홍장(李鴻章)을 발탁하여 강절(江浙) 방위의 주력으로 삼았다. 1861년 이홍장(李鴻章)은 자신의 고향인 안후이 성(安徽省) 허페이 현(合肥縣) 주변 지역의 여러 단련군을 상군의 체제로 재편성하여 6,500 명 정도의 회군(淮軍)을 조직하였다.²²⁾ 그리고 이들 회군(淮軍)은 서양식으로 편성됨은 물론이고 무기 또한

서양식 총포로 무장했으며 외국인 군관에게 훈련 받아 전투력이 강한 부대로 성장하였다.

그리고 태평천국이 붕기하던 동안 사태를 관망하던 서구열강들은 점차 태평천국(太平天國)보



다는 청조를 지원하였는데, 이런 행위를 취한 이유는 태평천국을 지지하여 얻을 이익보다는 청조와 체결한 『베이징 조약(北京條約)』에서 얻는 이익이 많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영국은 1862년 1월 충왕군(忠王軍)의 제 2차 상하이(上海) 진격을 격퇴한 다음 현역장교였던 고든(C. G. Gordon)을 상승군(常勝軍)의 지휘관으로 임명하여 질과 양적으로 강화시켜 회군(淮軍)과 협력하여 강철의 태평군(太平軍)을 공격시켰다.²³⁾

태평천국군(太平天國軍)은 서양식 장비로 강화된 상군(湘軍)과 회군(淮軍) 및 상승군(常勝軍)에 의해 한걸음씩 밀리다가 1864년 7월 천경(天京)이 함락되고 태평천국은 붕괴되었다.²⁴⁾

3) 태평천국(太平天國)의 한계와 의의

태평천국(太平天國)의 이상은 대단히 혁명적이었다고 볼 수 있. 왜냐하면 그

22) 이홍장(李鴻章)이 조직한 회군(淮軍)은 안후이 성(安徽省) 출신만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상군(湘軍)보다도 사적인 성격이 더욱 강하여 훗날 위안스카이(袁世凱)와 판치루이(段祺瑞)가 이끄는 안후이파 군벌이 되었다.

23) 상승군(常勝軍)은 1860년 미국인 워드(F. T. Ward)가 상하이에서 용병으로 조직한 최초의 외국인부대였다. 상승군의 지휘는 워드 사후 영국인 고든(C. G. Gordon)에게로 넘어갔고, 1864년 태평천국(太平天國)을 진압한 뒤에 해산하였다.

24) 태평천국(太平天國)의 지도자인 천왕(天王) 홍수전(洪秀全)은 태평천국이 멸망하기 직전인 1864년 6월 중병에 걸렸으나 종교적 신념으로 복약을 거부한 채 병사하였다.

들은 상제(上帝) 앞에서 모든 인간의 귀천과 남녀 사이의 차별이 없는 평등한 사회를 염원했고, 토지는 남녀 구별 없이 식구 숫자에 따라 공평하게 가족단위로 분배되고 생산물도 공유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만주족의 압박과 기존의 유교적 질서로부터도 자유로워지려고 했고, 상업을 육성하여 자본주의 사회로 나아가려는 계획도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실현하지 못한 채 태평천국은 14년 만에 붕괴되었다.

태평천국(太平天國)이 붕괴된 이유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태평천국 지도부에 대한 백성의 신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태평천국은 본래 6명에 의한 집단지도체제였으나 그들 사이의 권력다툼이 지속되었고, 1853년 홍수전(洪秀全)이 『십전길시(十全吉詩)』를 간행 반포하여 스스로를 진명천자(眞命天子)로 선전하면서 만민의 주인으로서 지고무상의 권위와 신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였다. 소조귀와 양수청 또한 자신의 우위를 강조하여 홍수전의 지위를 위협하다가 숙청당하는 등 태평천국 내에서의 여러 내분은 태평천국에 대한 백성들의 신뢰를 크게 약화시켰다. 더욱이, 태평천국은 제도적으로 축첩을 금지하였던 반면 태평천국의 제왕들은 수십 명의 후궁을 두기도 하여 백성들이 실망하기도 했다.

두 번째로 태평천국이 내세웠던 이상은 빈곤과 압정에 고통받는 중국민중을 결집하는 구심력은 가지고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가 없었다. 예를 들어 천조전무제도(天朝田畝制度)에 의한 토지분배는 실시하지도 못했으면 실시된 경우라도 극히 불완전한 상태였다. 또한, 태평천국 초기에는 주인이 없는 경작지는 소작인이 그대로 경작하도록 하였지만 후기가 되면 오히려 지주의 수조(收租)를 보호하는 정책으로 전환되었고,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천경(天京)에서 실시되었던 성고(聖庫)제도 또한 영속적으로 시행되지 못했다.

세 번째로는 국가운영과 행정을 담당할 인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타 조직의 존재를 수용하지도 못했던 것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홍수전의 대외관은 형태만 변형시킨 청조의 화이관(華夷觀)과 천하관이며, 화(華)와 오랑캐(夷)를 구분하는 기준이 단지 예교(禮敎)에서 유일신에 대한 신앙으로 바뀌었을 뿐이었다. 이와 같은 폐쇄적인 관념 때문에 태평천국의 지도자들은 외국인들

을 무시하였고 대외무역의 중요성도 인식하지 못했다. 그리고 천왕(天王) 홍수전(洪秀全) 역시 청(淸) 말기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국제정세에 어두웠고 평등한 국가 간의 질서에 대해 아는 바도 없었다. 따라서 정세파악과 이권에 밝았던 서구열강은 외인부대를 조직하여 직접 태평천국 진압에 참여하게 되었다.

평가를 보자면, 우선 간우문(簡又文) 같은 경우는 태평천국의 봉기를 새로운 종교와 사회개혁을 통해 백성들의 정신생활을 새롭게 하고 도덕을 함양하여 모든 폐습과 미신을 일소하고, 나라를 풍요롭게 하여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한 것은 물론, 대외적으로 독립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멸만흥한(滅滿興漢)을 주창하여 민족주의적 혁명으로 평가했다. 또한, 간우문은 다른 많은 중국 학자들과는 달리 태평천국 내부에서는 자산계급이나 무산계급의 흔적조차 발견되지 않았으며 단지 병사가 농민이유만으로 농민혁명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태평천국에 참가하였던 많은 농민들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참한 것이지, 결코 계급투쟁을 위해 참가했던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리고 빈센트(Vincent. Y. C. Shih) 같은 경우는 태평천국 정부는 농민들에게 토지를 분배하거나 지주들을 제거하려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주를 옹호하기도 했으며 태평천국의 봉기를 농민전쟁도 혁명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태평군 추종자들은 농민으로서의 확고한 의식이 없었으며 지도자들도 농민을 존중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태평천국 봉기가 혁명이 아니라는 이유는 태평천국 지도층이 단순히 정권을 이양 받으려 했을 뿐이지 지배계급을 교체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즉, 태평천국의 봉기는 과거 반란과는 다른 몇 가지 특성을 가진 또 하나의 반란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4) 태평천국(太平天國) 봉기의 영향

태평천국의 봉기와 진압은 청조의 정치·사회·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는데, 첫 번째로는 외세의 침략을 들 수 있다. 1853년부터 1868년까지 안후이(安徽)·허난(河南)·장쑤(江蘇) 지역의 염군(捻軍)과 1855년부터 1873년까지 윈난(雲南)·간쑤(甘肅)·산시(陝西) 지역에서 소수민족인 회교도들이 봉기하는 등

여러 민족들이 봉기를 일으켰다. 이들은 대부분 진압 당했지만, 인구적 손실이 대단했는데 1850년대 중국의 인구가 4억 1,000만 정도에서 1873년에는 3억 5,000만 정도로 준 것을 보면 엄청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청조내부에는 중국번(曾國藩)과 이홍장(李鴻章)을 비롯한 한인관료가 두각을 나타내게 되었고 사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군대가 출현하였고, 태평군 및 소수민족의 난을 진압한 후에는 이들의 군대가 청조의 주력군이 되었다.

세 번째로는 태평천국의 봉기는 청조의 경제를 붕괴시켰다. 위에서 살폈듯이 인구의 감소는 물론, 태평군을 진압하기 위해 막대한 군사비를 지출해야만 하는데 경작지가 급격히 줄어들고 거대한 지역이 황폐해졌으며 태평군의 점령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청조의 재정수입은 크게 감소되었다. 특히, 태평군이 장쑤(江蘇)·저장(浙江)·안후이(安徽) 등을 점령하여 청조의 염세수입은 절반 이상으로 감소했으며 관세는 상하이(上海)를 제외하고는 거의 징수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이처럼 청조가 그 기능을 거의 수행할 수가 없을 정도로 재정이 곤궁해지자 관개수로사업을 비롯한 공공사업은 전반적으로 무시되었고 군대의 임금조차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이 종종 찾아왔다. 그 결과 상업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고 관직을 매매했지만 필요한 만큼의 자금을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게다가 운남 지역 회교도의 봉기로 인해 구리(銅)의 공급이 줄어들어 농민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었고, 결국 청조는 통화팽창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의도적으로 지폐를 발행했다가 오히려 지폐에 대한 백성들의 불신만 초래하게 되었다. 이금(鑿金)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으나 이는 중국의 국내 무역 발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경제자유권을 상실하게 한 주요요인 가운데 하나였다.

◆ 참고자료

임계순, 『淸史 만주족이 통치한 중국』, 신서원, 2007

John K. Fairbank, 『캠브리지 중국사 10.上(청제국 말 1부)』, 새물결, 2007

John K. Fairbank, 『新中國史』, 까치, 2010

김재선, 『아편과 근대중국』, 한국학술정보[주], 2010

小島晋治·丸山松幸, 『中國近現代史』, 지식산업사, 2009

<인터넷 자료를 편집했음>

4. 난징대학살 기념관



중국은 1949년 중화인민 공화국 설립 이후, 남경대학살의 만행을 기억하기 위해서 남경에 기념관을 만들었으며, 매년 12월 13일 남경대학살에 대한 언론홍보를 통해 전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남경대학살 기념관은 남경의 서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13개의 위령비가 기념관 마당에 있고, 江東門 학살지의 유골을 모아놓은 기념실, 일본군국주의 침략사 전시실 및 최근에 지은 일본군 만행 전시실 등 3개의 전시실이 설치되어 있다. 특히 일본군 만행 전시실은 상세한 역사적 증거물(사진, 일본군출신들의 일기, 당시 남경거주 외국인들의 기록)을 분류, 전시해 놓아서 중국정부가 남경대학살에 대해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경대학살 기념관 전시실에서는 중국정부의 이와 같은 입장을 다음과 같이 “結語-맺는말

-”로써 나타내고 있다.
“다시는 역사의 비극을 되풀이 하지말자. 나라가 약해지면 또다시 치욕을 당할 수밖에 없으니 절대로 과거와 같이 낙후되지 말고, 세계평화를 위해 노력하자”



5. 난징 대학살

난징대학살(南京大屠殺, Nanking Massacre)이란 중일 전쟁 도중 난징을 점령한 일본군이 중국인을 학살한 사건이다. 이로 인해 약 5만 내지 30만 명의 중국인들이 학살되었다.¹⁾ 1937년 12월 13일부터 1938년 2월까지 6주간에 걸쳐 이뤄졌으며, 1939년 4월에는 1644 부대가 신설되어 생체실험 등이 자행되었다. 오늘날 중국에서는 이를 난징 대도살이라 부르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난징 사건으로 불리고 있다. 그래서 아시안 홀로코스트라고 불리기도 한다.

대학살 배경

1937년 7월 루거우차오 사건(마르코 폴로 다리, 노구교라고도 불린다)으로 중국군과 일본군 사이에 무력 사건이 터지면서 중일 전쟁이 발발했다. 전쟁 초기에 일본군은 베이징, 톈진 등 북부 주요도시들을 손쉽게 점령하고, 진격에 진격을 거듭하면서 일본군 수뇌부는 "단 3개월 안에 중국대륙을 점령하겠다"고 큰 소리 쳤을 만큼 기세등등했다.²⁾

그러나 상하이 상륙 작전 전투에서 2~3개월이나 전투가 장기화되었는데, 여기서 일본군이 예상한 것과는 달리 중국 국민당군의 저항이 상상 이상이였다. 특히 상하이 전투에서 국민당군은 장제스(蔣介石)의 엘리트 직계군대가 투입되었고 이들의 저항이 상당히 격렬했었던데다가 여기서 일본군은 오송 상륙 전투에서 무모한 작전을 펼쳐나가게 되어 상당한 피해를 입으면서 일본군은 중국군과 중국인들에 대한 적개심에 악이 반칠 대로 반칠 있는 상태가 된다. 그리고 11월, 일본군은 막대한 피해를 입으면서 어렵게 상하이를 점령하고, 예정도 없이 곧바로 중국 국민당의 수도 난징을 향해 진격을 한다.³⁾

-
- 1) 피해 규모 부분은 일본 학계에서 논쟁이 되고 있다. 일부 난징대학살 부정론파들은 "학살 자체는 없었으며 장제스 국민당 정부의 날조이자 조작극"이라고 주장한다.
 - 2) 개전초기 일본군은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시작해 빠른 시일 내에 주요 대도시를 점령하고 중국 국민당의 항복을 받아낸다는 이른바 '속전속결'이 기본방침이었다.

대학살 전개

일본군이 난징으로 진격하는 동안 중국 국민당 정부는 수도 난징을 버리고 충칭(중경)으로 옮긴다고 발표한다. 그러나 중국군 사령관 탕성즈(唐生智) 장군은 결사항전을 주장했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수도를 지키겠다."고 선언하였다.⁴⁾

그러나 난징성을 삼면에서 좁혀 들어오는 일본군의 포위속에 국민당 주요관료와 부유층들은 재빨리 손을 써서 도시를 빠져나갔고, 중일전쟁 이전에 약 110만 명에 육박했던 난징은 도시를 빠져나가려는 시민들과 일본군을 피해 도시로 피난해 오는 피난민 등이 뒤엉켜 이수라장이었다. 난징성을 포위한 일본군은 중국군 사령관에게 투항하라고 권고 및 경고를 했다. 그러나 난징성을 지키고 있던 탕성즈 사령관 휘하의 15만 명의 중국군은 투항을 끝내 거부했다. 중국군의 당시 전략은 도시 밖 요충지를 포기하고 난징성 안에 머물며 고립한 채로 방어하겠다는 전략 방식으로 나가려 했다.

12월 10일 일본군은 중국군에 "항복하지 않으면 피의 양쯔강을 만들겠다."고 최후통첩을 한다. 결국 역시 중국군은 끝까지 거부했고, 일본군은 전면적인 공격에 들어간다.

12월 13일 일본군은 난징성을 점령하고 난징성 안으로 진격하기 시작한다. 국민당 군대가 제대로 저항해보지도 못하고 무참히 무너진 이유에 대해서는 흐트러진 군기와 지휘관들의 부재 및 무능함에서 비롯되었으며, 여기에 단합이 안되었던 것에 큰 한 몫을 했다. 결국 중국군은 제대로 전투도 못해본 채로 뒤숭숭한 혼란에 빠져있기만 했다.

그 무렵, 난징이 함락되기 직전 전날, 결사항전을 주장하던 중국군 사령관 탕성즈는 자신의 휘하 중국군부대와 난징성에 고립된 시민들을 뒤로한 채, 양쯔강을 가장 먼저 건너 도망을 쳤다. 여기서 피난가지도 못한 채 남아있던 50~60만의 난징 시민들과 중국군인들은 공황 상태속에서 4~6주간 일본군에

3) <<The Rape of Nanking(한글명:역사는 힘있는 자가 쓰는가) - 아이리스 장>> p58

4) <<The Rape of Nanking(한글명:역사는 힘있는 자가 쓰는가) - 아이리스 장>>p104

의해 처참한 대량학살을 겪게 된다.⁵⁾

6주간의 학살과 강간

1937년 12월 13일, 난징에 입성하는 일본군.탕성즈 사령관은 도망가면서, 난징성이 허무하게 일본군 수중에 들어오게 되자, 난징에 남아있던 시민들과 병사들에게 재앙이 닥쳤다. 일본군은 백기를 들며 항복한 중국군 포로뿐만 아니라 젊은 남자들을 색출하여 닥치는 대로 끌고 가 성 외곽이나 양쯔강 하구에서 기관총 세례를 퍼부어, 무차별 학살을 자행했다.⁶⁾ 적제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만여 명이나 되는 단위로, 중국군 포로와 민간인 남자들은 일본군의 총검술 훈련용으로 되거나 목 베기 시험 희생물이 되기도 했다. 여기에 적지 않은 중국인들은 총알을 아끼려는 일본군에 의해 산 채로 파묻혀서 생매장 당하거나 칼로 난도질당했다.⁷⁾

난징 외곽 양자강에서 대규모 학살을 자행한 일본군. 일본군은 백기를 들고 항복한 국민당군은 물론, "폐잔병을 '처리'한다"는 명목으로 '모자를 오래 쓴 흔적이 있거나 손에 굳은살이 박인 젊은 남자' 모두를 닥치는 대로 끌어 모아 기관총으로 양자강에 쓸어 넣었다. 난징의 한 광장에서는 천여 명의 사람들이 몇 개의 단위로 열로 구분되어 세워졌는데, 이들 가운데는 여자들과 어린이 등 수많은 민간인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일본군은 이들에게 석유를 쏟아마자 곧바로 기관총을 난사했다. 총탄이 사람들의 몸을 꿰뚫을 때 석유에 불이 붙었고, 시체더미는 산처럼 이루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난징대학살에 참가한 어느 일본군의 일기가 발견되었는데, 일기내용에서는 "심심하던 중 중국인을 죽이는 것으로 무료함을 달랜다."면서 "산 채로 묻어버리거나 장작불로 태워 죽이고 몽둥

5) <<The Rape of Nanking(역사는 힘있는 자가 쓰는가) - 아이리스 장>>p123

6) 위키백과 일본어판을 보면, '일본군이 난징 점령하고 입성했을 당시 난징 시민들은 공황상태였다. 그래서 난징 시민들은 '친일파 중국인', '일본인 유학생'들을 색출해서 이른바 '한간(漢奸) 사냥'을 벌였다.'라고 기술되어있는데, 이는 오늘날 일본에서 난징대학살 부정파들의 주장으로 신빙성이 없다. 南京事件(1937年) 事件の概要

7) <<The Rape of Nanking(역사는 힘있는 자가 쓰는가) - 아이리스 장>>p125

이로 때려죽이기도 했다."고 적혀 있었다. 즉, 일본군들은 군인포로들이나 민간인들 가릴 것 없이 무차별적으로 잔인하게 학살을 하였다.⁸⁾

이러한 잔인한 '인간 사냥'이 극에 달하면서 일본군은 여자들에게도 눈을 돌렸다. 이른바, '집단윤간', '선간후살'(先姦後殺, 먼저 강간하고 다음에 죽임)로 일본군은 여성을 성노리개로 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강간 후 참혹하게 살해했다. 그 대상은 10살도 채 안되어 보이는 어린이부터 60, 70대 노파까지 그 대상을 가리지 않았다. 또한, 일본군은 수녀와 비구니를 포함하여 난징에 보이는 여성들을 보이는 대로 능욕했다.⁹⁾

1938년 1월, 일본 외무대신 히로타 고키(廣田弘毅)가 주미 일본대사관에 보낸 비밀 전문 내용에는 다음과 같다.

특별소식: 믿을 만한 목격자들의 직접 추산과 신뢰도 높은 일부 인사들이 보내온 편지에 따르면 일본군이 저지른 모든 행위와 폭력 수단은 아틸라왕과 흉노족을 연상시킨다. 최소 30만명의 민간인이 살육됐고, 많은 수는 극도로 잔혹하고 피비린내 나는 방식으로 살해됐다. 전투가 끝난 지 수주가 지난 지역에서도 약탈과 아동 강간 등 민간에 대한 잔혹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당시 일본 외무부는 난징에서의 학살 사실을 숨기기 위해 난징에 있던 서방 외교관들을 불러 맛있는 음식과 공연을 제공하며 매수를 시도했다고 한다.

난징 안전지대

난징에 있는 윤 라베의 집. 난징대학살 당시 윤 라베는 이곳을 중심으로 난징 안전지대를 설정해 피난하는 중국인들을 도왔다. 독일 나치스당원이자 지멘스의 직원으로 난징에 근무하던 윤 라베는 외교관, 사업가 등 난징에 있던 다른 외국인들과 힘을 합쳐 '국제위원회'를 조직하고 자신의 자택과 대사관 부지 등을

8) <<The Rape of Nanking(역사는 힘있는 자가 쓰는가) - 아이리스 장>>p130

9) <<The Rape of Nanking(역사는 힘있는 자가 쓰는가) - 아이리스 장>>p132

중심으로 일본군이 들어올 수 없도록 '난징 안전지대'를 설정해 이곳에서, 피난하는 중국인들에게 음식과 머물 곳을 제공했었다. '난징 안전지대'에 전체 약 20만 명이 넘는 중국인들이 일본군들로부터 대피할 수 있는 은신처 및 음식을 제공받았다.

난징안전지대 구역은 모두 난징 주재 외국대사관과 난징대학교 주변에 설치되었다. 또한, 이러한 안전지대를 주도한 온 라베는 자신의 소유지를 650명이 넘는 피난자들이 피신할 수 있도록 개방하였으며, 안전구역 내의 행정 책임자들은 끔찍한 학살로부터 중국인들을 보호하고자 노력했다.¹⁰⁾

100인 참살 경쟁

난징 대학살 시기인 1937년 11월 30일자 '오사카 마이니치 신문'(大阪毎日新聞)과 12월 13일자 '도쿄 니치니치 신문'(東京日日新聞)에서 일본군 무카이 도시아키(向井敏明) 소위와 노다 쓰요시(野田毅) 소위가 일본도(日本刀)로 누가 먼저 100인을 참살(斬殺)시키는지를 겨뤘다는 사실이 보도되었던 것을 말한다.

종전 후 무카이, 노다 두 소위는 함께 난징에서 군사재판을 받았고, 역시 최후까지 자신이 민간인 학살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육군 중장 다니 히사오(谷寿夫)와 함께 총살되었다.¹¹⁾

대학살 이후

1937년 12월 13일, 난징이 함락된 이후 6주간의 대학살이 계속되었고 1938년 봄에야 비로소 종결되었다. 이후 일본군은 도시 전체를 완벽하게 통제하기 위한 계획을 실행에 옮긴다.

일본정부는 난징에 있는 사람들을 피라미드형 위계질서에 따라 편재하는 방식으로 통제하는 방법을 고안했다.

10) 日외무, 1938년 비밀전문서 "난징에서 최소 30만명 살육"

11) <<The Rape of Nanking(역사는 힘있는 자가 쓰는가) - 아이리스 장>>p208

1938년 1월 1일, 일본은 새로운 시 정부인 '난징자치위원회'를 구성했다. 난징자치위원회는 도시의 행정, 복지, 금융, 상업, 치안, 교통 등을 담당하는 중국인 관리들로 구성되어 일본의 꼭두각시 역할을 했다.

난징을 점령한 일본군의 통제 정책은 너무도 가혹하게 다뤘다. 1939년 4월에는 의학연구기관을 설치하고 마루타(통나무) 같은 형식의 실험대상을 모아 생체 실험 연구를 하곤 했었다. 이를 'Ei 1644부대'라 불리는데, 매주 10여 명의 사람들이 생체실험에 의해 희생당하고, 그 사체는 'Ei 1644부대'의 소각로에서 처리되었다.

이어서 1940년에는 왕징웨이(汪精衛)를 정부수반으로 친일 꼭두각시 정부인 왕징웨이 정권이 난징을 수도로 수립되었다. 그러나, 민중들은 왕징웨이 정권에 대한 지지가 거의 없었다.

1945년 일본이 패망하면서 Ei 1644부대 등 일본군, 일본인들은 중국 국민당군이 난징에 입성하기 전 모든 데이터를 파괴하고 도주했다.¹²⁾

전범재판

난징전범재판난징전범재판은 1946년 8월~1947년 2월까지 난징에서 B급, C급 전범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이 재판에서 1천 명이 넘는 중국인들이 460여 건의 살인, 강간, 방화, 약탈에 관해 증언했었다.

재판이 계속되면서 감춰졌던 증거들이 속속 공개되었는데, 여기서 일본 신문에 보도된 '100인 참수 경쟁'의 노다 쓰요시 중위와 무카이 도시아키 중위가 재판받게 된다. 두 사람은 '살인시합'을 벌인 장본인이었는데, 재판 도중 둘 다 150명 이상을 죽였다는 사실을 일체 부인했으며 급기야 한 사람은 외국인 특과원이 멋대로 상상해 기사를 만들어 냈다고 주장했고, 다른 한 사람은 일본에 돌아갔을 때 아내를 놀래게 해주려고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이 둘은 1947년 12월 18일 평결이 내려져 사형을 언도받는다.

또한 난징전범재판에서 다니 히사오 중장 역시 관심의 대상이었다. 그는

12) <<The Rape of Nanking(역사는 힘있는 자가 쓰는가) - 아이리스 장>>p231

1937년 난징에 주둔한 일본군 6사단 육군 중장이었는데, 일본군 6사단은 난징 시내에서 온갖 많은 만행을 저질러왔던 부대였다. 1946년 8월, 재판에 회부된 다니 히사오 중장은 난징으로 소환되었다. 그를 기소하기 위해 법의학 전문가들이 난징시내 근처에 있는 매장지를 파헤쳐 수천 구의 유골을 발굴했다.

1947년 2월 6일, 다니 히사오에 유죄판결이 내려지면서 3월 10일 다니 히사오 중장은 전쟁법과 전쟁포로에 대한 대우에 관한 헤이그 협정을 위반하고 자신의 군대가 난징에서 30만 명 학살한 것에 동조한 혐의로 사형을 언도받으면서 공개총살이 집행된다.¹³⁾

극동국제군사재판

극동 국제 군사 재판은 제2차 세계 대전과 관련된 동아시아의 전쟁 범죄인을 심판한 재판이다. 도쿄 재판이라고도 한다. 60여 명 이상의 전쟁 범죄 용의자로 지명된 사람 중 28명이 기소되어, 판결 이전에 병사한 사람 2명과 소추가 면제된 1명을 제외한 25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이중 난징 대학살에 관련된 전범들 가운데 당시 난징대학살 지휘관이었던 아사카노미야 야스히코(朝香宮鳩彦王)는 일본 황족이란 이유로 처벌을 면해, 재판소에 출석하지 않는 특권을 부여받았다.

난징대학살 당시 총책임자였던 마쓰이 이와네(松井石根)는 사형판결을 받아 교수형을 당했고, 중일전쟁 당시 일본 외무성 장관이었던 히로타 고키(広田弘毅)도 사형을 선고받아 교수형에 처했다. 하지만, 극동국제군사재판은 난징대학살 당시 주요 범죄자들이 단 한 명도 법정에 서지 않았다는 점이 한계다.¹⁴⁾

학살의 주요 책임자

조 이사무(1895년 1월 19일~1945년 6월 23일) - 난징전투 당시 아사카 야

13) <<The Rape of Nanking(역사는 힘있는 자가 쓰는가) - 아이리스 장>>p247

14) <<The Rape of Nanking(역사는 힘있는 자가 쓰는가) - 아이리스 장>>p250

스히코의 참모. 난징대학살에 깊게 관여했고 포로 학살을 적극 추진하였다.

아사카 야스히코(1887년 10월 2일 ~ 1981년 4월 12일) - 일본의 황족으로서 난징대학살 당시 일본군 현장 책임자. 모든 포로들을 죽이라는 명령서에서 명했다.

마쓰이 이와네(1878년 7월 27일 ~ 1948년 12월 23일) - 난징대학살 당시 총책임자. 그러나 난징 함락될 당시 병으로 전선에 있지 않았다.

다니 히사오(1882년 12월 22일 ~ 1947년 4월 26일) - 난징에 주둔한 일본군 6사단 육군 중장. 난징 함락 직후 항복한 중국군 포로와 비무장 민간인을 대대적으로 학살하도록 지시하였다.

사건 일지

1937년 7월, 노구교 사건을 계기로 중일전쟁 발발 → 일본 관동군, 톈진 베이징 점령

1937년 8월, 일본군, 항저우만 상륙, 상하이 공격, 난징 공습 시작.

1937년 9월, 일본군, 타이위안 점령.

1937년 10월, 일본군, 지난 점령.

1937년 11월, 프랑스 로마 가톨릭 신부 자귀노 드 베 사제, 상하이에 중립 지대 선포. 상하이 함락. → W.플러머 밀스의 제안으로 난징안전지대 설치. 온 라베(존 라베), 히틀러에게 난징의 상황을 알리는 전보를 보냄. 국민당 탕성즈 장군은 기자회견을 열고 난징 결사항전 선언.

1937년, 12월 5일 아사카 야스히코, 도쿄 출발

1937년, 12월 7일 마쓰이 이와네의 병세가 악화되면서 지휘권이 아사카 야스히코에 넘어감. 100인 참수 경쟁 관련 기사 게재.

1937년, 12월 8일 장제스, 난징 철수.

1937년, 12월 9일 미국의 경비정인 파나이호 난징 철수. 난징국제위원회가 3일간의 휴전교섭을 제안했으나 장제스는 이에 응하지 않고 일본은 폭격의 강도를 더욱 강화.

1937년, 12월 11일 장제스, 탕성즈 장군에 퇴각 명령.

1937년, 12월 12일 일본해군, 난징 부근 양자강에서 미해군 경비정 파나이호 격침.(파나이사건)

1937년, 12월 13일 난징 함락, 일본군 66대대에 모든 포로를 처형하라는 명령 전달.

1937년, 12월 17일 마쓰이 이와네, 난징 도착.

1937년, 12월 24일 모든 민간인은 통행증을 받아야 한다는 포고령이 내려짐.

1937년, 12월 28일 민간인 등록 시작.

1938년, 1월 1일 친일 괴뢰성향인 난징자치위원회 구성.

1939년, 4월, 1644부대중심으로 생체실험 실시.

1940년, 3월 30일 왕징웨이를 수반으로 친일 꼭두각시 정부인 왕징웨이 정권수립.

1944년 3월, UN조사위 구성. 극동지역 소위원회 개설.

1945년 7월 26일, 연합군(미,영,중), 일본에 대해 포츠담 선언 발표.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투하. 일주일 후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투하.

1945년 8월 15일, 일본 항복.

1945년 9월 9일, 일본, 항복문서 서명.

1946년 8월 ~ 1947년 2월, 난징전범재판으로 B급, C급 전범 재판.

1946년 5월 3일, 극동국제군사재판 개정.¹⁵⁾

최근 난징대학살 논쟁

최근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7만평 규모의 난징 대학살 역사관을 설립하여 매년 12월 13일에 추모식을 가지며, 일본의 만행을 국제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하려고 하고 있다.¹⁶⁾

몇몇 중국인의 증언에 따르면, “일본군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두 학살

15) <<The Rape of Nanking>> - 아이리스 장 저술.

16) 아, 영육의 땅 난징 난징

했으며, “어린이는 물론 늙은 노인까지 잔인하게 강간한 뒤 잔인하게 살해했다.”라고 전해진다. 강간 직후 여성들은 즉시 살해됐는데, 주로 수족을 절단하는 방식으로 살해되었다고 증언한다. 또한 일본군은 누가 100명을 먼저 살해하는가를 놓고 경연대회를 열어 포상하기도 했는데, 당시 참수 경쟁 가담자는 1948년, 중국 국민당 정부에 의해 총살당한 무카이 도시아키와 노다 쓰요시였다. 일본군은 심지어 중국인군인 포로들을 총검 훈련에 이용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일본의 만행은 사진 촬영이 취미였던 무라세 모리야쓰가 촬영하였다.¹⁷⁾

하지만 오늘날 일본에서는 일부 양심적 지식인을 제외하고는, 극우 및 우익 인사가 난징 대학살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환상설이나 부정론을 내세우거나[20] 심지어는 교과서에서 난징대학살을 언급하지 않거나 "난징 사건"이라고 사건을 일축 축소 표현하는 등 오히려 난징 대학살 언급을 금기시되고 있어서 중국 정부와 대립하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난징대학살 사상자의 숫자가 매우 제각각으로 엇갈리는데, 서양의 서적 중에서는 4만2천 명 설을 언급하는 책이 있는가 하면 15만이나 20만 명 설까지 다양하다. 또 일본 내에서는 양심적인 사학자라고 불리는 사학자들도 중국 측의 30만이라는 숫자를 받아들여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대표자인 가사하라 토쿠시(笠原十九司) 츠루 문과대학 교수나 와세다 대학교 교수였던 호라 도미오조차도 25만 명 이상설을 주장하고 있으며, 기타 20만 명설, 15만 명설, 1만 명설, 3천 명설, 심지어는 일본 우익 진영에서는 40~50명 설을 주장하고 있으며 많아 봐야 1~2명 설, 아예 없었다는 설까지 있다.¹⁸⁾ 이러한 일본 극우 난징 대학살 부정파들이 존재하는 반면, 일본에서도 'No more Nanjing'이라는 이름의 시민단체가 있어 난징 대학살의 사실을 목살하는 일본 극우와 현정부의 행태에 반대해 진실을 알리기 위해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¹⁹⁾

최근에는 난징대학살을 소재로 한 영화나 다큐멘터리 등이 제작되어 난징대

17) 문화방송 다큐멘터리, 세계를 뒤흔든 순간-난징대학살 편(제2부)

18) 대표적인 정치인이 이시하라 신타로이다. 이시하라 신타로는 1990년 당시 도쿄도지사로서 한 잡지의 인터뷰를 통해 "난징대학살은 중국인들이 지어낸 거짓얘기로 중국내 반일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꾸민 얘기"라고 주장했다.

19) 'No more Nanjing' 시민단체.

학살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어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2010년 5월 16일에는 1937년 일본군의 `난징(南京)대학살에 군인으로 참가했던 일본인들이 최근 언론과 인터뷰하고 기록영화에 출연해 당시 상황을 증언하였다.²⁰⁾

학살에 대한 피해 규모 논쟁

오래전부터 난징 대학살 피해 규모에 대해 논쟁이 격렬히 났었는데, 최근 중일 양국의 전문가로 구성된 중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가 난징 대학살의 피해 규모에 대해 논의를 놓고 2009년 12월 23일에 최종결론이라 불리는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양측의 팽팽한 주장 대립속에 합의점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²¹⁾

중국 측은 난징 대학살로 인해 희생된 사람들 수가 30만 명이라고 주장한다. 중국 측은 “일본은 계획적인 침략을 감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일본 측은 수만 명에서 최대 20만 명에 이른다는 다양한 주장이 존재하고 있다. 그 동안 일본에서는 난징 대학살을 ‘대학살’이라 부르지 않고 ‘사건’이라고 부르며 역사적 사실을 축소해 왔다. 일본 측은 “일본은 일부 군부 세력에 의해 전쟁에 끌려들어 갔고 그리하여 전선을 확대했다”는 수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일본의 난징 논쟁사

당시 난징 대학살에 대한 일본의 반응일본에 난징 대학살의 존재는 학살이 진행 중이던 1937년 12월 당시에도 이 사건에 대해 일본 국내에는 아예 보도되지 않고 있었으며, 오히려 당시 국민들은 전쟁에 찬동하는 분위기가 압도적이었다. 그리고 일본에 알려지게 된 것은 패전 후의 일이며, 극동 국제 군사 재판에서는 15만 명으로 사상자를 결론지었다. 전후에 언론에 보도되기는 했으나 신문상에서 최대의 기사거리는 국제 사회에서 지원될 식량과 식량의 종류, 배급일자

20) 난징대학살 참가 日병사들 증언 잇따라

21) 문화방송 다큐멘터리, 세계를 뒤흔든 순간-난징대학살 편(제3부)

가 1면 기사였고, 난징 학살의 기사는 2면이나 3면기사로 보도되면서 전후에 일본 국민들의 기억속에서 곧 잊혀졌다.

그러나 1971년에 일본의 아사히 신문의 혼다 카츠이치 기자가 홍콩을 경유해 중국에 입국해서 당시 일본과 국교가 없던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내를 여행하며 신문상에 연재한 '중국 여행'이라는 르포가 화제와 인기를 끌면서 다시금 일본에 난징 대학살 논쟁의 불씨를 당겼으며, 이 과정에서 100인 참수 경쟁의 이야기나 731 부대의 이야기도 연재되었다.

이 르포 기사를 반박하는 일본의 극우 언론인 산케이 신문의 스즈키 아키라 기자가 1973년에 난징 대학살의 환상이라는 책을 출판하였고, 일본내에서도 다시금 논쟁이 격해졌다. 그리고 1981년에 '중국 여행'이 책으로 출판되면서 또 다시 화제를 일으켰다. 그리고 일본의 교과서에는 1965년에 당시 사토 에이사쿠 총리 하의 문부과학성검정 역사 교과서에서 난징 대학살이 삭제된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했었는데, 이에 이의를 제기한 이에나가 사부로 교수의 30년에 걸친 교과서 소송 재판이 1995년에 마침내 최고재판소의 판결로 교과서에 의무적으로 실리게 되었으나, 1999년부터 다시 학살 부정론이 우익 진영을 중심으로 크게 일어났다.

1937년 일본군의 난징대학살이 극에 달했을 무렵, 일본군 무카이 도시야키 소위와 노다 쓰요시 소위가 100인 목베기 시합을 했다는 내용의 일본 마이니치 신문에 게재되었던 게 있었는데, 최근 2005년에 그 유가족들이 100인 목베기 시합에 대해 보도했던 언론사들을 명예훼손을 이유로 고발하여 소송을 걸었다. 일본 극우 및 우익 단체들은 이 유가족들을 지원하는 모임도 결성하는 등 소송을 지원했다. 소송을 건 원고측은 "전쟁 수행 중에 일본군인들의 사기를 높이고, 국민들에게 선전하기 위해 언론에서 지어낸 얘기일 뿐 실제 목베기 게임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근 이 사건에 대해 도쿄 지방 재판소는 100인 목베기 시합이 없었던 일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며 유가족 등 원고측에 패소판결을 내렸다.

2000년 1월 23일 오사카에서는 "20세기 최대의 거짓말! 난징대학살을 철저히 검증하는 집회" 대회를 열어 부정파론자들이 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난징대

학살 부정파론을 주장하는 부정파론의 대표적인 인물로 만화가 고바야시 요시노리, 아세아 대학교 교수 히가시나카노 슈도 등이 최선봉이 되어 다시금 부정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반면에 난징대학살을 비롯해 일본제국의 여러 전쟁범죄에 대한 진실을 일본의 민간단체 및 시민단체에서 일본제국의 전쟁범죄를 규탄하고 진상규명을 밝히고자 하지만, 최근에는 일본의 부정파론이 대두되면서 난징대학살에 대해 금기시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있다. 이들 일본 극우세력들의 난징대학살 부정파론이 대두되는 것은 일본 우익세력들만의 선민사상이 극에 달한 광기이자 결과물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일본의 난징대학살에 대한 반응은 크게 3부류로 나뉜다.

인정파: 이들은 일본제국주의 침략전쟁에 의한 학살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며, 난징대학살의 실체를 인정하는 세력들. 대표적인 인물이 츠루문과대학교 교수로 지내고 있는 가사하라 도쿠시와 역사학자 이에나가 사부로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난징대학살은 역사적 사실이다. 단지, 일본 정부가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도파: 이들은 난징대학살에서 민간인들의 희생은 인정하지만, 전쟁수행 중의 피해일 뿐, 희생자수도 불과 몇만 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세력들. 대표적인 인물이 리쓰메이칸 대학교 교수로 지내고 있는 기타무리 미노루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일본군이 중국 민간인들에게 피해를 입힌 적은 있다. 하지만, 계획적인 학살이 아닌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한다.

부정파: 이들은 난징대학살의 학살자체가 없었음은 물론, 아예 '난징 대학살 자체가 장개석의 국민당정부의 날조로 인한 거짓'이라는 이른바 '환상설'을 주장한다. 대표적인 인물이 아세아대학교 교수로 지내고 있는 히가시나카노 슈도를 비롯한 도쿄도지사를 지내고 있는 이시하라 신타로 등 일본 극우세력들이다. 이들은 '난징대학살은 전혀 근거가 없으며, 증거 사진들도 죄다 조작된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일본 극우세력 난징대학살 부정파들의 주장

난징대학살 당시, 중국인을 목 베는 일본군 사진. 일본 극우 부정파들이 '날조'라고 주장하는 사진들 중 하나이다.

일본군은 중국을 횡단하면서 수천 명의 여자들을 잡아갔다. 그들 중 상당수가 중간당하고 위안소로 보내졌다. 그러나 이 사진은 일본의 극우 부정파들이 '날조'라고 주장하는 사진들 중 하나이다. 일본 극우세력들 가운데 난징대학살에 대해서 이른바 '환상설'을 주장하는 부정파들은 오른쪽과 왼쪽 사진들을 예시로 들어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의 설명은 '일본군이 난징대학살 당시 중국인을 목베는 사진'인 것인데, 일본 극우 부정파들은 '난징이라는 증거가 없다. 먼저, 이처럼 가까운 거리에서 일본군이 죽이는 장면을 촬영하게 할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한다. 이어서 이들은 '일본군의 경우, 목을 벨 때 발을 뺀 동작이 다르다.'는 등 갖가지 이유를 붙여서 결국은 '중국인이 일본사람 행세를 하는 조작한 사진'이라고 단정 짓고 있다.

또한, 그 외에 강간 사진 등에 대해서도 부정파들은 온갖 논리를 내놓고 있다. '중국인들이 일본군으로 변장해 조작한 이른바 포르노 사진'이라고 주장하면서 증거도 없이 무턱대고 부정을 하고 있다.

이들 일본 극우파들은 '난징대학살에 관련된 사진들이라고 설명된 것들 가운데 단 한 장의 사진도 난징대학살의 증거사진이 될 수 없다'고 결론을 짓고 있다. 즉, 이들 극우 부정파들은 '꼬투리'잡을 만한 빌미가 한가지 생겼을 때, 이를 최대한 과장한다. 특히 극우, 부정파들의 경우는 이를 빌미로 '난징대학살이란 것은 존재하지도 않았다.'라고 주장하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서 아이리스 장의 '난징의 강간'이란 책의 경우, 여기서 책의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게 되면 전부가 잘못되었다고 살짝 바꾸려고 하는 등인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주장하는 논리는 결국 '증거 사진이 없기 때문에 난징대학살이란 사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란 논리적 비약으로 연결되고 있다.

일본 극우, 부정파들은 '난징대학살은 연합국과 중국이 일본군을 비방하기 위해 정보전, 선전용으로 날조한 것이며, 일본 국민들에게 범죄의식, 잘못했다는 의식 등을 심어주기 위한 선전용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

모든 게 일본을 비방하고 침몰시키기 위한 모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난징대학살 부정론자들이 주축인 '새역모'단체에서 발행한 '후소사관 역사 교과서'에서는 '난징 대학살'이 아닌 '난징 사건'이라 축소하듯이 표현하고 있으며, 교과서에는 '지금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라고만 간단하게 정리되어있다. 마치 '난징대학살이란 것은 애시당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라듯이 저술한 것이다.

이러한 일본 극우 부정파들의 역사왜곡 의식에 일본 역사학자들은 '이같은 일본의 역사의식 배후에는 일본 정부가 있으며, 결과 속이 다른 정책으로 이와 같은 역사왜곡 등을 부추기고 있다.'라 말하고 있으며, 이러한 역사왜곡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또 하나의 아이리스 꽃

일본의 은혜 덕분인지, 남경대학살은 아시아 몇몇 나라에서만 기억하고 분노하는 문제로 머물러 있었다. 나치의 유대인 학살과 관련한 수많은 조직, 단체, 기록, 자료, 기금, 기념관, 증언자, 후원자들을 갖고 있는 서구 사회에서도, 비극적 양상이 비슷한 남경 대학살은 제대로 알려 지지도 않았다. 남경 대학살을 들어본 사람을 찾기조차 쉽지 않았다. 적어도 아이리스 장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말이다.



아이리스 장의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된다. 장은 명민하고 촉망 받는 젊은 저널리스트였다. 그의 부모는 중국 본토에서 태어난 대만 사람들로, 미국으로 유학 왔다가 학자가 된 뒤 미국에 눌러 살게 된 이민자들이었다. 미

국에서 태어났지만 중국인의 피를 그대로 받은 이민 2세인 아이리스 장이 중국 문제에 관심을 가진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몰랐다. 그의 조부모 자신

이 남경 대학살의 지옥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온 사람들이기도 했지만, 자신의 피의 조국이 한때 외세에 의해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참상에 빠졌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그가 받았을 충격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무엇보다 그를 분노에 떨게 만든 것은 이러한 사실이 제대로 알려져 있지도 않다는 사실이었을 것이다.

아이리스 장은 1968년 3월, 프린스턴 대학이 있는 뉴저지 프린스턴에서 태어났다. 부모를 따라 일리노이 대학이 있는 어바나 샴페인으로 이사 온 그는 이 대학에서 저널리즘을 전공했다. 대학 때 대학 신문을 비롯한 대학 저널리즘에 참여하면서 그는 일찌감치 두각을 나타냈다. 대학 신문의 동료이자 편집자였던 한 친구는 장의 기사가 언제나 완벽해서 손을 댈 일이 없었다고 회고한다. 이 정도로 그쳤다면 동료로부터 시기를 받을 일은 없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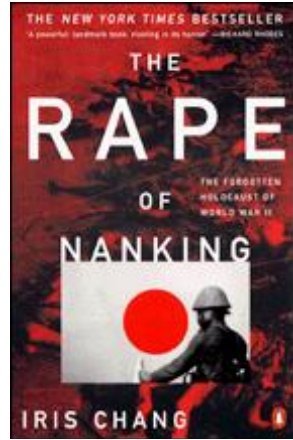
그런 사람이 있다. 언제나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 남들이 원하는 자리를 바로 그 앞에서 따내고 남을 물먹이는 사람. 그러면서도 주변 사람이 받는 상처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아이리스 장은 그런 사람이었다. 그것은 장의 노력과 재능 때문이었지만, 같은 길을 가려고 하는 동료들에게는 반가운 일이 될 수 없었다. 치열한 경쟁을 거쳐야 하는 자리는 언제나 장이 차지했다. 동료들은 그를 부러워하고 심지어 미워했다.

장은 <뉴욕 타임즈>에 기사를 기고하기 시작했고, 이어서 AP와 <시카고 트리뷴>에서 일했다. 저널리스트로서 화려한 출발이었지만, 장은 곧 지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그를 만난 한 대학 동료는, 장에게서 대학 때의 기관차 같은 열정 대신 피폐하고 지친 모습을 발견했다고 회고한다. 장은 전도 유망한 길을 접고 좀더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삶을 모색했다. 그는 스스로 기획한 주제에 대해 취재하고 이를 책으로 엮어 내면서 자유 기고를 하는 작가로 변신했다.

그의 첫 번째 작품은 미국에서 활동하다 중국으로 넘어간 중국 미사일의 아버지 첸수에센(錢學森)을 다룬 <누에의 비단실>(Thread of the Silkworm)로, 1995년에 출간됐다. 그러나 장이 작가로서, 그리고 역사가로서 미국 사회에 널리 알려진 것은 1997년에 두 번째 책 <남경의 강간: 2차 대전의 잊혀진 대학살> (The Rape of Nanking: The Forgotten Holocaust of World War I

I)22)을 꺼내면서부터였다. 중국을 몇 차례 방문하며 관련자들의 증언을 철저히 취재하고 방대한 자료를 모아 집필한 이 책은 남경 대학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던 미국 사회를 충격으로 뒤흔들었다. 남경 대학살 60주년을 맞는 해에 출간된 이 책은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 리스트에 10주 동안이나 머물렀다.

이 책의 성공에 힘입어, 채 서른이 되지 않은 아이리스 장은 일약 유명 작가로 등극했다. 당시 영부인이었던 힐러리 클린턴은 그를 백악관으로 불러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그를 기쁘게 한 것은 사람들이 비로소 이 감추어진 비극에 대해 알게 되고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었다. <남경의 강간>은 미국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장의 책은 음지에 묻혀 있던 이 사건을 전면으로 끌어냈으며, 미국인은 장의 책을 통해, 나치의 유대인 학살과 더불어 근세사에서 인간이 벌인 가장 잔혹한 학살이면서도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던 이 사건에 대해 알게 됐다. 남경 대학살 사건은 흔히 영어로 'the Rape of Nanking'으로 표현되는데, 이 말이 널리 퍼진 것은 아이리스 장의 책 덕분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장은 다만 조용히 책을 쓰고 뒤로 물러나 앉아 있지 않았다. 그는 남경 대학살에 대해 일본이 사과하고 제대로 보상할 것을 촉구하는 운동을 조직했으며, 기회가 있는 대로 대중 매체에 나가 진실을 알리려고 노력했다. 책과 강연, 대중 활동을 통해 남경 대학살의 진실을 미국 사회에 알리려고 노력하는 장이 일본의 눈엣가시가 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일본은 밖으로는 장의 주장이 불명확한 자료에 근거한 과장이라고 주장하고 안으로는 장을

22) the Rape of Nanking은 영어권에서 남경 학살 사건을 지칭하는 용어로 쓰이는 말이다. 장은 자기 책에서 the Rape of Nanking을 Nanking massacre, the Great Nanking Massacre, Nanjing Datusha 같은 말과 함께 쓰고 있다. 한편, 일본군이 남경 일대에서 광범위한 강간을 일삼은 것이 사실이지만, rape은 종종 강간보다 폭이 넓은 뜻, 즉 침략, 침탈, 파괴 같은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마녀 같은 존재로 취급했다. 일부 세력은 장을 해꼬지하겠다는 협박을 거리낌없이 내놓았다. 일본의 한 만화는 아이리스 장이 조작된 사진과 자료를 활용해 미국인을 선동하고 있다고 묘사했다(아래 그림). 불행하게도 일본의 주장은 힘을 얻지 못했다. 아이리스 장의 책에 실린 남경 참상의 사진 대부분은 언론 매체에서 나온 것이었으며, 일본 병사들 자신이 찍은 것도 있었다.

일본의 태도야 이미 충분히 예견했던 일이었다. 장은 당차게 싸워 나갔다. 장에 대한 지지는 곳곳에서 나왔다. 책을 통해 남경 대학살의 진실을 알게 된 미국인들은 장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비슷한 학살의 비극을 겪은 나이 많은 유대인들은 장을 자신들의 딸처럼 대접했다.

역사가가 역사를 오로지 차분하고 냉정한 시선으로 볼 수 있다면 바람직하겠지만, E. H. 카가 말하듯 완벽히 객관적인 역사가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젊고 열정에 찬 아이리스 장은 더욱 그러했는지 모른다. 더구나 그는 저널리스트이기도 했다. 진실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그를 추동한 주요한 동기이기도 했던 것이다. 아이리스 장의 의지는 굳었으나, 열정으로 타오르던 그의 감수성은 그렇지 못했다. 그는 남경 대학살의 희생자 자신들보다 더 분노하고 더 고통 받았다. 참상의 도가니에서 살아 나온 사람들이 과거를 증언하며 울 때 장도 함께 울었으며, 그들이 울음을 그쳤을 때도 장은 여전히 울었다. 7년 동안 거의 매일, 목이 잘리고 배가 갈려 창자가 튀어나오고 불타고 강간당한 뒤 도륙된 시체 사진과 씨름하며 수십만 원혼과 대화해야 했던 장은 극심한 신경 쇠약에 시달리게 되었다.

그럼에도 그 스스로 선택한 소명은 그를 더욱 몰아붙였다. 장은 일본의 만행을 취재하기 위해 세계 각처에 흩어져 사는 희생자들을 찾아갔으며, 그들로부터 포로에 대한 생체 실험, 종군위안부라는 이름 아래 벌어진 집단 강간 같은 끔찍한 사건을 끊임없이 들어야 했다. 증언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수십 년 동안 배속에 묻어둔 이야기를 해 주었으며,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숙소로 돌아온 장은 그 뒤 몇 시간을 혼자 울었다. 희생자들의 고통과 슬픔을 몇 배로 확장해 공명하던 그는 정신적으로 급격히 약해졌다. 잠을 자지 못했고 머리가 빠지기

시작했다.

필리핀 전선에서 일본군에게 포로가 된 뒤, 동료들 생매장하지 않으면 스스로 생매장 당하는 상황에 처했던 미군 포로들을 인터뷰하러 켄터키에 간 장은 결국 병원 신세를 지야 했다. 그의 정신 건강 상황은 이미 매우 나빠져 있었다. 그의 남편은 그를 걱정하면서도 크게 놀라지 않았다. 장이 다루어 온 개개인의 비극은 너무나 참혹하고 기막힌 것이어서, 그것을 끊임없이 듣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미쳐버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연들이었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의 집으로 돌아온 장은 친구들에게 하나하나 전화를 했다. 듣는 사람은 몰랐지만, 이것은 그의 작별 인사였다. 2004년 11월9일, 그는 캘리포니아의 한 국도변 차 안에서 자기 머리에 총을 쏘 상태로 발견되었다.

역사는 기억하는 사람만의 것이다. 역사의 교훈은 과거를 기억하고 이로부터 배우는 사람에게만 가치 있는 것이다. 수십 년 동안 남경 대학살은 일본과 중국 모두에 의해 적당히 은폐되어 왔다. 가해자인 일본이야 당연히 숨기고 싶었겠지만, 중국 역시 외침(外侵)에 수도가 유린된 이 전례 없이 수치스러운 사건을 되새기고 싶어하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것은 장의 책 한 권으로 달라졌다. 장의 책이 나온 뒤, 중국 곳곳에 일본의 만행을 기억하는 기념관과 박물관이 설립되었으며, 중국의 반일 감정은 크게 높아졌다. 장의 책은 세상을 뒤흔들었다. 그러나 세상을 뒤흔든 거대한 에너지는 오로지 장의 내부에서 나왔으며, 그는 스스로를 불태워 이 에너지를 만들었다. 장은 남경 대학살의 마지막 희생자나 다름없었다.

얼마 전 아이리스 장의 책 <남경의 강간>을 토대로 한 다큐멘터리가 제작되었다. 장이 뿌린 씨앗이 싹터 오른 또 하나의 결실이라 할 수 있다. 장의 불꽃 같은 생애 자체를 다룬 영화가 준비 중이라는 소식도 들린다.

내 발에 피는 아이리스는 만개했을 때 눈부시게 아름답다. 하늘하늘 여린 꽃 앞에서 어찌 저리 강한 위엄이 뿜어 나올까 싶다. 딱 하나 아쉬운 점은 꽃이 금방 진다는 것이다. 한 포기에서 나온 꽃 여러 송이를 모두 쳐도 한두 주일을 넘기지 못한다. 아이리스 장, 그도 아이리스 꽃처럼 금방 졌다. 그러나 그가 짧게 사는 동안 남긴 족적은 매우 넓고 깊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잊고 싶은

과거를 오늘에 되살린 그가 세상에 던지는 화두는, 역사의 교훈이 얼마나 위중한 것인가이다. 역사란 결코 부정한다고 부정되는 것도 아니며 있다고 잊히는 것도 아님을 아이리스는 무지개빛처럼 영롱하고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 아이리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무지개의 여신 이름이기도 하다.

참고자료 및 참고문헌

- 《The Rape of Nanking》 (한글명: 역사는 힘 있는 자가 쓰는가) - 아이리스 장
- 《John Rabe Der gute Deutsche von Nanking》 (한글명: 존 라베 난징의 굿맨) - 존 라베 저/에르빈 비커르트 편
- 문화방송 다큐멘터리, 세계를 뒤흔든 순간-난징대학살 편
- 이원복의 '먼나라 이웃나라' 중국편 (72) 중일 전쟁의 발발
- 이원복의 '먼나라 이웃나라' 중국편 (73) 난징 대학살
- 日외무, 1938년 비밀전문서 "난징에서 최소 30만명 살육"
- BBC News: Nanjing remembers massacre victims
- Online Documentary: The Nanking Atrocities A master's degree thesis that delves into the atrocity
- "Denying Genocide: The Evolution of the Denial of the Holocaust and the Nanking Massacre," college research paper by Joseph Chapel, 2004
- English translation of a classified Chinese document on the Nanjing Massacre
- Japanese Imperialism and the Massacre in Nanjing by Gao Xingzu, Wu Shimin, Hu Yungong, & Cha Ruizhen
- Kirk Denton, "Heroic Resistance and Victims of Atrocity: Negotiating the Memory of Japanese Imperialism in Chinese Museums"
- The Nanjing Incident: Recent Research and Trends by David Askew in the Electronic Journal of Contemporary Japanese Studies, April 2002
- Nanjing Massacre Memorial Hall
- 'No massacre in Nanking,' Japanese lawmakers say
- The Rape of Nanking - Nanjing Massacre -English Language

Edition - 1:17:17 - Aug 25, 2006

Rape of Nanking Original reports from The Times

The Rape of Nanking - Nanjing Massacre - English Language Edition. Two hour web documentary.

War and reconciliation: a tale of two countries

Booknotes interview with Iris Chang on The Rape of Nanking: The



동북아역사재단 소개

동북아와 세계 전체를 불행하게 만들었던 잘못된 역사관과 그로 인해 야기된 문제점을 직시, 장기적 종합적 연구 분석과 체계적·전략적 정책 개발을 수행함으로써 올바른 역사 이해를 도모,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역사연구와 정책개발의 중심

동북아시아의 역사에 대한 오해와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넓고 깊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동북아시아 역사연구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또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역사갈등을 극복하고 역사화해를 이룩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개발하여 제시하겠습니다.

역사대화와 교류협력의 허브

동북아시아의 상호이해와 평화공영을 위해서는 자국의 역사를 소중히 여기면서 이웃나라의 역사도 존중하는 열린 자세가 필요합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국내외의 역사연구자, 역사교육자, 역사관련 NGO등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역사대화의 허브가 되겠습니다.

동아시아공동체의 기반 조성

동북아시아의 역사에는 평화롭게 교류하고 협력한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이러한 사실을 발굴하고 연구하여 우호와 신뢰에 기초한 동아시아 공동체를 창출하는 데 일조(一助)할 것입니다.

활동 방향

- 동북아시아 고대사 연구
- 이웃나라의 한국관 대응과 연구
- 독도에 관한 학제적 연구
- 동해명칭의 국제적 확산
-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동아시아상' 모색
- 한·중·일 공동의 역사인식 지향
- 학술교류와 역사화해
- 시민사회의 교류와 협력 강화



역사교육사업 소개

1. 한·중·일 역사갈등, 우리가 해법을 제시한다! - 제7회 청소년 역사체험 발표대회
 - 대상 : 전국 역사동아리(3~5인으로 구성, 지도교사 참여)
 - 주제 : 한·중·일 역사갈등 현안을 주제로 한 역사체험 활동
 - 특별세션 : 동아시아사 / 한중일 및 한일 공동 부교재를 처음 만났을 때..
 - 참가방법 : 역사동아리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참가
 - 일정 : 참가 동아리 모집(3월), 예선(4~5월), 본선(15개팀 내외)
2. 만나고 싶었어요! - 역사 콘서트
 - 대상 : 청소년 및 관심 있는 시민
 - 주제 : 독도, 동해표기, 일본군'위안부', 고구려 문제 등
 - 일정 : 연4회(3월, 5월, 8월, 10월)
 - 참가방법 : 참가를 희망하는 청소년 개별 신청
 - 장소 : 서울 및 지방
3. 동북아지역의 역사갈등, 이것이 궁금합니다! - 찾아가는 역사 강좌
 - 대상 : 전국 중고등학교
 - 주제 : 독도, 동해표기, 일본군'위안부', 고구려 문제 등
 - 일정 : 상반기 및 하반기
 - 방법 : 역사 강좌 신청기간 중에 신청하여 선정된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
4. 역사교사들을 위한 강좌 - 역사아카데미
 - 대상 : 교사 및 연구자, 관심있는 시민 등
 - 주제 : 독도, 동해표기, 일본군'위안부', 고구려 문제 등 전반
 - 일정 : 상반기(5~6월)

- 방법 : 사전 신청자 또는 당일 신청자 참여

5. 역사교사 해외교환 방문수업

- 대상 : 상호 교사를 교환하여 역사수업이 가능한 국내외 학교
- 내용 : 양국의 역사 교사가 상호 학교에 방문하여 상대국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시행
- 일정 : 3-4월 선발하여 5월-10월 중 시행
- 방법 : 국내와 해외, 양국의 2개 학교가 파트너가 되어 한 팀으로 구성 (한 학교에서 교사 2명씩 참가, 총 4명이 한 팀을 구성)
- 지원 : 총 5팀(국내외 총 10개교, 20명)선발, 팀 당 600만원 지원

숙소 배정표(2.13~15)

NO	NAME	REMARKS	NO	NAME	REMARKS
1	김재숙 KIM JAE SUK 이순아 LEE SOON AH		10	김상국 KIM SANG KOOK 길형환 KIL HYUNG HWAN	
2	장현숙 JANG HYUN SUK 이은영 LEE EUN YOUNG		11	정경림 CHONG KYOUNG LIM 장향숙 CHANG HYANG SOOK	
3	한태명 HAN TAE MYUNG 박종관 PARK CHONG KWAN		12	장영숙 JANG YOUNG SUK 허현주 HEO HYUN JU	
4	조영선 CHO YOUNG SUN 하태석 HA TAE SEOK		13	장연환 JANG YOUN HWAN 오세운 OH SE WOON	
5	김혜정 KIM HYE JUNG 김나영 KIM NA YOUNG		14	이윤선 LEE YOON SUN 서현주 SEO HYUN JU	
6	김경아 KIM KYOUNG AH 황상희 HWANG SANG HEE		15	노유경 ROH YOU KYUNG 정은정 JEONG EUN JUNG	
7	김완유 KIM WAN YU 서종복 SEO JONG BOK		16	전병근 JEON BYUNG GEUN	
8	송혜경 SONG HYE KYUNG 편민정 PYEON MIN JEONG		17	이관배 LEE KWAN BAE	
9	임명희 YIM MYUNG HEE 황정선 HWANG JEONG SEON		18		

- * 긴급 연락 시
- * 방과 방 사이
- * 아침 기상 :
- 아침 식사 :
- 출발 시간 :

숙소 배정표(2.15~17)

NO	NAME	REMARKS	NO	NAME	REMARKS
1	김 재 속 KIM JAE SUK 이 순 아 LEE SOON AH		10	김 상 국 KIM SANG KOOK 길 형 환 KIL HYUNG HWAN	
2	장 현 속 JANG HYUN SUK 이 은 영 LEE EUN YOUNG		11	정 경 림 CHONG KYOUNG LIM 장 향 속 CHANG HYANG SOOK	
3	한 태 명 HAN TAE MYUNG 박 종 관 PARK CHONG KWAN		12	장 영 속 JANG YOUNG SUK 허 현 주 HEO HYUN JU	
4	조 영 선 CHO YOUNG SUN 하 태 석 HA TAE SEOK		13	장 언 환 JANG YOUN HWAN 오 세 운 OH SE WOON	
5	김 혜 정 KIM HYE JUNG 김 나 영 KIM NA YOUNG		14	이 윤 선 LEE YOON SUN 서 현 주 SEO HYUN JU	
6	김 경 아 KIM KYOUNG AH 황 상 희 HWANG SANG HEE		15	노 유 경 ROH YOU KYUNG 정 은 정 JEONG EUN JUNG	
7	김 완 유 KIM WAN YU 서 종 북 SEO JONG BOK		16	전 병 근 JEON BYUNG GEUN	
8	송 혜 경 SONG HYE KYUNG 편 민 정 PYEON MIN JEONG		17	이 관 배 LEE KWAN BAE	
9	임 명 희 YIM MYUNG HEE 황 정 선 HWANG JEONG SEON		18		

- * 긴급 연락 시
- * 방과 방 사이
- * 아침 기상 :
- 아침 식사 :
- 출발 시간 :

여행 준비

■ 짐 꾸리기

짐은 최대한 가볍게 싸야 즐겁고 알차게 여행할 수 있다. 기내 반입 짐은 기내선반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작은 가방1개 정도만 휴대하도록 한다. 가방크기와 무게는 아래 내용 참조 하시어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용도 칼, 과도, 가위, 손톱깎기, 액체류나 젤류의 화장품 혹은 휴대용고추장은 휴대짐이 아닌 부치는

수화물에 넣어 보내는 것이 좋다. 기내 반입시 액체류나 젤류는 1개당 100ml 이하 총합이 1ℓ이하로 투명비닐

팩(가로x세로 20cm이하)에 넣어 휴대한다. 노트북컴퓨터, 카메라, 보석류, 골동품 등 고가의 물품은 가급적

직접 휴대한다.

■ 위탁수화물

- 2등석 (ECONOMIC CLASS) 개인 수화물은 20Kg 이하로 제한.
- 가방의 사이즈는 가로 / 세로 / 높이 158cm(62inch) 이내
- 기내반입 수화물은 가로/세로/높이 115cm이하이며 12kg 이하의 가방.

■ 준비물

- 여 권 - 여행 전에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하며(원칙상 6개월 이상 기간이 남아야 한다.) 1면 복사본도 별도 보관 한다. (여행 중 분실했을 때 재발급을 위해 필요하다.)
- 항공권 - 탑승일자과 탑승자의 영문명을 확인한다.
- 가 방 - 가방은 숙소에 두고 다니는 큰 가방, 다니실 때 간단한 필수품을 넣어서 가지고 다닐 작은 가방, 그리고 돈과 서류를 넣는 복대 또는 목걸이 주머니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 의 류 - 우리나라의 날씨와 특별히 다르지 않은 날씨로 복장은 서울복장 그대로 준비한다.
- 우 산 - 낫은 날씨를 대비해 우산도 준비한다.
- 신 발 - **편한 신발로 준비**하도록 한다.

- 환 전 - 관광지역이나 호텔에서는 US\$가 통용되나 가능한 현지화(위엔화)를 환전하시되, 잔돈을 적절히 환전하세요.
- 현지식사가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이동 거리가 있어, 간단한 밑반찬류 (깻잎, 김, 튜브고추장 정도)이나 간식류(육포, 컵라면, 사탕, 껌, 과자류)를 준비 하시면 좋습니다.
- 세면도구-샴푸 / 린스 / 칫솔 / 치약 - 호텔에 따라 비치 여부가 다르므로 만일을 위해 준비한다.
그 외에 면도기, **물티슈**, **티슈**, 등을 준비한다.

■ 상비약

- 복용하고 있는 약은 꼭 지참을 해야 합니다.
- 소화제, 지사제, 진통제, 감기약, 멀미약, 두통약, 안약, 밴드 등 상비약을 준비한다.(비타민제도 준비하면 좋습니다.)

■ 기타 준비물

- 카메라 및 필름 - 아날로그 카메라의 경우 현지에서는 많이 비싸므로 충분한 필름을 챙기는 것이 좋으며 디지털 카메라의 경우 반드시 충전기, 배터리, 메모리, 멀티콘센트 등을 준비한다.
- 소형 계산기 와 필기도구 수첩 (여권번호, 신용카드, 현지주요기관 등의 전화번호 메모)
- 기내나 이동시 간단히 읽을 수 있는 가이드 북 또는 잡지
- 드라이기 - 호텔에 따라 비치 여부가 다르므로 필요하면 준비한다.
- 알람시계 - 호텔에서 모닝콜을 하지만 따로 하니쯤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 칩스틱 - 기후변화로 인해 입술이 부르틀 경우 대비
- 비닐봉지 - 짐정리와 보관을 위해 2~3개 정도 준비 하시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전통기념품 - 여행 중 만나는 외국인과의 교류를 위해 한국을 상징하는 열쇠고리/ 엽서/ 동전 등을 준비하면 좋다.

단체 비자

단체명 : 동북아역사재단

기 간 : 2012년 02월 13일 ~ 02월 17일 (4박5일)

1 조		2 조		3 조	
번호	성 명	번호	성 명	번호	성 명
1	한 태 명	1	김 완 유	1	전 병 근
2	김 재 숙	2	황 상 희	2	이 관 배
3	이 순 아	3	송 혜 경	3	장 영 숙
4	장 현 숙	4	편 민 정	4	성 기 현 (취소)
5	이 은 영	5	임 명 희	5	장 연 환
6	박 종 관	6	황 정 선	6	오 세 운
7	조 영 선	7	김 상 국	7	이 윤 선
8	김 혜 정	8	길 형 환	8	서 현 주
9	김 나 영	9	정 경 림	9	정 은 정
10	김 경 아	10	장 향 숙	10	허 현 주(개인)
11	하 태 석	11	서 종 복	11	노 유 경(개인)

중국어 한마디

我 나(1인칭 대명사) / wǒ

你 당신(2인칭 대명사) / Nǐ

您 당신(2인칭 극존칭 대명사) / nín

他/她 그/그녀 (3인칭 대명사) / tā/tā

안녕하세요! / 你好 / Nǐ hǎo

저는 한국사람입니다. / 我是韩国人。 / wǒ shì Hánguoren

저분은 중국사람입니다. / 他(她)是中国人。 / tā(tā) shì Zhōngguoren

저는 역사선생님입니다. / 我是历史老师。 / wǒshìlìshǐlǎoshī

당신의 성함은 무엇입니까? / 您贵姓? / nín guì xìng?

제 이름은 마원입니다. / 我叫马文。 / Wǒ jiào Mǎwén.

이것은 얼마입니까? / 这个多少钱? / zhègeduōshǎoqián

너무 비싸요, 조금만 싸게 해주세요.

太贵了, 便宜点儿吧。 / tài guì le piányi diǎnr ba

이것은 선물용입니다. 따로 포장해주세요.

这是送礼物的, 分开包装一下。

zhèshìsònglǐwùde fēnkāibāozhuāngyíxià

안녕하세요. 니 하오
감사합니다. 시에시에
미안합니다. 뚜이 부 치
팬찮습니다. 메이판 시
잘 알았습니다. 위똥러
안녕히 계십시오. 짜이지엔

당신의 성함은? 닌 꾸이 싱
적어주십시오. 칭 니 시에이시아
나는 한국인입니다. 워스 한꾸어 런

저와 함께 사진을 찍읍시다. 칭뀐 워 이 치자오시앙바
사진 좀 찍어도 되겠습니까? 커 이 파이 니 더 자오피엔 마

좀 깎읍시다. 사오쭈안띠엔 바
너무 비싸요. 타이꾸이
얼마입니까? 뚜어사오치엔

잠깐만요(말을 걸 때나 부를 때)
시아오지에 (젊은 여성)
시엔 성 (남성)

메모장

메모장

메모장

메모장

메모장

연락처

상해 현지 여행사	담 당 : 조 희 옥 과장 전 화 : (86-21)6401-0604 핸드폰 : 186-0161-4599
	상해가이드 : 최 천 호(M) 핸드 폰 : 133-1188-7758
	남경가이드 : 최 천 호(M) 핸드 폰 : 133-1188-7758

서울 비상 연락처

SEOUL / KOREA	<p>JUNO TRAVEL</p> 담 당 : 김 명 자 대표 전 화 : 02-717-7670 핸드폰 : 010-5239-9280
----------------------	--

* 중국 상해 공항 미팅보드 : “동북아 역사재단”

※ 본 자료는 제3회 동아시아사 교원 현장 연수용으로 제작되었으며,
동북아역사재단의 공식적인 견해는 아닙니다.